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8009-200000182095

문학 석사 학위 논문

노자의 사회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Laozi's Social and Political Ideas

울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강대용

노자의 사회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Laozi's Social and Political Ideas

지도 교수 손 영 식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강대용

강대용의 문학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상 영 (인)

심사위원 권 용 혁 (인)

심사위원 손 영 식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9년 2월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동안 제 논문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만학인 저를 아무 스스럼없이 반겨주신 울산대 철학과 교수님들과 선, 후배님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원 처음 면접 보던 날 철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노자가 좋아서 노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원 생활이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1년 이상 『노자』 강독을 해주시고 논문지도를 해주신 손 영식 교수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은혜는 평생토록 못 잊을 일입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 공부에 매진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기억하겠습니다.

논문을 쓰는 실질적 방법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김보현 교수님과 동양, 서양 철학의 비교와 분석을 통한 사유에 대해서 알게 해 준 권용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항상 인자한 웃음으로 용기를 주셨던 이 상엽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불교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식을 가르쳐 주신 박태원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9년 1월

강 대 용

국문 요약

노자는 동양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노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노자의 사상은 초나라 지역의 정복 전쟁의 영향이 컸다. 이 정복 전쟁의 영향으로 초나라 지역에서는 '힘으로 강압하는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의식이 생겨났다. 그것이 노자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노자의 기본 사상은 道와 德으로 말할 수 있다. '道'는 '길'을 뜻한다. 노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변화한다. 변화해 나가는 데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다. 이를 '道', 즉 '길'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道'는 객관적인 필연성, 자연적 추세를 의미한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식하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다. 현상 세계에는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있다. 그것이 道이다. 德은 능력이고 힘이며, 또한 특징이다. 사람이 道를 알 때, 그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다.

노자는 세상을 '도와 현상'이라는 두 가지 것으로 본다. *무명(無名)-유명(有名), 무욕(無欲)-유욕(有欲)*의 대립이 그것이다. 道는 無名이며 無欲이다. 이름이 없고, 욕망이 없다. 반면 현상 세계는 有名이며 有欲이다. 이름이 붙어 있고, 욕망의 대상이다.

도(道) - 무명(無名) - 무(無) : '無名'은 "이름이 없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을 없앰"이다. 여기에서 '이름'은 현상과 사물을 규정하는 수단이다. 현상 사물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들이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것과 반대가 道이다. 道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힘이다.

노자는 道의 이미지를 '*곡신(谷神), 현빈(玄牝), 박(樸)*'이라고도 한다. '谷神'은 '골짜기의 신'이다. '玄牝'은 '신비한 암컷'이다. 정상은 빛나고 높지만, 생명체가 자라기 힘들다. 반면 골짜기는 움푹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생명의 산실이다. 곡신(谷神) 현빈(玄牝)은 둘 다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말로 道를 비유한 것은 道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낳는 '생산력'이 있다는 뜻이다.

'樸'은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이다. 원 재료이다. 무규정자이다. 노자는 '樸'이라는 말로 국가 최고 권력의 원래 상태를 은유·비유한다. 모든 것을 낳는 자는 '무규정자'이다. 가공하지 않는 통나무(樸)와 같다.

노자는 역발상을 한다. 그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기를 철저히 실천한다. 이 실천의 결과가 '대립자의 공존(모순 공존)'의 논리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처럼 대립된 양쪽, 즉 A와 ~A의 둘 다를 인식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하다.

노자가 말하는 이상 국가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이다. 이는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을 뜻한다. 노자는 문명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국과민(小國寡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노자의 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통나무'(樸)와 '그릇'(器)*이다. 통나무는 원재료이다. 통나무를 가공해서 가구를 만든다. 이것은 재료와 제품의 관계이다. 이를 통해서 노자는 국가의 구성을 설명한다. 국가를 이루는 원재료는 군주권, 혹은 주권이다. 관청과 관리를 '器'(그릇)이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군주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樸과 器로 최고 권력(주권)이 국가를 구성함을 설명한다.

노자는 국가의 권력을 *신기(神器)와 이기(利器)*로 말한다. 여기에서 '신묘함, 날카로움'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군주가 군주인 이유는 최고 권력(주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利器'는 일차적으로 국가 최고 권력(주권, 왕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利器'는 법규 규정 명령 형벌, 각종 통치 제도나 법령을 총망라한 사회 시스템의 총체이다.

노자는 道에 의한 정치를 '無爲 自然'이라 하고 무통치의 통치를 하라고 강조한다. '無爲 自然'이란 내가 주관적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행위함이 없이, 道라는 객관적 추세(스스로 그러함, 自然)를 따르라. 이것이 정치의 요점 중 하나이다.

'樸'은 노자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통나무 = 무규정 = 변화 가능성 = 자유 = 능력"을 상징한다. 이것은 군주의 최고 권력(군주권, 주권)을 비유한다. 군주는 최고 권력을 쪼개어서 관청과 관직을 만든다. 그래서 국가 체제를 만든다. '樸'의 두 번째 의미는 "통나무 = 규정되지 않음 = 소박함 = 원시 자연"이다.

노자가 주장하는 우민(愚民) 정치란,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백성들에게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無知와 無欲의 상태가 백성에게는 행복의 상태이다.

노자는 처세술의 측면을 매우 강조한다. 그것이 제왕학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처세술'이라 하고, 군주의 경우에는 '제왕학'이라 한다. 노자의 주된 이야기는 처세술이다. 그리고 이는 제왕학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군주가 가진 국가 최고의 권력을 '주권', 혹은 군주권이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군주권이 분할되어 나간 것이 국가의 관청이나 기구가 된다. 관청과 관리는 군주권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반면 최고 권력으로서 군주권은 분할되지 않은 것, 가공되지 않는 것(樸, 통나무), 혼돈 상태의 것이다. 그것은 통나무처럼 원재료이다. 이 재료에서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구가 만들어진다. 모든 것을 만드는 원재료는 전혀 마름질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것이다. "크게 마름질된 것은 쪼개지지 않은 것이다."(大制不割) 이 통나무가 흩어져서 그릇이 된다(樸散爲器). 군주권은 재료이다. 그래서 가능태이다.

노자는 군주는 '抱一'을 하라고 한다. 이 '抱一'이란 '하나로 껴안음'이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둘을 함축한다. 둘이기 때문에 하나로 껴안는 것이다. 노자는 현상 세계를 변화로 본다. 따라서 노자는 A와 ~A의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한다. 반드시 둘 다를 보고,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로 껴안음'이다. '抱一'은 하나됨을 껴안음이고, '得一'은 하나됨을 얻음이다. 이것은 군주에게 중요한 것이다. 제왕학의 핵심이다.

正과 奇는 안과 밖의 차이이다. 자기 군대를 조직하고 통솔 하는 것, 즉 합하는 것은 正,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 올바름이란 규칙 법도 등 불변의 것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적군을 향한 공격은 변화무쌍해야 한다. 奇란 바로 그 자유자재한 변화를 말한다.

노자는 숨겨 놓은 지혜로 화광동진(和光同塵), 습명(襲明). 현동(玄同)을 말한다.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최소화시켜라. 여성적인 것을 상징한다. 권력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수가 많다. 和光同塵은 그 지혜의 빛을 감추고 먼지와 같아지라는 말이다. 빛이 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지혜를 과시하면 쉽게 쓸 수 없다. 주위에서 모두 그 지혜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襲明은 옷으로 감싸 감추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밝은 지혜이다. 和光同塵, 襲明, 玄同은 선악이 입장이 아니다. 선악 (윤리 도덕)에 따르면, 버릴 사람, 구할 사람이 구분된다. 노자의 和光同塵,

襲明, 玄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하는 것이다.

차 례

1. **들어가는 말** 1
   1.1. 노자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1
   1.2. 노자 - 철저한 현실주의자 1
   1.3. 공자와 노자의 사고 방식 2
   1.4. 지역에 따른 기질적 차이 2
   1.5. 정치 사상 3
   1.6. 선행 연구 반성 4
   1.7. 중요성, 활용 방안 4
2. **노자(老子)에 대해서** 6
   2.1. '노자'라는 사람 6
   2.2. 『노자』라는 책 11
   2.3. 도가의 사상적 배경과 흐름 19
3. **노자의 기본 사상** 28
   3.1. 道와 德 28
   3.2. 도와 현상 34
   3.3. 도와 언어 표현 방법 39
   3.4. 道와 無名 - 무규정 40
   3.5. 도의 이미지 - 곡신(谷神), 박(樸) 44
   3.6. 덕(德)의 개념 45
   3.7. 대립자의 공존 48
4. **노자의 국가론** 52
   4.1. 소국과민(小國寡民)과 퇴보 사관 52
   4.2. 통나무(樸)와 그릇(器) 56
   4.3. 전쟁이론 64
5. **정치사상** 70
   5.1. 『노자』에 대한 시각 - 양생술과 통치론 70
   5.2. 도에 의한 정치 - 무위(無爲)의 정치 71
   5.3. 우민(愚民) 정치 77
6. **제왕학** 81
   6.1. 군주권의 본질 81
   6.2. 포일(抱一) 사상 81
   6.3. 노자의 통치론 88
   6.4. 정(正)과 기(奇)의 사상 92
   6.5. 숨겨 놓은 지혜 97
      - 화광동진(和光同塵), 습명(襲明), 현동(玄同)사상

7. 맺는 말 **110**
참고문헌 114

1. 들어가는 말

1.1, 노자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일반적으로 '노자' 하면 신비한 사상가, 현실을 초월한 신선, 동양의 심오한 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라는 인상이 있다.

노자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노자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자라는 사람은 신선풍의 도인(道人)이나 도사(道士)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 달관한 사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막힘이 없는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적 사상가라는 인식이 지배를 하였다. 그 배경에는 도교라는 종교적 영향도 컸을 것이다.

도교(道敎)는 도가(道家) 사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도교는 종교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도가 사상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도교는 불로장생으로 연결되는 신선술이나, 질병 치료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해서, 마치 노자나 장자가 신선 쯤 되는 사람이거나 그 이상의 신으로까지 여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나 장자의 모습이다.

1.2, 노자 - 철저한 현실주의자

그러나 노자와 장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노자는 인간 세계를 벗어난 신비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것을 말한다. 초월 달관함 보다는, 욕망이 없는 마음의 평정함 속에서 치밀한 계산을 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노자는 마음을 비우라(虛心)고 한다.

노자는 항상 일반인들과 반대로 생각하며, 상식을 뒤엎으려 한다. 높음보다는 낮음을,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앞으로 나서기 보다는 뒤로 물러남을, 남성적인 것보다는 여성적인 것을 취할 것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강함, 남성적임, 앞으로 나섬"을 취하면, 좋은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다. 노자 당시 군주들이 다 그런 태도를 가진다.

이에 대해서 노자는 길고 멀리 보자고 한다. 남성적인 강함은 당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길고 멀리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강함은 오래 가지 못 한다. 이렇게 길고 멀리 보기 때문에, 노자가 신비한 통찰력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그러나 노자는 현실을 냉엄한 힘의 관계로 파악한다. 강한 힘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다줌을 통찰한다. 그는 신비한 사상가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노자는 유가보다도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런 냉철함과 현실적인 처세술은 노자의 사상을 정치론 혹은 국가론으로 이끈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우리의 정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런 노자의 사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한 사람의 철학에는 그 시대상이 반영된다. 노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연구해야 한다.

1.3, 공자와 노자의 사고 방식

공자의 유가 사상은 중국의 정통 사상이다. 반면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은 유가 사상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유가에 부족한 점을 채워 주었다. 유가는 도덕을 현실에 실천하는 관리를 양성하려 했다. 반면 노자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이다. 장자는 현실을 초월달관한다. 관리가 성공하면 현실 파악이 필요하고, 실패하면 현실을 초월달관해야 한다.

공자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변의 것을 추구했다. 정명론(正名論)이 그것이다. "(현실의)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 여기에서 '임금다움'은 이상적인 군주상이며, 불변의 것이다.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질 수 없다. 정명(正名)은 이름(관념) 속에 보존된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자가 보건대, 불변의 이름이란 없다. 노자는 이름과 이상을 부정한다. 그것이 무명론(無名論)이다. 여기에서 '無名'이란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을 없앤다"는 뜻이다. 현상 세계에는 이름이 없다. 대신에 현상 세계는 대립자가 공존한다.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반대가 반드시 생겨난다.

공자가 말하는 이름도 이 대립자의 공존 논리가 적용된다. '임금다운 임금'에는 '임금답지 못 함'이 반드시 있다. 이를 통해서 노자는 유가가 주장하는 '이름-이상'이 결국 권력 추구의 도구에 불과함을 보여 준다. 이런 노자의 반론에 유가는 큰 타격을 받는다.

노자의 대립자의 공존 논리는 강력하다. 현실을 설명하거나 현실에 살아가는데, 그 논리는 무척 쓸모가 있었다. 이런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은 나아가 정치사상으로까지 확대된다. 공자의 이상주의적 정치와 반대로 노자는 현실주의적 정치를 말한다.

1.4, 지역에 따른 기질적 차이

노자의 사상이 공자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이유가 있다.

1) 기후 차이

공자는 중국 북방(황하 유역)의 기질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라면, 노자는 남방(장강 유역)의 기질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공자가 북방인 노(魯) 나라 출신이라면, 노자는 남방의 초(楚)나라 출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방과 남방은 기질이 서로 틀리다.

북방과 남방은 기후와 자연이 다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기질이나 관습 문화 전반이 대조적이다. 북방은 날씨가 차갑고 자연 조건이 거칠고 메말라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기 주위의 조건들과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남방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물이 잘 자라고 물산이 풍부하여 사람들은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 때문에 북방 사람들은 억세고 투쟁적이며 현실적인데 비하여, 남방 사람들은 부드럽고 평화적이며, 낭만적이다.

북방과 남방의 기질의 차이는 옛날부터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중국 사람들의 정서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중국 사람들의 통념이 되었다.

2) 사회 정치적 상황 차이

물론 기후와 자연이 사람들의 기질 정서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기후보다는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자와 노자도 그렇다.

춘추 시대 후기에 가장 잔인하게 싸웠던 지역이 초, 오, 월, 세 나라이다. 월이 오를 멸망시키고, 다시 초가 월을 멸망시켰다. 이 셋은 전쟁이 일상화된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대단히 비참했다. 전쟁이란 것은 힘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다. 힘을 가진 소수의 잘못된 욕망이 힘이 없는 다수의 절대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또 이기거나 지거나 간에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복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나라 지역의 사람들은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자의 사상은 북방과 남방의 기질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초나라 지역에서 끊임없이 잔인하게 벌어진 정복 전쟁의 영향이 더 컸을 것이다.

남방 사람들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 때문에, 전쟁처럼 힘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상이 나온 것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현실의 잔혹함 때문에 이런 비판 의식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노자의 사상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노자의 사상은 공자의 사상과 반대가 된다. 힘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노자의 성향은 정치사상의 핵심이 된다.

공자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같은 덕목과 도덕 규범(禮)으로 현실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다. 공자는 도덕주의자이다. 현상 세계에 윤리 도덕을 실현시키려 한다. 반면 노자는 현상적인 차원을 넘어선 도(道)라는 절대적인 원리를 추구한다. 현실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이성(理性)을 바탕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판단 아래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를 따르라고 한다. 도(道)는 세상이 변해가는 '길'이다. 객관적인 필연성이다. 세상에는 내 의지나 욕망에 상관없이 돌아가는 법칙이나 흐름이 있다. 객관은 주관과 다르다. 도라는 객관 필연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기 위주의 욕망을 가지고 힘으로 몰아붙이면 결과가 나빠지거나 실패하게 된다. 노자는 힘에 의한 강압을 혐오한다.

1.5, 정치 사상

노자 사상 가운데 정치 분야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노자』안에 정치나 국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 가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치론이나 국가론을 쓰기는 쉽지 않다.

『노자』는『道德經』이라 한다. 앞은 道를, 뒤는 德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도에 대한 연구로 나간다. 그리고 도를 현상을 초월한 본체로 간주한다. 현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도와 현실 정치, 혹은 국가를 연결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노자』의 원문은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함축을 포함한다. 그 함축들을 따져보면, 정치사상과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자의 사상을 '처세술, 제왕학'으로 본다.

예를 들자면, 抱一과 得一의 사상이 그렇다. '抱一'은 대립된 두 측면을 "하나로 껴안음"이고 '得一'은 "하나로 됨을 얻음"이다. 세상 일은 반드시 대립된 두 측면이 있다. 그 둘을 다 고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군주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야 한다.

노자는 현상 사물 뒤에 도가 있다고 본다. 도와 현상 사물의 2원적 구조는 그대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군주는 무위(無爲)하고, 신하는 유위(有爲)한다. 그래서 군주는 함이 없지만, 하지 않음도 없다. 이를 '無爲而無不爲'라고 한다.

예로부터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상이 있었다. 좋은 정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 관심사였다. 그래서 본 논문은 노자의 핵심 사상들을 정치 이론과 연결시켜서 쓰기로 한다.

1.6, 선행 연구 반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문학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박해진 사회의 현실에서 다시 인문학이나 고전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노자이다. 그것은 아마 노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노자 학자들 중에서 단연 주목 받는 사람은 최진석 교수이다. 이분은 노자가 실제 말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 백서나 죽간과 같은 출토본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 노자의 실제 원음을 들려주고자 한 것이다. 많은 부분 수긍을 한다. 그러나 도를 초월적 실체로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본체에만 주목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다. 현재 학자들이 노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현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1.7, 중요성, 활용 방안

1)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노자의 도(道) 혹은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같은 본체 이론에 초점을 맞춘다. 본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상과 현실 세계에 대한 노자의 주장을 소홀하게 다룬다. 그래서 노자 사상의 참모습을 가리게 된다.

이 논문은 본체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노자의 생각을 주로 다루겠다. 이를 통해서 노자가 얼마나 당시 사회 국가의 혼란을 걱정하고, 그것을 구제하려 했는지를 밝히겠다.

2) 노자의 사상은 사람이 사는 방식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사상은 '처세술'이 가장 중요하다. 군주가 써야 할 처세술은 제왕학이라 한다.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의 처세술은 병법이다. 노자는 제왕학과 병법을 겸하고 있다.

노자의 처세술은 현재의 평범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다. 세상일은 대립된 두 측면이 있다. 그 둘 중 하나만 보는 일상인보다는 대립된 양쪽을 보는 노자는 훨씬 처세술에 능하다.

또한 노자의 사상을 통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대립된 두 당파가 싸울 때, 대립자의 공존의 논리는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

2. 노자(老子)에 대해서

2.1, '노자'라는 사람

1) 노자 이이(李耳)에 대한 사마천의 기록

노자(老子)에 대해서 가장 최초의 믿을만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이다. 「노자 한비 열전」[1]에서 사마천은 노자의 후보자로 세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이이(李耳) ② 노래자(老萊子) ③ 태사담(太師儋)이 그들이다. 이렇게 여럿을 말하는 이유는 사마천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마천이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설명한다.

현재 출토된 죽간 혹은 백서 노자로 보건데, 『노자』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협동으로 점차 현재의 『노자』로 완성된 것 같다. 따라서 『노자』를 어떤 한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다.

노자는 은자(隱者) 계열 사상가이다. 은자들은 세속에서 벗어나서 숨어 살려고 했다. 숨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감추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마천도 노자의 정체에 대해서 헷갈리게 기록하고 있다.

사마천은 「노자 한비 열전」에서 '이이(李耳)'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노자라는 사람은 초(楚)나라 고현(苦縣) 려향(厲鄉) 곡인리(曲仁里) 사람이다. 성은 이(李)씨이고,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이다. 주(周)나라 수장실(守藏室)의 관리(史)였다.
>
> 老子者，楚·苦縣·厲鄉·曲仁里 人也，姓李氏，名耳，字聃，周守藏室之史也。

'史'는 문서 작업을 하는 관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반대는 '士'이다. '士'는 무사 또는 군인들이다. 당시는 전쟁이 심했기 때문에 무사 중심의 사회였다. 노자가 '史'였다는 이 기록은 여러 문서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인이란 뜻을 포함한다. 이런 문서들을 통해 여러 지식과 사상들을 접했을 것이다. 또 권력의 중심으로는 나가지 못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전쟁 상황과 권력의 중심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史'는 매우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

그런데 사마천의 이 기록은 많은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노자가 '이씨'라는 사마천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증학자들은 춘추시대에 이씨란 성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씨 성이 등장하니 '노'가 '이'로 와전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좌전』의 노좌(老佐)나 노기(老祈), 『논어』의 노팽(老彭)이나 『사기』에 인용된 노래자

---

1) 이것은 「노장신한열전(老莊申韓列傳)」이라 하기도 한다. 노자 장자 신불해 한비 네 사람의 기록이다.」

(老萊子)등은 분명 사마천의 '이씨설'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보통 '子'는 성씨 뒤에 붙인다. 孔子 孟子 莊子 墨子 韓非子가 다 그러하다. 그렇다면 '老子'가 아닌 '李子'되어야 한다. 나아가 '老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에 가깝다. '老'는 한문에서 늙은 사람, 혹은 존칭으로 쓴다. '老子'는 '늙은 선생, 존경하는 선생'의 의미가 된다.

둘째, '苦縣 厲鄉 曲仁里'는 너무 자세한 주소이다. 당시에 이런 주소가 있었는가? 사람은 모호한데, 주소는 너무 자세하다. 또한 이 주소는 의미가 있다. 苦 ① 쓰다, 괴롭다. ② 씀바퀴 ; 厲려 ① 갈다, 괴롭다. 사납다. ② →礪려, 숫돌 ③ 문둥병 ④ 도깨비 이름 ; 曲仁 - 사랑을 굽힘, 굽혀진 사랑. 이상을 종합하면 ⑴ 씀바퀴 무성한 현, 자갈밭인 鄉, 구부러진 마을. ⑵ 괴로운 현, 사나운 鄉, 구부러진 사랑.

이것은 노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근접한다. 이런 지명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 기록에서 믿을만한 것은 초나라 하나뿐이다. 뒤에 나오는 노래자도 초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노자는 초나라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셋째, 주나라는 초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초나라는 춘추시대까지도 변방의 이민족 국가였다. 주나라의 봉건 제후국이 아니었을 것이다. 주나라 제후국들과 인종이나 언어도 달랐던 것 같다. '守藏室'은 '저장할 것을 지키는 집'이다. 저장할 것은 대부분 공문서 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史'는 문서 기록을 담당하는 관직을 두루 의미했다.[2] 뒤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뜻이 한정되었다. 사(史)와 반대는 사(士)이다. 사(士)는 무사들이었다. 당시는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사(史)는 한직이었다.

사마천이 노자의 직업을 수장실의 관리라고 추정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의 기록 때문이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장차 노자에게 예(禮)를 물었다." 공자가 가서 물었던 사람과, 초나라 출신의 이이(李耳)가 같은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자가 수장실의 사(史)였던 사람에게 가서 물은 이유는 있다. 그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관장 정도 되는 직책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박식했을 것이다. 지식인으로서 그 시대의 정치적 흐름이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가 가서 예를 물은 것이다.

이이가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어떤 이는 기원전 571 ~ 471년 사이에 산 것으로 추정하지만 신빙성은 떨어진다.

당(唐)나라의 사마정(司馬貞)은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후한 허신(許愼)의 설이라 하여 '담(聃)이란, 귀가 늘어졌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름은 이(耳), 자를 담(聃)이라 하였다. 이 사람의 자를 백양(伯陽)으로 알고 있으나 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래서 '노자의 성과 이름은 이이(李耳)이다.'라고 주장 했다.

2) 공자와 노자

2) 허신(許愼)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史 記事者也. 從手持中, 中正也."이라 한다. "史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글자의 형태는) 손이 中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中은 바름(正)이다." 손이 올바름을 잡고 있다는 말이다. 이때 '中'은 직접적으로는 붓을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붓을 올바로 잡아서, 바른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공자는 젊어서 널리 배움을 구하려 돌아다녔다.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 머무를 때 노자에게 예(禮)를 묻자 노자는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은 뼈가 이미 썩어 없어지고 오직 그들의 말만이 남아 있을 뿐이오. 또 군자는 때를 만나면 달려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이 되오. 내가 듣건대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 두어 텅 빈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모습과 지나친 야심을 버리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는 까닭은 이와 같기 때문이오.”

공자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했다.

“새가 잘 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나는 알며, 짐승이 잘 달린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질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오늘 만났던 노자는 아마도 용 같은 존재였구나!”

孔子適周，將問禮於老子。

老子曰：「子所言者，其人與骨皆已朽矣，獨其言在耳。

且君子得其時則駕，不得其時則蓬累而行。

吾聞之，良賈深藏若虛，君子盛德容貌若愚。

去子之驕氣與多欲，態色與淫志，是皆無益於子之身。

吾所以告子，若是而已。」

孔子去，謂弟子曰：「鳥，吾知其能飛；魚，吾知其能游；獸，吾知其能走。

走者可以為罔，游者可以為綸，飛者可以為矰。

至於龍，吾不能知 其乘風雲而上天。吾今日見老子，其猶龍邪！」[3)]

⑴ 이것은 사마천이 『노자 한비 열전』에 기록한 내용이다. 그리고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일화이다.

⑵ 주나라의 도서관 지기 노자와 공자가 만나서 나눈 대화이다. 공자는 젊어서 여러 사람에게 배우러 돌아다녔다.

⑶ 그래서 공자는 예를 물었는데, 노자는 예를 비난한 것이다. 예라는 것이 잘난척하는 도구나 권력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노자의 생각인 것이다. 이런 노자의 생각은 유가와 도가의 사상차이를 당시의 상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노자의 말은 노자 사상에 대한 상식적 견해를 토로한 것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이며 사상적 견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3) 사마천, 『사기열전』 1, 「노자 한비 열전」, 김원중 옮김. 믿음사, 2015, 95쪽

⑷ 노자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특징을 보인다.

⑸ 공자가 노자를 칭찬하는 이야기인데 『장자』에는 노자보다 공자가 중요한 사람으로 나온다.

3) 노자의 은퇴와 『도덕경』 저술

노자는 도(道)와 덕(德)을 닦고 그는 학문을 스스로 숨겨 명성을 없애는데 힘썼다. 오랫동안 주나라에서 살다가 주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가) 관(關)에 이르자,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말했다. (관문지기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 하시니 (저에게) 억지로라도 책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노자는 책 상하 편을 지어 '도'와 '덕'의 의미를 5000여 자로 말하고 떠나갔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여생을 끝냈는지 모른다.

老子修道德，其學以自隱無名為務。

居周久之，見周之衰，乃遂去。

至關，關令尹喜曰：「子將隱矣，彊為我著書。」

於是老子乃著書上下篇，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莫知其所終。

『老子·韓非 列傳』

⑴ 이것은 현재까지 노자 책의 성립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다. 현존하는 곽점 '竹簡'이나 '帛書'로 볼 때 『노자』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할 것이다.

⑵ 그리고 '關令尹喜'는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다. 사람 이름이기보다는 관직의 명칭 같다. 관윤 희, 윤희는 날조된 이름인 것이다. 호적 등이 지적을 하였다. 후대에 關尹喜曰라는 말이 있어서 『관윤자』라는 책이 만들어 진다. 사마천의 『사기』에 소진 장의의 선생이 鬼谷子이다. 그래서 『귀곡자』라는 책이 생긴다. 『장자』에 열어구(列禦寇) 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열자』라는 책이 생긴다. 둘 다 위진 시대 혹은 그 뒤에 만들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關令尹喜'를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⑶ 노자는 상 하편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뀐 것도 있다. 실제로 '죽간(竹簡)'이나, '백서(帛書)' 모두 德經이 먼저 있다. 이것은 『노자』가 漢代 이전에는 『德道經』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德道經』으로 보는 것이 실제에 더 가깝다.

⑷ 노자가 서쪽으로 가다가 『도덕경』을 적어 주었다는 이 일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아마도 후대에 지어진 일화 같다.

⑸ 노자 화호(化胡)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후, 노자가 서쪽으로 떠나 인도에서 내려준 가르침이 불교라는 이른바 '노자 화호설(化胡說)'이 떠돌기도 했다. 노자가 오랑캐((胡)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도교는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는 근거로 삼았고, 불교에서는 조작되었다고 하는 한편, '삼성 화현설(三聖化現說)'과 이 설이 담긴 '청정법행경'이라는 위경(僞經, 가짜

경전)을 지었다. 그 내용은 공자는 '유동 보살(광정 보살)'의 환생이고, 노자는 '가섭 보살'의 환생이라고 하였다. 이 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도교에서 불교가 크게 번성하여 도교의 자리가 위협받자 도교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고, 현존하는 '노자화호설'의 첫 등장이 불교 쪽 문헌이라 중국에 불교가 전해질 때 포교를 위해 지어냈다는 주장들이 있다. 실제로 '노자 화호설'은 외국 종교를 경시하던 중국에서 불교가 퍼지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많이 다르고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만큼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다. 도가의 철학적 의미를 찾는 것이라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4) 노래자 - 노자

어떤 사람에 의하면 노래자(老萊子)도 초나라 사람으로, 책 열 다섯 편을 지어 도의 쓰임을 말하였다.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한다.

대개 (죽을 때) 노자가 160여세, 혹은 200여세였다고 하는데, 그가 도를 닦아서 생명(목숨)을 길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或曰：老萊子亦楚人也，著書十五篇，言道家之用，與孔子同時云。

蓋老子百有六十餘歲，或言二百餘歲，以其修道而養壽也。

장수절(張守節)은 그의 『사기정의(史記正義)』에서 '사마천은 노자가 혹은 노래자일 것이라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고 있다.'는 설명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노래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초나라는 도가 사상 지역이다. 이것으로 볼 때 노래자는 상당히 사상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노자와 흡사하다. 그러나 그의 저서가 15편인 것은 현존 노자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160살, 혹은 200 살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불노장생을 묘사한 것인데 이것은 진시황 이후의 관심사였다. 진시황 이전에는 이런 불노장생에 관계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한나라 초기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교의 양생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노래자는 노자와 흡사하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노자라고 볼 수는 없다.

5) 태사 담 - 노자

공자가 죽은 뒤 백이십구년에 주(周)나라의 태사(太史) 담(儋)이 진(秦)나라 헌공(獻公)을 뵈었다.

"처음에 진나라는 주나라와 합쳤다가 500년이 지나면 나뉘고, 나뉜 날로부터 70년이 지나면 패왕이 나올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담이 곧 노자라고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이가 없다.

노자는 숨은 군자였다.

自孔子死之後百二十九年，而史記周太史儋見秦獻公曰：

「始秦與周合，合五百歲而離，離七十歲而霸王者出焉。」

或曰儋即老子，或曰非也，世莫知其然否。老子，隱君子也。

태사담은 진 헌공 때 사람이다. 그의 시대적 배경은 명확하고 확실하다. 진 헌공 때라고 한 것은 전국 시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존인물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이'나 '노래자'는 실존여부가 명확하지가 않다. 많은 부분에서 의문점이 많다. 사마천도 이 셋 중 누가 진짜 노자인지 밝히지 못했다. 사마천 당시에도 노자라는 사람을 두고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우리는 더욱 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의 내용으로 볼 때 '이이'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고, 그 다음은 '노래자', 그리고 '태사 담'의 순으로 후대 인물이 된다. 이것을 참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

6) 노자는 누구인가?

노자라는 인물에 대하여는 청대(淸代)의 최술(崔述) 같은 고증학자(考證學者)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었다. (『崔東璧遺書』)

이미 한대(漢代) 초기에도 노자의 생애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었고, 『노자』의 저자도 '이담(李聃)'인지, '노래자(老萊子)'인지, '태사(太史) 담(儋)'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자가 한나라 이후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고, 기원전 3세기 초 이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노자 판본이 발견되어 이 설이 부정되는 등 여전히 생존여부를 비롯한 정확한 실체가 불분명하다.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근거나 추론에 의해 이처럼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마천도 『노자』라는 위대한 저서가 후세에 끼친 사상적인 영향 때문에 애매한대로 그러한 열전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대(漢代)의 사마천(司馬遷)도 『노자』의 확실한 작자를 알 수 없었던 만큼 지금 와서 어떠한 단정도 내릴 수는 없다.

최근에 와서는 노자의 생애와 함께 『노자』의 저자 및 저술연대를 두고까지 여러 학자들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대상이나 존재여부를 떠나 도가사상으로 대표되는 노자가 가지는 사상적 기반이나 상징성은 무척 큰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크다.

2.2, 『노자』라는 책

1) 사마천이 말하는 『노자』의 성립 과정

⑴ 노자라는 사람과 노자라는 책은 다르다. 가장 큰 증거는 출토된 판본이다. 곽점, 백서 노자가 그 증거이다. 『노자』는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론이 중첩되고 편집되어, 전국 시대 말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 같다. 곽점 노자나 백서 노자를

보면, 『노자』라는 책은 진화하고 있었다. 곽점 노자나 백서 노자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이며, 현존 왕필본 『노자』와는 아주 다르다. 백서 노자는 왕필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사(語辭)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德經-道經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면 실제로는 『德道經』이어야 한다. 이는 『한비자』 「해노-유노」에서도 보인다. 이렇게 보자면 『노자』라는 책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누적되고 가필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노자는 전체가 총 81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상권 하권으로 나뉜다. 1장에서 37장까지가 상권이고, 38장에서 81장까지가 하권이다.

상권은 道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하권은 德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 그리고 1장은 '道可道 非常道'로 시작하고, 38장은 '上德不德'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1장 첫 구절의 '道'와 38장의 첫 구절인 '德'을 따서 『道德經』이라 한다.

노자는 짧은 구절로 이루어진 시이다. 추상적이고 함축적이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많이 틀린다. 또 고유 명사가 나오지 않는 특징도 가진다.

> 노자는 도(道)와 덕(德)을 닦고 그는 학문을 스스로 숨겨 명성을 없애는데 힘썼다. 오랫동안 주나라에서 살다가 주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가) 관(關)에 이르자,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말했다. (관문지기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
> "선생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 하시니 (저에게) 억지로라도 책을 지어 주십시오"
>
> 그리하여 노자는 책 상하 편을 지어 '도'와 '덕'의 의미를 5000여 자로 말하고 떠나갔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여생을 끝냈는지 모른다.
>
> 老子修道德，其學以自隱無名為務。
>
> 居周久之，見周之衰，乃遂去。
>
> 至關，關令尹喜曰：「子將隱矣，彊為我著書。」
>
> 於是老子乃著書上下篇，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莫知其所終。
>
> 『老子·韓非 列傳』

노자가 이렇게 5000여자 적어준 그것이 오늘날의 도덕경(道德經)이다.

사실 노자가 그와 친분이 있어서 적어 준 것은 아니다. 노자가 은둔하기위해 관(關)을 지날 때 관문지기 윤희가 "선생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 하시니 (저에게) 억지로라도 책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도 윤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도' 와 '덕'의 의미를 5000여자로 말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다.

도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자이다. 은자는 이름부터 숨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이름이 남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은자는 책을 짓는다거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노자는 은자(隱者) 계열의 사람이다. 그런데 친분이 없는 사람의 부탁으로 책을 적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尹喜라는 이름도 좀 이상하다. 윤희가 도가 계열의 사람이라면 이름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關令 尹喜라는 것은 이름으로 보기 보다는 관직의 명칭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마천의 이 내용은

잘못 된 것 같다. 현대에 와서 죽간이나 백서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2) 기존 학자들의『노자』의심의 역사

여기서 하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노자(老子)라는 인물과 노자라는 책(도덕경(道德經))은 좀 다른 것 같다. 노자(老子)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사람일지 몰라도 노자라는 책은 전국시대 중기나 말기에 완성된 것 같다. 그리고 이 책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보충하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물론 도덕경(道德經))과 비슷한 이론이나 사상은 예전부터 있어 왔겠지만 이것이 완성된 것은 전국시대 중기나 말기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⑴ 송대(宋大)에 섭적(葉適, 1150~1223)이『습학기언(習學記言)』에서『사기』열전에 실려 있는 노자와『노자(道德經)』의 저자가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큰 문제로 남아 있다.

⑵ 청대(淸代)에 와서는 고증학(考證學)이 크게 발달하면서 그가 실존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학자 최술(崔述, 1740~1816)이다. 그는『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에서 말한다.

> "『노자』의 문장은 전국 시대(戰國時代) 제자(諸子)들의 것과 비슷하며,『논어』「춘추전(春秋傳)」의 문장과는 전혀 다르다. 공자는 옛날의 현인(賢人)과 당시의 경대부(卿大夫)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하여,『논어』만 보아도 그런 기록이 자세하다. 그런데 노자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실려 있지 않고, 맹자(孟子)도 양주(楊朱)와 묵자(墨子)는 비난하고 있는데 노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정말로 노자가 양주와 묵자 이전에 존재하였다면, 맹자가 어째서 그에 대한 말은 하지 않겠는가?"

그는 전국(戰國) 시대에 양주(楊朱) 학파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위하여『노자』라는 책을 지었다고 하였다.『사기』의 노자 전기도 양주학파의 이론에 근거하여 쓴 것이며, 노자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⑶ 같은 시대의 왕중(汪中, 1744~1794)도 그의『술학(述學)』「노자고이(老子考異)」에서,

> '노자는 초(楚)나라 사람이며 주(周) 왕실의 수장실(守藏室)의 사(史)를 지냈다'
> 老子者，楚·苦縣·厲鄉·曲仁里 人也，姓李氏，名耳，字聃，周守藏室之史也。

라고 했는데 대하여, 초나라 사람이 주나라 왕실의 벼슬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노자』란 책은 춘추 시대(春秋時代)의 노담(老聃)이 쓴 것이 아니라 전국시대(戰國時代) 주(周)나라 태사(太史) 담(儋)이 쓴 것이라고 주장 했다.

⑷ 현대에서는 풍우란(馮友蘭) . 전목(錢穆) 등이 노자를 의심하고 있다.

풍우란은 그의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 제8장에서 『노자』의 저자는 전국 시대의 이이(李珥)이며, 공자가 예를 물었던 노담(老聃)은 전설의 박대진인(博大眞人)이라 하였다. 사마천(司馬遷)은 이 부분을 잘못 알았던 것이다. 풍우란이 들고 있는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가 공자 이전에는 개인의 저술이 없었으니 『노자』는 『논어』보다 빠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자』의 문체는 문답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어』와 『맹자』보다 뒤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자』의 문장은 간명(簡明)한 경(經)체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노자』가 전국 시대의 작품이라고 했다. 풍우란은 그래도 노자가 도학(道學)의 창시자인 것은 인정한다.

전목은 『노자』는 『장자(莊子)』보다도 뒤늦게 나온 책이라 주장하고 있다.[4)]

3) 『노자』 책 - 출토 본

20세기의 문헌 출토는 『노자』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였다.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돈황' 문헌들 중에는 『노자』의 판본도 있다. 이러한 발견은 『노자』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 백서 『노자』 - 마왕퇴 출토본

『노자』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발견은 1974년에 한대 이전의 무덤인 마왕퇴에서 발견된 『노자』 갑, 을 본이다. 이 《노자》 사본은 비단에 쓰여져 있어 '帛書 老子'라고 불린다. (帛 - 비단 백) 漢나라의 황제 고조 유방(劉邦)과 문제 유항(劉恒)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쓰여진 시기가 漢나라 이전의 것이라 추정한다. 특이한 사항은 노자의 편집 순서인데, 백서 『노자』는 왕필본 『노자』와는 달리 상편과 하편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德-道로 순서로 되어 있었고 『덕도경(德道經)』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왕필본과는 다르게 몇몇 글자의 내용과 순서가 바뀌어 있어 원래 『도덕경』의 모습을 유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2) 죽간 『노자』 - 곽점 출토본

1993년 10월에 호북성 형문시 곽점에서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무덤(기원전 3세기 초 이전)에서 죽간에 쓰여진 『노자』의 사본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노자』의 '한대 이후 위작론'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 다만 이 죽간 본은 오늘날 전하는 『노자』의 일부만이 실려 있기 때문에 『노자』에서 발췌된 내용인지, 본래 형태가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쟁 중이다.

죽간 『노자』의 판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천하 만물은 有에서 나오고 有는 無에서 나온다'라는 왕필본과 백서의 구절이 죽간 본에는 '천하 만물은 有에서 나오고, 또 無에서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

4) 錢穆, 『노장통변(老莊通辯)』, 『국학개론(國學槪論)』 등.

또한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나오고, 지혜가 생겨 큰 거짓말이 생기고-'(大道廢 有仁義 慧智出 有大僞 18장)라는 구절이 원래는 '大道廢 安有仁義?' 라고 되어 있어 이는 "큰 도가 사라지니 어찌 인의가 있으리오?"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노자』의 특징 중 하나인 '반유가적 성격'이 후대에 와서 생긴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또한 최근 발굴된 『노자』 죽간본의 내용과 기존 판본들의 내용과 사상에는 큰 차이가 있어 『노자』가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3) 『노자』 - 왕필본은 운문체, 백서본은 산문체

왕필 『노자』는 함축적인 운문 형태의 시이다. 이런 운문 형태의 특성상 한 글자만 다르게 읽어도 뜻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른 사상서들과는 달리 시적인 운율이 중요시되어 왔다. 상당히 많은 구절에 압운이 되어 있고, 역사상의 고유 명사가 단 하나도 출현하지 않는 매우 특이한 성향을 보인다. 이 점은 《노자》의 저작연대나 작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백서 『노자』는 산문체이다. 이러한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노자』를 인용한 책과 『노자』 주석서

⑴ 『장자』 외편과 잡편에 인용되는 『노자』

『장자』의 외 잡편에 노자가 가끔 인용된다. 원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외 잡편이 쓰여질 때, 『노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완성되었으면 분명히 인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노자』 보다 『장자』가 앞선 책이다. 특히 내편은 확실히 앞섰다. 외·잡편은 『노자』 형성 초창기와 겹친다. 비슷한 사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잡편 사상 중 일부가 정제된 것이 『노자』 책에 들어간 것 같다. 『장자』 「거협(胠篋)」 편은 금고 털이 도둑과 전상(田常)과 같은 찬탈자를 비교한다. 전자는 금고만 훔치지만, 후자는 나라를 훔친다. 이를 통해서 『노자』 1장에 나오는 '名可名, 非常名'을 설명한다.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전상의 후예가 제나라의 왕이 된다. 찬탈자가 왕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진짜 왕다운 왕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 '왕다운 왕'은 '君可君'이고, 이는 '名可名'이다. 이렇게 해서, 유가적 덕목을 장자는 비판한다.

출토본인 곽점 『노자』나 백서 『노자』를 보면, 『노자』라는 책은 진화하고 있었다. 전자인 곽점 노자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이며, 현존 왕필본 『노자』와는 아주 다르다. 후자인 백서 노자는 왕필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조사(語助辭) 등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덕경-도경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한비자』 「해노-유노」 에서도 보인다.

왜 『장자』에 노자 구절이 인용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장자』 내편은 전국 시대 중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외·잡편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노자』가 성립하던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장자』의 외.잡편 사상이 『노자』 성립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⑵ 『한비자』 「해노(解老)」, 「유노(喩老)」 편 - 최초의 주석

『노자』 최초의 주석서인 『한비자』의 「해노(解老)」, 「유노(喩老)」 편은 어떻게 성립했는

가? '解老'는 "『노자』를 해석한다", '喩老'는 "『노자』를 깨우쳐 준다"는 뜻이다. 제목부터가 『노자』의 주석이라는 뜻이다.

노자는 도가 사상이다. 한비자는 법가 사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법가 책에 도가 경전의 주석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유노, 해노」는 한비자가 아닌 이사가 쓴 것 같다. 이사의 고향은 초나라 지역이다. (「이사 열전」) 노장의 사상은 초나라 지역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초나라 지역에 노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다. 이사가 노자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을 것이다. 「해노」 「유노」는 초나라 노자 학교의 작품이다. 이사는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제왕학 혹은 천하 통일 이론으로 만들고, 진시황에게 벼슬해서 승상이 되었다. 한비자의 법가 사상의 철학적 기반은 노자 사상이다.

사마천은 많은 부분을 잘못 안 것이다. 한비자와 이사는 순자의 제자라는 말도 틀린 것이다. 둘이 같이 배운 적도 없다. 한비자는 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초나라에서 배울 리도 없었고, 제나라에 가서 유가를 배웠을 리도 없다. 한나라는 법가가 유행하는 지역의 법(法), 세(勢), 술(術) 중에서 술(術)이 유행을 하였다.

⑶ 하상공과 왕필 - 후대의 권위 있는 주석서 둘

『노자』는 도교가 성립된 이후 『도덕경(道德經)』으로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도덕경』이란 이름은 상편의 "道可道, 非常道"의 "道"와 하편의 "上德不德"의 "德"을 합한 이름이다.

① 왕필의 주석

현전하는 『노자』에는 3개의 주요 판본이 있다. 하나는 한대에 성립된 하상공본(河上公本), 또 하나는 삼국 시대의 왕필이 주석한 왕필본(王弼本), 그리고 당대의 학자 부혁이 전한 부혁본(傅奕本)이 그것이다. 이 중 왕필본의 권위가 가장 인정되어 후대에 나온 『노자』는 대부분 왕필본에 근거하고 있다.

왕필은 노자의 주석을 17세에 달았다. 또한 주역의 주석도 달았는데, 그때 나이가 22세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진 시대 현학(玄學)이 발전할 수 있었다. 위진 현학의 3대 경서가 바로 《노자》, 《장자》, 《주역》임을 감안하면 왕필은 정말로 천재였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역병에 걸려 요절하였다. 왕필이 천재이기는 하나 노자 주석서를 쓸 때의 나이가 겨우 17세에 불과 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자라는 책에 담겨 있는 여러 사상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생각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다. 끊임없이 유연해지고, 기다릴 줄 알고, 강한 것들을 부정 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들을 반대 한다. 이것은 철저히 나이든 사람, 혹은 경험 많은 사람의 철학이다. 이런 것들은 천재적인 직관이나 학문적 재능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점이다. 이 점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왕필 주가 중요한 이유는 원문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후대에 통용되는 대부분의 『노자』 원문은 왕필 주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기 3판본의 원문은 다르다. 그중에서 왕필은 시로써 운문을 살린다. 시 구절 비슷하게 만든다. 각운도 맞춘다. 이 때문에 후대에 왕필본을 선택한 것 같다. 어조사 등을 많이 뺀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왕필의 주석의, 해석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왕필 주를 읽고 노자를 이해하기 보

다는, 반대로 노자를 읽고 왕필 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

노자는 왕필, 장자는 곽상 - 둘 다 유명한 주석가이다. 이 둘 다 똑같다. 곽상과 장자는 사상이 다르다. 자기 사상을 장자에 씌운다.

② 하상공의 주석

『하상공장구(河上公章句)』로 불리는 하상공의 주석은 언제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하상장인(河上丈人)이라는 설, 하상공(河上公)이라는 설, 또는 하상장인이 곧 하상공이라는 설, 심지어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저자에 의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다.

<성립시기>

『하상공장구』의 구체적 성립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이것은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 된다. 현재까지 이 책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서한설(西漢說)이다. 이 설은 갈현(葛玄)의 『도덕경 서(道德經序)』 및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에서 하상공을 서한 '문제' 시기의 인물로 기록한 것에서 유래된다. 『수서』「경적지(경적지)」나 육덕명의 『경전 석문 서록(經典釋文序錄)』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둘째, 동한설(東漢說)이다. 풍우란, 요종이, 왕명 등이 주장했다. 동한시대는 고문경학의 영향을 받아 장구체(章句體)가 유행했는데, 『하상공 장구』는 바로 이런 장구체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노자 상이주(想爾注)』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일부가 『하상공장구』에서 취해왔는데, 『노자 상이주』는 장릉(張陵) 또는 장로(張魯)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하상공 장구』의 성립 시기는 당연히 동한 시대 도교가 성립되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셋째, 위진설(魏晋說)이다. 일본학자 무내의웅(武內儀雄), 곡방(谷方) 등이 주장한다. 이들은 『하상공장구』와 『포박자』 사상이 서로 상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하상공장구』는 『포박자』 이후 갈홍의 일파에 의해 쓰였다고 본다.

이 세 가지 견해 중 현재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동한설이다.

<성립 배경>

한(漢) 나라는 초기에 도가와 황로학의 '무위정치술'을 채용함으로써 이른바 '문경지치(文景之治)'의 태평시대를 이루게 된다. 도가의 정치사상이 한나라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러나 '한무제'가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독존유술(獨尊儒術)'의 정책을 펴면서 도가 학파는 주류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 결과 한나라 초기의 도가 사상에서 유행하였던 '경세(經世)'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퇴조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렀다. 하나는, 도가의 자연질서 바탕위에서 어떻게 하면 유가의 인간 질서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철학사변이었다. 이것은 이후 원시도가에서 위진 현학으로 넘어가는 가교(架橋)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그것을 최대한 발현 하는가에 관심을 준 양생론의 방면이었다. 이것은 이후 도

가 사상의 종교화 즉 도교 발전에 중요한 바탕이 되어 진다. 이처럼 동한시대에는 전반적인 사회적 풍조가 양생에 관심이 많았고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하상공장구』인 것이다.

<주요 사상>

기화 우주론(氣化 宇宙論) - 漢나라 시대에는 기론적(氣論的) 사유가 널리 유행 하였다. 漢나라 사람들은 음양오행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기론적 세계관을 확립하였으며, 이것을 통해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러한 기화론적 세계관 혹은 기화 우주론이 『하상공장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천인상감론(天人相感論) - 『하상공 장구』의 세계관은 결국 기일원론의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모두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기일원론의 세계관은 전국 말부터 발생하여 한 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보편적 사고였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이른바 '천인상감론(千仞相感論)' 또는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이 나타나게 된다. 자연계와 인간계는 기를 매개체로 서로 감응하고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하상공 장구』에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치론적 관점이다. 국가 정치의 핵심은 군주인데, 군주의 품성과 행위에 따라 하늘도 상응하는 형태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양론 또는 양생론의 관점이다. 이것은 개인의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이다.

역사상 『노자』를 풀이 하거나 주석한 문헌으로는 『한비자』의 「유노(喩老)」「해노(解老)」편을 시작으로 수없이 많은 주석서 및 해석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일부 구절만 취해서 풀이하고 있는 단편적인 풀이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자』에 대한 주석서들 중 현재 가장 온전하면서 오래된 것은 당연히 『하상공장구』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상공장구』는 한나라 초에 유행하던 황로학(黃老學)적 사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생론養生論'의 입장에서 '노자'를 해석했다. 그리고 후한 이후의 도교 전통이나 한의학의 '황제내경黃帝內經', '동의보감東醫寶鑑'과 같은 문헌에서 수용 된다. 그리고 위진 이후 당대唐代까지 가장 널리 통용되었다. 그리고 가장 온전하면서 오래된 '노자' 판본이다. [5)]

(4) 한국의 『노자』 번역서

중국에서 나온 역대의 『노자』 주석서는 약 800여개 있다. 아마 단일 저서에 대한 주석서로는 가장 많은 것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자 주석서가 별로 없다. 가장 유명한 것은 율곡 이이가 쓴 『순언(醇言, 순수한 말)』이다. 이후 이이를 따르는 서인 노론 계열에서 『노자』의 주석서를 쓴 사람이 몇 명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진석, 김홍경, 오강남, 김용옥 - 이 정도가 가장 널리 알려진 노자 번역자이다.

---

5) 이석명, 『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 소명출판, 2005. 4~36쪽

최진석,『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1 - 도를 초월적 실체로 보는 철학적 번역이다. 백서나 죽간과 같은 출토본을 반영하려고 한다.

김홍경,『노자,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들녘, 2003. 6. 3.2만원 - 백서 노자의 순서대로 주석을 단다. 곽점 및 마왕퇴 출토본에 근거하면서, 여러 주석서를 두루 참조한다. 넷 중 가장 철학적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김용옥.『노자와 21세기』, 통나무 1999. 1. (전 2권) - 주관적 해석이 특징이다. 자신이 배운 철학과 일상 생활에서 경험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오강남『도덕경』현암사 1995. 12. - 캐나다에서 철학과 교수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등 종교적 관점에서 주석을 달았다. 또한 자연 찬양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2.3, 도가의 사상적 배경과 흐름

『노자』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중요한 마디는, ① 은자(隱者)들의 사상, ② 양주(楊朱)의 위아(爲我)주의 ③ 명가학파의 사상. 특히 등석(鄧析)의 양가(兩可) 이론 (이는 대립자의 공존 논리 비슷하다), 그리고 혜시의 역물 10사 등이다.

1) 1단계 - 은자들

도가의 선구자들은『논어』「미자」편 등에 나오는 은자들이다. 이를 최초로 밝힌 사람은 풍우란이다. (『중국 철학사』) 그리고 은자들에 대한 믿을만한 기록은『논어』가 전부이다.『논어』에는 공자가 철환천하(轍環天下)를 할 때 만난 다양한 은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공자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었다. 다른 점은 공자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반면 은자들은 희망을 접은 사람들이었다. 세상은 너무 더러워서 구제할 수 없다.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산 속에서 숨어 살면서(隱居), 스스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다.

⑴ 공자의 철환천하의 특징

공자가 노나라에서 추방되어서 떠돌아다님(轍環天下) ; 떠돌았던 방향은 북쪽인 노나라에서 남쪽인 초나라 쪽으로 간다. 위(衛) 진(陳) 채(蔡)로 갔다가 (초나라에 가서 섭공 자고를 만남.) 다시 위나라로 올라왔다. 서쪽 진(晉)나라로 가려다가 조간자가 두명독과 순화와 같은 현인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고. 황하를 건너지 않는다.

당시에 주나라의 봉건 제후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는 제(齊)와 진(晉)이었다. 이 둘은 가볼만한 1순위 국가였다. 그러나 공자는 끝내 이 두 나라를 가지 않았다. 왜 그런가?

공자는 제후를 지지하는 왕당파였다. 그러나 당시 주나라의 봉건 제후국들은 하극상이 풍조를 이룬다. 노나라는 3환씨가 권력을 독점하고 제후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공자는 이들과 싸우다 국외로 망명하게 된다.

제(齊)와 진(晉)은 공자 당시에 신하들이 찬탈을 했다. 제나라는 전상(田常)이, 그리고 진나라는 다섯 대부 집안이 권력을 잡았다. 따라서 공자는 이들 나라로 갈 수 없었다.

⑵ 상식적으로 볼 때, ① 공자가 갈 확률이 가장 큰 나라가 동쪽의 제나라이다. 후대에 유가의 아성이 제나라였다. 유가 학교가 노나라 제나라에 있었는데, 제나라의 것이 가장 컸다. ② 진(晉)나라가 공자가 방문할 두 번째 대상일 것이다. 이 둘 다를 포기하고 ③ 남쪽으로 초나라 방향으로 갔다. 초나라는 신하들의 찬탈이 없었다. 이민족 제후국이기 때문이다.

⑶ 공자 당시의 제후국의 분포 - 중앙에 은나라의 작은 제후국들이 몰려 있다. 1 그룹이다. 그 좌우에 동쪽의 제나라, 서쪽의 진(晋)나라가 있다. 이 두 나라는 주나라 제후국이면서, 강대국이다. 2 그룹이다. 그 바깥에 북쪽 연나라, 서쪽에 진(秦)나라, 남쪽에 초, 오, 월이 있었다. 3 그룹이다. 이들 3 그룹은 주나라의 봉건 제후국이 아니다. 변방의 이민족 국가였는데, 주나라 봉건 리그에 신규 참여한 나라들이다.

노나라는 1 그룹에 속한다. 이 중에 강대국으로 만들 나라로 공자가 선택한 것이 위(衛)나라이다. 위나라는 당시에 강대국에 대한 의지가 있던 나라였다. 그러나 공자는 위영공과 그 부인인 남자(南子)에 대한 실망으로 포기한다. (이 위나라 출신 사상가들이 많다. 상앙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공자는 위나라를 포기한 뒤에, 1 그룹에서 활동하기를 포기했다. 2 그룹은 공자가 처음부터 포기한다. 왜냐하면 제나라, 진(晉)나라는 하극상을 겪고, 여(呂)씨 왕실이 타도된다. 제나라는 여씨에서 전씨로 바뀐다. 진(晉)나라는 한, 위, 조로 쪼개져서 독립한다. 이것은 노나라에서 3환씨가 전횡하던 것과 똑같았다. 공자가 가면 당연히 공자를 사형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3 그룹에 관심을 둔다. 그중에서도 초나라에 관심을 더 둔다. 초나라는 하극상 대신 오자서 사건이 있었다. 오자서는 의리가 있는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가서 유가를 전파할 만 하다고 생각했다. 초나라가 남방에 오랑캐이므로 더 그렇다. 초나라가 공자에게서 유가를 배웠으면 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 초나라 유가의 대표적 인물이 굴원이다. 충신이다.

⑷ 공자가 만난 은자들은 대부분 초나라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초나라로 가면서 만난 사람들이다. 위나라 혹은 그 부근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니다. 중원의 1 그룹 제후국에는 은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 아마도 3 그룹 가운데 초나라 지역이었을 것이다.

⑸ 노자 사상은 초나라 지역의 지적인 성향을 반영한다.

초나라의 지식인들은 은자(隱者)라고 한다. 공자는 철환천하를 하면서 멀리 남방 오랑캐인 초나라까지 갔다. 그때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은자(隱者)라는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공자를 비웃거나, 만류하는 것이다. 이후 도가는 초나라 중심으로 번성한다.

초기 은자(隱者)들은 이 세상에서 숨어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산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차츰 저자거리에 사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아래의 괄호의 숫자는『논어』출처 표시)

① 장저(長沮) 걸닉(桀溺) 혹은 하조(荷蓧; 삼태기 맨) 어르신(丈人)은 세속을 버리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荷蕢 14-42, 荷蓧 18-7, 長沮 1-6)

② 초광접여(楚狂接輿)처럼 세속의 저자 거리에서 살되 제 정신으로는 살 수 없다 하여 '거짓 미친 척'(佯狂)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양의 헬레니즘 시대의 디오게네스같은 견유(犬儒) 학파와 비슷하다. (18-5)

③ 저자에서 살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벼슬하되, 하급직을 하며, 풍부한 정보

를 빠르게 접하는 자리, 예컨대 관문지기 등을 했다.(晨門, 儀封人, 노자를 맞은 尹喜) 장자가 했던 칠원리, 노자(李耳)가 했던 도서관장도 그런 벼슬이다. (晨門 14-41, 儀封人 3-24)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는 우선 이름부터 숨겨야 한다. 따라서 은자 혹은 도가학파 사람들은 유난히 자신의 이름이나 신상명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자에 대해서도 사마천의 추측에서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 하는 이유는 그런 숨김 때문이다.

은자들의 맥은 여러 갈래로 이어졌던 것 같다. 즉 은자들마다 성향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은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실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결벽주의자이며, 현실을 비관하는 패배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산속으로 떠난 자도 있었고, 사회 속에 있었던 자도 있었다. 몸소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낮은 벼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신의 목숨이나 삶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현실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중시한 사람도 있었다. 그 은자들의 여러 맥 가운데 하나를 이은 사람이 양주(楊朱)이다. 또한 그 여러 맥 중 하나가 『노자』를 만들어냈다. 장자도 은자들의 여러 맥 가운데 하나이지만, 노자를 곧 바로 계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장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노자보다는 오히려 공자이다. 이래서 공자 제자 안회의 후예가 『장자』의 뿌리가 되었다는 설도 나온다. 안회의 태도는 장자적인 것이 많다.

2) 2단계 - 양주(楊朱)

⑴ '楊朱'라는 이름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편의상 그렇게 부르기로 암묵적 합의가 있다. 그의 저술은 없다. 다만 『맹자』에, 천하의 의론은 묵적 아니면 양주로 돌아간다고 한다. 묵자와 맞먹고, 맹자가 탄식할 정도의 영향력 있던 사람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의 단편적인 구절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짐작해야 한다. 『맹자』『한비자』 등에 나오는 것은 '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 '輕物重生' '不以物累形' 등이다. "나를 위한다." "정강이털 한 오라기를 뽑아서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뽑지 않는다." "사물을 가볍게 보고 삶을 무겁게 본다." "사물에 의해서 내 몸을 얽매지 않는다." - 이를 요약해서 보통 위아주의 爲我主義라고 한다.

요컨대 양주는 "生(목숨), 形(몸), 我(나), 一毛(내 몸의 털 한오라기) > 物, 天下"라고 주장한다. "나의 생명, 몸"은 천하의 사물보다 소중하다. 천하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권력 재산 명예 등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 권력이라 한들 내 목숨보다 소중할 수 없다. "건강을 잃고 천하를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게다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권력을 얻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권력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은자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보고 냉소주의 결벽주의 비관주의에 빠진다. 양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과 나의 생명을 대립시킨다. 세상이란 내 정강이 털 한 오라기만도 못 하다는 것이다. 세상을 그렇게 초월달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나의, 내 정신의 자유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장자의 사상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

자유 = 세속으로부터 벗어남. 초월 달관함이다.

양주의 개인주의는 은자와 노자 장자를 잇는 연결 고리 가운데 하나이다.

⑵ 맹자의 양주 비판은 정말 부정확하다. 양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爲我'라는 말 하나만 듣고 비판한다. 이는 묵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겸애'라는 말 하나만 물고 늘어진다. 현존『묵자』와 비교하면, 맹자는 묵자 사상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겸애와 절장(節葬)만 물고 늘어진다.

문제는 맹자의 이런 식의 비판이 후대의 학자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점이다. 후대에 누구도 양주와 묵자 사상의 진면목을 알지 못 했다. 심지어 그 영민한 주희마저도 맹자가 파 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⑶ 개체와 전체의 대립으로 볼 때, 양주는 기본 전제에서 묵자와 선명하게 대립한다.

양주 = '나' 개체 > 사회 국가 전체 / 묵자 = 사회 전체 > '나' 개체

이런 두 요소는『장자』「양생주」첫머리에서 다음 둘로 서술된다.

권력 재산 → 도척(盜跖) ; 살쾡이 승냥이가 날고뛰다 덫과 함정에 걸림.

이념 도덕 → 백이.숙제 ;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고집불통의 인간들.

도척은 양주의 개인주의의 나쁜 극단일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탈이라는 방법에 의존한 사람이다. 반면 백이숙제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익을 포기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나 장자는 그들도 비판한다. 결국 이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자들이고, 유가(맹자)에서 받드는 인간들이다. 목숨을 버렸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장자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도척도 백이도 버린다. 그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자이다. 노자나 장자의 비판 의식은 지식 사회학 쪽으로 전개된다.

㉠ 모든 이념의 뒤에는 이기심 권력욕이 있다. (이념이란 결국 고등 사기꾼들의 사기 수단일 것이다.) 반대로 이념은 이기심의 표현이다. 인간의 이성은 이기심에 의해서 발전된다. 반대로 이성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회 그 시대에는 이기심과 투쟁이 빈약했다는 말이다.

㉡ 이념-역사 허무주의 : 노자 장자 사상에는 지울 수 없는 허무 의식이 짙고 낮게 깔려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붇다의 허무주의와 비견되는 허무가 있다.『장자』라는 책에서 이 허무 의식은 신랄한 비판과 냉소, 비꼼과 너스레, 빈정댐과 과장스런 이야기, 장광설로 점철되어 있다. 일장춘몽이라는 통속적 견해, 혹은 초월 달관이라는 비판적 지식인들의 냉소적 태도가 그것이다.

3) 3단계 - 명가 학파, 등석과 혜시

양주 단계에서 도가 사상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다. 나의 생명과 세상의 가치(부귀영화)의 선명한 대립, 그리고 세상을 초월달관하고,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생각에 논리적 근거를 대 준 것이 바로 명가학파의 사상이다.

명가학파는 도가 사상가들에게 세상을 분석하는 논리적 틀-도구를 제공한다. (나의 생

명에 대한 분석은 드문 편이다. 오히려 내 마음에 대한 분석은 맹자 순자와 같은 유가 학파가 왕성하다. 노자는 그런 점에서 물질적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길로 간다.)

⑴ 등석이 노자의 모순 공존 논리에 미친 영향,

등석은 일종의 변호사였다. 물에 빠져 죽은 부자의 시체를 건진 어부, 어부는 시체를 비싸게 팔려 하고, 부자의 아들은 싸게 사려 한다. 이때 등석이 제시한 것은 양가(兩可)의 논리이다. 어부의 말도 되고, 아들의 말도 된다는 것이다. 대립되는 두 이야기를 다 긍정하는 것이 양가(兩可)이다. 양쪽이 다 가(可)하다는 것이다.

노자의 특징적 사유가 대립자의 공존이다. 이는 등석 식의 발상과 상통한다. 등석의 사유가 직접적으로 노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명가의 그런 논리는 도가에 받아들여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⑵ 혜시의 사상이 장자에, 공손룡의 사상이 순자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손룡의 '離堅白' 사상은 순자로 하여금, 마음에서 징지(徵知)라는 종합자를 상정하게 만든다.) 혜시의 역물(歷物) 10사는 모순되는 명제 10개이다. 이것을 무한성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천하의 중앙은 연나라 북쪽, 월나라 남쪽이다"라는 명제 - 우주는 무한히 크다. 따라서 연북-월남이 중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무한성 논증, 이것을 장자 쪽이 이어받는다. 장자는 무한성 위에 현상 사물을 놓는다. 그러면 사물들은 다 덧없고 유한한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물(齊物)' - 모든 사물은 고르다. 다 같다.

덧없고 일시적인 현상 사물 - 여기에서 바로 현상을 초월 달관하는 정신적 자유(無何有之鄕)은 도출된다. 장자의 논리 '제물론'의 논리적 근거는 혜시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양주는 도가학파가 주장할 내용을 제시했다. 명가학파는 그 주장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만약 논증 방법이 없었다면, 『노자』나 『장자』의 책이 쓰여 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논증이 있을 때, 사상은 다양하게 표현되며,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주보다 더 노장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명가 사상이라 생각한다.

⑶ 도가의 최초의 뿌리는 은자(隱者) 집단이다. 이들의 극단적인 현실 비판과 이에 상응하는 철저한 결벽주의 및 패배주의, 현실 부정 등이 바로 노자 사상의 원류이다.

이어 양주(楊朱)에 가면 '全生保眞, 輕物重生'을 주장하여,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최고의 가치에 둔다. 사회 현실이라는 객관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명이라는 주관적인 것을 중시한다. 은자와 양주의 생각이 노자 사상의 원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 있었다면 사실 그 유명한 노자 사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사상적 원형에 논리를 붙이는 것이 필요했다. 은자나 양주가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 현실 부정의 치밀한 논리가 필요했다. 그 논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명가(名家)라 할 수 있다.

명가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은자-양주 집단의 사상을 재조직하고 발전시킨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자일 것이다. 명가의 초기 인물 가운데 하나가 정나라의 등석鄧析이다. 『여씨춘추』에 기록된 일화에 따르면 등석은 양가(兩可; 둘이 됨)를 주장한다. 이는 노자의 대립자의 공존 논리, 모순 공존 논리의 원형적 사고이다.

등석 당시 "시체 건진 어부 ↔ 부자 가족"의 소송이 있었다. 홍수가 난 황하를 건너던

부자가 익사했다. 이를 가난한 어부가 건졌다. 어부는 많은 돈을 받고 시체를 건네주려 했고, 부자 가족은 너무 비싸다고 거부했다. 상의하러 온 어부에게 등석은 “기다려라!” 했다. “그들이 어디 가서 그 시체를 살 것인가? 기다리면 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에 부자 가족이 상의하러 오자 등석은 똑같이 “기다려라!” 했다. 왜? “어부가 어디 가서 그 시체를 팔 것인가? 그러니 값이 떨어질 것이다.” 등석은 전형적인 변호사였다. 참-거짓, 선-악, 진리-정의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입장이 다 성립 가능하다(兩可)는 것이다.

등석은 재상이던 자산(子産)을 공격했다. 공격마다 자산이 막았다. 그때마다 등석은 방법을 바꾸어서 계속 했다. 대자보 → 삐라 → 광고문 등으로 바꾸어 공격했다. 등석은 세상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多可)고 본 것이다. 등석의 다가(多可) 이론은『장자』「제물론」의 상대주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등석은 노자와 장자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다 가능하다”는 양가(兩可) 이론, “모순은 공존한다”는 발상은 명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예컨대 指不至 - “손가락은 (어떤 것에도) 닿을 수 없다.” 손가락 끝이 물체의 접촉함을 보고 우리는 ‘닿았다’고 한다. 그러나 손가락 끝과 물체는 떨어진다. 닿았다면 틈이 없어야 하나, 틈이 있으므로 쉽게 떨어진다. 따라서 그 사이에는 틈이 있고, ‘닿았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상식을 부정하고 반대의 것을 명가는 주장했다. 상식은 언제나 모순을 부정하는 형식 논리학에 근거하고 있다. 명가는 상식을 깨뜨리는 논증에 이런 식의 논리와 논법을 자주 썼다. 그것은 사실상 가벼운 말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자는 이런 논법을 문명 사회 비판에 적용했다. 명가가 논리를 가지고 가볍게 굴었다면, 노자는 그 논리를 가지고 현실과 문명 사회 비판에 적용했다. 노자는 명가와 달리 장중하게 도사티를 내며(玄-妙) 말을 한다. 명가와 노장의 차이는 가벼움과 무거움일 것이다.

4) 노자 장자 이후의 발전 - 도법가, 황노학, 도교, 현학

(1)『한비자』의 노자 사상

도가학파는 노자 장자 이후에 몇 가지로 발전한다. 그 하나가 한비자이다. 한비자는 도가가 아닌 법가이다. 그러나 노자에 최초의 주석인 「해노解老」「유노喩老」를 쓴다. 그 전에『장자』에『노자』의 여러 구절들이 인용된다. 그러나 이는 주석이라 할 정도는 아니다.

한비자의 군주 이론의 철학적 기반은 노자에 있다. 윤리 도덕이나 이념이 아니라, 물질적 힘이 현실을 결정한다. 이런 노자의 물질주의적 형이상학이 한비자의 현실주의적 정치 이론의 기반이 된다.「解老」「喩老」뿐만 아니라『한비자』의 여러 편에서 노자의 설이 보인다.

한비자에 영향을 미친 것은 황노학인 것 같다. 노자는 무위(無爲)의 정치를 주장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인 자유 방임이다. 반면 한비자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한다. 통제를 하는 이유는 통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회, 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법이 없어도 유지되는 국가를 이루고자 함이다. 즉 무위(無爲)의 국가가 된다.

노자와 한비자는 방법은 다르나 무위(無爲)의 국가를 만들고자 한 점은 같다. (노장과 법가의 융합된 사조를 ‘도법가(道法家)’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⑵ 황로학(黃老學)

도가 계열에서는 한나라 초의 황노학, 위진 시대의 신흥 종교인 도교나, 철학인 현학(玄學; 新道家)이 나타난다.

황로학(黃老學)은 황제(黃帝)와 노자(老子)를 숭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로학은 제나라의 직하(稷下) 학궁(學宮)에서 발생된 것 같다. 『관자(管子)』는 직하의 학술을 모은 것이다. 거기의 「심술(心術)」 「백심(白心)」 등의 편이 황로학이라 하나, 명확하지 않다. '黃老'라는 이름이 붙은 가장 유명한 책은 『황제 내경』이라는 의학책이다. 1973년말 마왕퇴의 한나라 초기 묘의 발굴에서 비단에 적힌 많은 글들이 발견되었다. (백서 노자도 그 글들 중 하나이다.) 그 가운데 4편이, 오랜 연구 결과 『한서(漢書)』에 언급돼 있는 '황제사경(黃帝四經)'이라고 믿게 됐다. 우주는 도라는 법칙이 지배하며, 인간과 우주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양은 나오나 오행 개념은 없다. - 이런 특징은 『황제 내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황로학이 가장 유행한 것은 한나라 초기이다. 이때 황로학은 무위(無爲)의 정치, 즉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방임의 정치로 유명했다. 황로학은 항우-유방의 통일 전쟁으로 피폐한 현실 복구에 유용했고, 백성 및 정치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쓰다듬었다.

중국의 왕조는 농민 반란으로 망하고, 다시 새 왕조가 들어선다. 그 와중에 인구는 대략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다. 넓은 농토와 줄어든 인구, 새 왕조는 토지 분배를 다시 하고, 생산력이 증가된다. 한나라 초기에도 그러했다. 통일을 한 유방이 진나라의 그 복잡한 모든 법률을 다 폐지하고, 간략한 법 3조(略法 3章)를 반포한 것은 물론 진나라의 잔혹한 법치주의에 대한 반대이겠지만, 또한 전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황로학에 따라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둔 결과 인구와 경제력이 회복된다.

한 무제는 회복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정복 전쟁을 한다. 한 무제 말기에 한나라는 빛나는 것 같지만, 망할 징조가 보였다. 한 무제는 뭔가를 하고자 했으므로(有爲), 무위를 주장하는 황로학을 버리고, 동중서 등의 유교로 간다. 황로학의 유행은 그래서 끝난다.

이 무렵 한나라의 도가 사상을 모은 문헌이 『회남자(淮南子)』이다.

⑶ 도교(道敎) - 종교

후한말의 도교와 위 진의 현학도 후한 말기부터 시작된 전쟁 속에서 시달리는 백성과 패배한 지식인을 달래고 어루만져 준 것이다.

도교(道敎) - 한나라 초기까지도 『노자』 등의 책은 군주들이 보는 제왕 학 책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그런데 지식인이나 하층민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관심사로 이 책을 끌고 갔다. 그것이 후한 말기에 나타난 도교이다. 도교는 신선(神仙)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음양(陰陽) 오행(五行) 복서(卜筮) 무축(巫祝) 참위(讖緯) 등을 더하고, 거기에 도가(道家)의 철학을 도입하고, 다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신선은 불로장생하는 사람이다. 『장자』 등에 이에 관한 기사가 간혹 나온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술을 방사(方士)들에게 구하면서 신선술은 유명해졌다. 『노자』 책이 제왕의 책에

서 평민에게 내려온 것처럼, 불로장생술이 황제에게서 일반인에게 내려온 것에서 도교는 성립한다.

도교의 창시자는 오두미도(五斗米道) 또는 천사도(天師道)의 창시자인 후한(後漢: 25-220) 시대의 장도릉(張道陵: 34-156)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후한의 영제(靈帝) 때에 장각(張角)이 세운 '태평도'(太平道)는 초기 도교의 중요한 파벌을 형성했다. 이는『삼국지』초반에 나오는 황건적들이 신봉했던 것이다. 동진(317-420) 시대에 갈홍(283-c.343)은《포박자》를 지어 일파를 열었다.

"도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북위(北魏: 386-534)의 구겸지(寇謙之: 365-448)이다. 그는 민간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도교를 집대성하고, 또 국가의 공인을 받는 교단 도교를 창시하여, 국가 종교로서 불교와 대립했다. 양나라(502-557)의 도홍경(452-536)은 모산파를 대성하였다. 당나라 황제들은 도교의 성인인 노자가 같은 이(李) 씨라는 점에서 조상으로 모시면서 도교를 우대했다. 위진에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폐불(廢佛; 불교 탄압)의 배후에 도교가 있었다.

도교의 핵심은 신선술이었다. 위진 시대 도교는 불로장생약을 몸 밖에서 구하는 외단(外丹)으로 나갔다. 연금술로 납이나 수은같은 중금속에서 불로장생약을 만들려는 시도는 많은 중금속 중독사를 낳으면서 끝난다. 수십억 돈을 들여 불로장생하려다 오히려 빨리 죽은 것이다. 송대 이후 도교는 몸과 마음의 수양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 안에 불로장생의 태(胎)를 만드는 내단(內丹)으로 나간다. 단전 호흡 등이 그것이다. 명나라 이후 도교는 불교와 습합되며, 많은 점에서 서로 비슷해진다.

도교의 기본 관심은 신선술이지만, 후한 말에 처음 발생할 때, 황건적의 반란 같은 농민 반란과 연결된다. 도교는 중국의 자생적인 종교이다. 신선술을 중심으로 중국의 거의 모든 민간 신앙과 철학을 모아서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노장의 도가 철학을 중심으로 명가나 묵가 등도 포함한다. 유가적인 사상도 안에 있다. (도장경 안에는『공손룡자』나『묵자』등이 들어 있다. 유가 문헌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도교(道敎)와 도가(道家)는 구별해야 한다. 도가는 노자나 장자 등의 철학 이론이다. 반면 도교는 신선술을 중심으로 한 종교이며, 노장의 사상은 그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도교는 스스로 종교로 자처하여 늘 불교와 팽팽한 경쟁 관계를 유지했다.『태평경』은 도교의 중요 경전이다. 불교가 산스크리트어로 적힌 서적을 대량으로 번역하여 대장경을 만들자, 도교도 여러 경전이나 기타 책(주로 유가 법가 등을 제외한 모든 책)을 모아서 도장경(道藏經)을 만든다.

⑷ 현학(玄學) 혹은 신도가(新道家)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삼국지』에 나오는 전쟁이 시작된다.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쳐 수-당이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근 1000년간 중국은 분열되어 싸웠고, 이민족이 쳐들어와 왕국을 세우면서 혼란스러웠다.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도가 사상의 새로운 조류(新道家)인 현학(玄學; 오묘한 학문, 형이상학)이 나타난다. 조조의 위나라를 사마씨들이 집어삼키던 무렵 현학이 싹튼다.

현학은 노장 사상을 유(有) 무(無) 같은 추상적 형이상학적 개념 중심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킨다. 왕필(王弼)의 노자주, 곽상(郭象)의 장자주가 유명하다. (이 둘의 주석본이 각각

노자와 장자의 기본 텍스트로 확정된다.) 이들의 기여에 의해서 중국에서도 정교한 형이상학이 나타난다. 이는 불교의 도입에, 그리고 송대의 신유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현학을 생활화시켰던 사람들은 죽림칠현(竹林七賢; 대나무 숲의 7 현인)들이었다. (완적, 혜강, 산도, 향수, 유령, 왕융, 완함) 이들은 '맑은 이야기'(淸淡)를 했다. 『노자』『장자』에 나오는 유(有) 무(無) 같은 초월적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초월 달관했다. 기본적으로 전쟁하던 혼란한 시기에,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흐린, 더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무사들이 설치던 시대에 소외될 수밖에 없던 지식인들은 추상적 개념과 형이상학 속에서 위안을 발견한 것이다. 현실을 낮게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실은 히피에 가까웠다. 기이하면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들의 일화는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실려 있다. 그 일부가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에 실려 있으니 한번 보기 바란다.

현학의 시대에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온다. 초기에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할 때, 현학의 이론, 즉 노장의 개념을 동원한다. 도교를 기반으로 한 불교 이해, 이것을 격의(格義) 불교라 한다. 불교의 '공(空)'을 노장의 무(無) 혹은 허(虛)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도교가 하층민 중심의 운동이라면, 현학은 지식인들의 사조였다. 도교가 국가를 흔드는 운동이었다면, 현학은 몇몇 지식인들의 단지 취미일 수 있다. 현학이 있었기에 노장의 텍스트는 확정되었고, 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

3. 노자의 기본 사상

3.1, 道와 德

1) 도에 대한 설명 1

(1) '道'는 '길'을 뜻한다. 노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변화한다. 변화해 나가는데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다. 이를 '道', 즉 '길'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道'는 객관적인 필연성을 의미한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식하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다. 현상 세계에는 그 자체로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있다. 그것이 道이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길(道)'를 인식해야 한다. 道를 인식하면 내 마음에 어떤 능력이 생긴다. 세상의 객관적 필연성을 이해하면, 세상을 살면서 일을 처리하기가 쉬워진다.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인 德이다. 德은 ① 능력, 힘, ② 특징 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혹은 德=得(얻음)이다. 道를 인식할 때 내가 얻어서(得) 가지는 능력이다.

객관적 道를 인식하면 내 마음에 어떤 능력인 德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를 '道德經'이라 한다.

(2) 노자는 세상을 '도와 현상'이라는 두 가지 대립으로 본다. 1장에 나오는 무명(無名)-유명(有名), 무욕(無欲)-유욕(有欲)의 대립이 그것이다. 도는 무명이며 무욕이다. 이름이 없고, 욕망이 없다. 반면 현상 세계는 유명이며 유욕이다. 이름이 붙어 있고, 욕망의 대상이다. 도란 이름이 없는 것이다.(無名) 따라서 말로 도를 포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① 노자의 사상의 핵심은 道와 德이라 볼 수 있다.

道는 길이다. 德은 능력이고 힘이며, 또한 특징이다. 예컨대 '惡德'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특징"을 말한다.

道德은 길과 능력이다. 세상이 나아가는 '길'을 알면, 내가 '능력'을 갖게 된다.

② 세상이 나아가는 길은 객관적이다. 나의 희망 바람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道는 객관 필연성이라 할 수 있다. 혹은 객관적 필연적 추세이다. 법가와 병가의 勢 개념도 비슷한 발상에서 나온다.

③ 객관 필연성으로서 道는 '대립자의 공존'으로 말할 수 있다. A가 있으면, 반드시 ~A가 있게 된다. 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립자의 공존을 이해해야 한다.

④ 도는 현상 사물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길인 것이다.

현상 사물은 형체가 있고, 이름이 있다. 그래서 有 혹은 有名이라 한다.

도는 형체가 없이, 현상 사물의 필연적 진행 추세로 존재한다. 그래서 無 혹은 無名이라 한다.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루며 함께 존재한다.

⑤ 노자의 기본 사상은 바로 도덕, 대립자의 공존, 無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식 체계로 볼 때 노자 사상의 대체적인 내원을 갈조광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① 문화 귀족(몰락한 노예주, 구 귀족)들의 '세도(世道)' 붕괴의 반성을 반영한다.

② 고대 축사(祝史)의 '천도(天道)'의 변화에 대한 체험이다.

③ 초나라 사람들의 '인도(人道)'의 영원함에 대한 추구와 모색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자면,

① 노자 - 신진 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긴 옛 권력자(구귀족)의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이야기의 근원은 후외려 등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가들이다. 노자는 몰락한 노예주들의 불평불만 비판이며, 비명이다. 당시 문화 귀족들의 세도(世道)의 붕괴에 반성이다.

이런 이론의 문제점은 노예주, 문화 귀족이라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없다.

또한 '노예주'라고 말하려면 먼저 노예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사에서 노예가 생산의 주축이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 한다.

② 祝史는 제사 때 축원하는 사람이다. 제사의 현장 지휘자이다. '巫祝'이라고도 한다. 축사나 무축은 무엇과 접하는가? 신과 접한다.(접신). 신은 하느님, 혹은 조상귀신이다.

후대에 가면 축사가 신이 아니라 '天道'에 접한다는 가설이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노자』에는 도를 접하고 인식하는 것을 '夷·希·微'(희미하고 희박함), 혹은 '황홀恍惚'이라 한다. 이는 축사(祝史)가 신을 접했을 때 가지는 인식적 특징이다. 일본의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지의 본원에 관해 노자는 우주의 내원으로서 '도(道)'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도'는 '어둡고 또 어두운(玄之又玄)' '온갖 묘함의 문 (衆妙之門)'(1장)이자, '연연히 이어져 있는 듯 없는 듯하며(綿綿若存)' 영원한 '현빈지문(玄牝之門)'(6장)이다. 그것은 '깊고(淵兮)', '담담한(湛兮)'(4장) 그윽하고 깊은 상태로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잡으려 해도 얻을 수 없는(博之不得)' 이희미(夷稀微)한 경계이자(14장), '형체가 없는 형체이자 물체가 없는 형상(無狀之狀, 無物之象)'의 황홀한 경계이다(14장)

③ 초나라 사람들이 인도(人道)의 영원함 추구 ; 노자 사상은 초나라와 연관된다.「노자한비 열전」에 노자를 초나라 사람이라 했다. 또한 곽점과 마왕퇴에서『노자』가 출토되었는데. 이 두 곳은 초나라 지역이었다. 여러 부분에서 도가 사상이 초나라와 연결되는 것은 증명된다. 초나라 지역의 특유 사상이 도가일 것이다.

노자는 '천도'를 궁극적인 근거로 삼아 '세도(世途)'와 '인도(人道)'의 문제로 나아갔다. 그는 당시 사회질서의 붕괴에 절망감을 느끼고, 소박하고 무위한 '천도'를 통해 세도(世道)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가했다. 이는 어쩌면 축사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은주(殷周) 이래로 천지-사회-인류를 일체화했던 사고 방식을 따른 것인지도 모른다.

> "하늘의 도는 남음이 있음을 덜어서, 부족한 곳에 보충한다.
>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데에서 덜어서, 남는 곳에 받들어 준다.
> 天之道, 損有余 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 以奉有余.『노자』77장

천도는 '다투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결과를 추구하지 않는데'(73장),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먹고"(食稅之多), "작위적인 일을 행하며" "풍요롭게 사는 것만 추구한다"고 비난하였다.(75장) 이외에도 천도는 응당 "항상 인위적인 일을 행하지 않아도 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성인이라면 마땅히 "무위(無爲),

무사(無事), 무미(無味)해야 하며"(63장), 그가 진정으로 "덜어내고 덜어내어 무위의 경지에 이르면"(損之又損, 以至於無爲, 48장) "욕심 부리지 않고 고요하면 천하가 장차 절로 바르게 된다"(不欲以靜, 天下將自正, 37장)고 주장하였다.

2) 도에 대한 설명 2[6)]

⑴ 흔히 사람들은 형이하자, 즉 현실 세계만을 생각한다. 사람들은 현실 사물에 이름(名)을 붙인다. 그러나 그 현상 사물이 우리가 붙인 '이름'이라는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명가(名家)의 철학자들이 '名' 자체에 대한 생각을 했다. 이것은 큰 발전이다. '名'에 대한 생각은 사고에 대한 생각이다. 따라서 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사고이다.

노자는 도라는 본체와 현상 사물을 구분한다. 현상 사물은 다 이름이 붙어 있다. 반면 도는 이름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노자는 현상 사물을 有名이라 하고, 도를 無名이라 한다. 『노자』는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요,
>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 無名은 천지의 시작이요, 有名은 만물의 어미이다.
>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 『노자』 1장

> 道는 항상 無名이며 통나무(樸)이다. …
> (통나무를) 마름질하자 비로소 이름이 있게 된다.
> 道常無名, 樸. … 始制有名 『노자』 32장

> 道는 숨어서 이름이 없다. 道隱無名 『노자』 41장

도가 사상의 체계에서는 有와 無가 구별되고 有名과 無名이 구별된다. 이 두 구별은 실제로는 하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有와 無는 有名과 無名의 줄인 말이기 때문이다. 천지와 만물은 有名이다. 따라서 天은 '天'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地는 '地'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매 종류의 사물마다 그 종류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진다. 천지와 만물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라는 이름도 있게 된다.

道는 無名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道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억지로 '道'라고 부른다. 이는 사실은 현상 사물에 붙인 이름과는 다르다. 어떤 것을 '책상'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속성들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道를 '道'라고 말할 때에는 그와 같은 속성들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상 사물은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반면, 도는

6) 이하는 다음을 참조했다. 우노 세이이찌, 김진욱 옮김, 『중국의 사상』, 열음사 p237~246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래서 노자는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21장에서 노자는 말한다. “(도는) 예부터 오늘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니, 그로써 뭇 아버지들을 검열한다.”(自古及今 其名不去, 以閱衆甫.) 도는 길이다. 객관적인 필연성이다. 뭇 아버지들이 일을 할 때, 도는 그들이 따라야 하는 길이다.

우노 세이이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道는 모든 사물이 발생하는 근원이다. 언제나 사물들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道는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道라는 이름도 역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발생의 근원이요, 따라서 만물의 근원을 보살핀다.”

이는 도 개념에 대한 오해이다. 도는 만물이 유출해서 나오는 근원이라는 것인데, 마치 현상과 따로 동떨어진 근원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노자는 언제나 현상 사물 속에 도가 존재한다고 했다. 현상과 따로 있어서 현상을 유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노자는 유출설로 오해하게 만드는 말도 한다. 예컨대 곡신과 현빈(玄牝)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42장에서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한다. 이 역시 유출설로 오해하게 만든다.

⑵ “無名은 天地의 시작이다”(無名 天地之始『노자』1장). 이 명제는 형식적 명제일 뿐 실증적 명제가 아니다. 즉 그것은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기별도 주지 못하고 있다. 도가의 철학자들은 사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물을 있게 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있게 하는 것’을 그들은 道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이름이 아니다. 道라는 개념도 역시 형식적 개념이지 실증적 개념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道란 만물의 근원이므로 반드시 다른 사물들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단순한 사물은 아니다. 만약 道가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동시에 ‘모든’ 사물들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사물들은 이름을 가지지만 道는 그 자체가 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름 없는 통나무(樸)’이다.

발생한 사물은 존재요, 그리고 존재들은 많이 있다. 존재의 발생은 ‘무엇보다 먼저’ 有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무엇보다 먼저’ 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시간에 있어서의 ‘먼저’가 아니라 논리적 의미의 ‘먼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종류의 동물이 있고, 다음에 인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 이 ‘먼저’는 시간적인 ‘먼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이 있기 전에 먼저 동물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이 ‘먼저’는 논리적 의미의 먼저이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존재는 有의 있음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이런 의미이다. “천하의 만물은 有에서 나오고 有는 無에서 나온다.”(40장)

노자의 이 말은 無만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 뒤에 有가 無에서 발생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물들의 존재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들이 있기 전에 먼저 有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잇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道는 無名이요 無이며, 만물이 있게 된 근원이다. 따라서 有가 있기 전에 無가 있어야 하고 이것에서 有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존재론에 속하는 것이지 우주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현실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시간에 있어서나 현실에 있어서는 有라는 것은 있지 않고 존재(사물)들만이 있기 때문이다.

⑶ 노자의 주요 사상은 ‘太一’로서, 그에게는 有와 無 및 不變者에 관한 사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 '太一'은 道이다. 道에서 一이 나오므로(42장) 道 자체가 '太一'이다. '不變者'는 '常'의 번역어인데(32장) 이것은 영원한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사물들은 가변적이고 변화하고 있지만 이 사물의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은 그 자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자』에 있어서 '常'이란 언제나 그렇게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로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법칙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天道는 편애하지 않는다. 언제나 善人의 편에 선다." (天道無親, 常與善人. 79장)

⑷ 사물들의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물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각기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夫物藝藝, 各復歸根, 16장)이다. 이 말은 노자가 실제로 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 사상이 노자에게서 유래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노자가 실제로 한 말은 '반복하는 것이 道의 운동이다.'(反者道之動)와 그리고 '가고 또 가면 반전한다.'(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25장)이다. 이 사상은 어떤 것이 발전하여 그 극단에 이르면 그것은 반드시 그 반대자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다. 따라서 "화(禍)여! 복(福)이 의존하도다. 복(福)이여! 화(禍)가 숨어 있도다." "적으면 오히려 많이 얻을 수 있고, 많으면 오히려 망설이게 된다." "강풍은 아침 내내 불 수 없고, 폭우도 하루 종일 내릴 수는 없다." "천하에서 가장 유약한 것이 천하에서 가장 견고한 것을 능가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은 줄어드는 것 같으면서도 불어나고 불어나는 것 같으면서 줄어든다." 이 역설적인 이론들은 자연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면 이미 역설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법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역설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류의 사람들이 道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만약 웃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道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물이 그 극한에 이르면 반전한다고 하는데, 그 '極'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의 발전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극한이 되어버리는 절대적 한계가 있는 것인가? 『노자』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런 해답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더라면 노자는 절대적 한계란 어떤 경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 활동에 관해서 볼 때 한 인간이 진보의 한계는 그리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⑸ "부유하고 귀한데다가 교만하면, 스스로 그 재앙을 남기게 된다." (富貴而驕, 自遺其咎. 9장) 교만은 그 진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주어진 활동에 대한 진보의 한계는 또한 객관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사람이 과식을 하면 오히려 해롭다. 과식을 하면 흔히 몸에 유익한 음식물도 해로울 수 있다.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이 적정량이란 그 연령, 건강상태, 그리고 먹는 음시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사물들의 변화를 재배하는 법칙들이다. 노자는 이것을 '不變者(常)'이라고 부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常道를 아는 것을 밝은 지혜라 한다."(知常曰明, 55장)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常道를 아는 자는 관용하고 관용하면 공평해지며, 공평해지면 두루 통한다. 두루 통하면 天이요 天이면 道이다. 道이면 영원히 위태롭지 않다."

3) 인간 행위와 도

⑴ 無爲와 自然

‘無爲’는 “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도(道)의 사상에서 연역되어 나온다. 道는 ‘길’이라는 뜻이다. 세상은 변해 나간다. 변화해 나가는 데에는 필연적인 추세, 즉 길(道)이 있다. 이 객관적인 필연성을 따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도에 따라서, 객관적 필연성에 순응해서 일을 이루는 것을 노자는 ‘무위(無爲)’라고 한다. 내가 주관적으로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 잘 안 되는 수가 없다. 그러나 객관적 필연성인 도를 따르면,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별로 하는 것이 없어도(無爲) 일이 이루어진다.

‘自然’은 스스로 그러함이다. 道라는 객관 필연성은 ‘스스로 그러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때 ‘自然’은 요즘의 ‘자연(nature)’ 과는 다른 뜻이다. 또한 ‘스스로 그러함’으로서 ‘自然’은 ‘자유’라는 뜻과 연결된다. 내가 내 ‘스스로 그러하게’ 행위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자유로우려면 객관 필연성인 ‘도’를 따라야 한다.

⑵ 습명(襲明) - 밝은 지혜를 감추기

노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常道를 모르면 허튼 짓을 하여 흉악한 일을 초래한 것이 된다.” (不知常 妄作 凶)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에 따라 행위 해야 한다. 노자는 이것을 ‘밝은 지혜를 간직하는 것’, 즉 襲明이라 한다.

襲 ① 엄습 습격하다. ② 답습하다. 계승하다. ③ 익히다(習) ④ 옷으로 가리다.

明 - 밝게 앎. 인식 능력이다. 襲은 ④에 가까운 뜻이다. 襲明은 “밝은 지혜를 감춤”이다. 구체적으로 襲明은 반대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지혜를 가리고 숨기는 것이다. 바른 자리에서 출발함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고 드러냄이다. 반대에서 출발함은 지혜를 감춤이다. 감추려고 반대에서 출발한다. 습명은 和光同塵, 玄同과 같은 뜻이다. ‘和光同塵’은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같아짐”이다. ‘玄同’은 “어둡게 같아짐”이다.

襲明을 위한 일반 법칙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면 그 반대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어떤 것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 속에 그와 반대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강하게 되고자 하면 약자의 감정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자유를 보존하고자 하면 그 속에 통제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인은 자신을 남보다 뒤로 돌림으로써 언제나 앞서며, 그 몸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보존한다.”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7장))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스로 나타나지 않은 자가 도리어 뚜렷이 나타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은 자가 도리어 빛나며, 돋보이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은 자가 도리어 공이 나타나며,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자가 도리어 오래 간다. 다투지 않은 자는 그러기 때문에 천하의 누구도 그와 대적할 자가 없다.” (不自見 故明, 不自是 故彰, 不自伐 故有功, 不自矜 故長. 不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22장)

⑶ 근본으로 되돌아 옴(反本)과 대립자 공존의 처세술

『노자』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가장 완전한 것은 오히려 결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용도에는 흠이 없다. 가장 알찬 것은 오히려 빈 것 같고, 매우 정교한 것은 오히려 졸렬한 것 같고, 웅변이 오히려 말더듬이 같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굽어야 온전할 수 있고, 굽혀야 곧게 펼 수 있으며 움푹 패어져야 채울 수 있고 낡아야 새로워질 수 있다. 적으면 오히려 많이 얻을 수 있고, 많으면 오히려 망설이게 된다.”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을 무사하게 살며,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위해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도가의 본래의 문제에 대한 노자의 해결책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연약하고 겸허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만족 한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보존하고 강해질 수 있는 길이란 것이다. 겸허한 태도는 교만과 상반된 태도이며, 그래서 교만이 한 인간의 진보가 그 극한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면, 겸손은 그와 반대로 한계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만족하는 것은 사람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막고, 따라서 막바지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안 보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聖人은 지나친 것을 멀리하고 사치를 물리치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이 모든 이론들은 ‘되돌아 옴(反)이 道의 운동이다.’ 라는 일반이론에서 연역될 수 있다. ‘無爲’라는 잘 알려진 이론도 역시 이 일반이론에서 연역될 수 있다. 無爲라면 ‘활동이 없는 것’ 또는 ‘非活動’으로 해석되지만, 그러나 이 말은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비교적 적은 활동 또는 덜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人爲性이나 恣意性이 없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활동도 다른 것들과 같다. 활동이 지나치면 유익하기보다 유해해진다. 더 나가서 무엇을 하는 목적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지나치게 이루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만 못한 것일 수도 있다.

3.2, 도와 현상

노자는 세상을 ‘도와 현상’이라는 두 가지 것으로 본다. 무명(無名)-유명(有名), 무욕(無欲)-유욕(有欲)의 대립이 그것이다. 도는 무명이며 무욕이다. 이름이 없고, 욕망이 없다. 반면 현상 세계는 유명이며 유욕이다. 이름이 붙어 있고, 욕망의 대상이다. (1장) 도란 이름이 없는 것이다.(無名) 따라서 말로 도를 포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1) 도(道; 본체)와 현상의 구조

16장에서 노자는 현상 세계를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마음의) 텅 빔을 이루기를 끝까지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한다.
만물이 아울러 일어나니, 나는 그들이 되돌아감을 본다.

무릇 사물들이 무성히 자라나도, 각각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을 일러 '고요함'이라 한다.
이를 일러서 '명령에 보고함'이라 한다.
명령에 보고함을 일러 '일정함'이라 한다.
일정함을 아는 것을 일러 '밝게 앎'이라 한다.
일정함을 알지 못 하고, 망령이 되게 행위 하면 '흉(凶)'하다.

致虛極, 守靜篤. 萬物並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현상 세계의 모든 것들은 제각기 일어나 수풀처럼 무성하지만, 결국은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그 뿌리는 본체라 할 수 있다. 현상과 본체, 이는『노자』의 기본적인 발상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대립자의 공존 논리이다.)『노자』에게서 본체는 현상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본체인 虛-無는 현상 사물의 한 과정이며, 현상과 서로 연결 되어 있다.

무성하게 자라다가 다시 虛와 無로 돌아가는 순환 과정에서,『노자』는 '명령(命)과 영원함(常)'을 보라고 한다. 모든 것은 제각기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命)을 보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뼈대, 줄기이며 참모습(眞相)이다.

필연적인 과정이란 것은 남만성이 말하듯이 사계절의 순환 속에 사물들이 생겨나고 번성하다 사라지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과정만은 아니다. 그것은 기본에 불과하다.『노자』가 생각하는 필연적 과정(命)은 법가나 병가(兵家)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정책, 전술 전략과 연관된 세세한 것이 더 중요하다

2) 도와 현상의 2분법

노자는 1장에서 도와 현상 세계, 이름 없음과 있음을 구별한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음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음은 만물의 어미이다. 그러므로
항상 욕망이 없음으로써 그 묘함을 보고
항상 욕망이 있음으로써 그 밝음을 본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徼.

노자는 여기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식인 '도道-현상'의 2분법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無-有, 無名-有名, 無欲-有欲' 등이 그것이다.

無 - 도의 세계 - 이름이 없음(無名) - 욕망의 대상이 아님(無欲) - 자연 상태.
有 - 현상 세계 - 이름이 있음(有名) - 욕망의 대상임 (有欲) - 문명사회

도의 세계에 모순 공존의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논리는 현상 세계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이름이 있는 곳에 적용되며, 도는 이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道의 세계는 무모순의 세계이다. 어떤 것도 그 안에서는 A와 B, 혹은 A와 ~A로 나뉘지 않는다. 즉 자신과 남이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 세계이다. (이를 '혼混' '일一'이라 한다.) 개체가 구별이 되어야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이다. - 그 세계는 모순 공존의 악순환이 없으며, 이상적인 것이다. 말이 없는 도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을 노자는 주장한다.

3) 도가 현상을 낳음

도와 현상(만물)의 관계를 노자는 '낳음'(生)으로 말한다. 이는 유출이 아니라 구조를 말한 것이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노자』42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낳고(生)라는 말이다. '낳는다.'고 하지만, 도는 자궁이 없다. 따라서 '낳는다'는 말은 '의인법적' 표현이다. '낳음'은 신화적 사유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도가 만물을 낳음, 유출함이라 보면 안 된다. 그냥 도와 현상의 구조를 말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태초의 상태로서, 모든 것이 미구분인 것이다. 둘은 그것이 둘로 나뉜 것이다. 둘을 보통 음-양이라고 본다. 강-약, 堅-柔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셋은 최초의 미구분과 음양을 합하면 셋이다. 미구분의 상태에서 음과 양의 대립이 성립한다.

음과 양은 서로 순환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노자는 40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되돌아옴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은 도의 작용(쓰임)이다.
천하의 만물들은 있음으로 부터 태어나며,
있음은 없음으로 부터 태어난다."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노자』40장

도의 움직임은 되돌아옴이고, 도의 작용은 약함이다. 되돌아감은 모든 생산력의 근원, 어두운 것, 계곡과 여성, 모든 사물들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의 상태이다.

『노자』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일련의 반대되는 것들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의 반전이다. 생존 전략에 있어 약자를 지도할 때, 『노자』는 한결같이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것, 양(陽)보다는 음(陰)을 따르라고 충고한다.

이 생각은 강하고(强), 딱딱하고(堅), 위를 차지하고(上), 앞에 있고(前), 또 존재하는(有) 것은 무엇이든 약(弱)하고, 부드럽고(柔), 밑을 차지하고(下), 뒤로 밀리고(後), 그리고 비존재(無)가 되었으며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또 그렇게 변하는 어떤 주기를 드러낸다. 수동적인 구성 요소는 능동적인 것이 등장하는 토대인 것이다.

有와 無는 有名과 無名을 줄인 것이다.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려면, 그 대상과 다른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 즉 A와 ~A가 구별되는 것이다. 42장에서 "하나가 둘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구분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둘이 나뉘어져야 이름을 붙일 수 있다.

40장에서 노자는 도의 작용을 부드러움이라 한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동적인 덕성들은 상호 연결된 은유들을 통해 얽힌다. 예를 들자면 6장의 계곡은 여성성을 상징한다. 골짜기는 비어 있고 아래에 처한다. 여성성은 부드럽고 약함이다. 그리고 물은 부드럽고 약하고 아래에 처하는 것을 장점을 갖는다. 물은 계곡과 여성성을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 가장 잘 함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를 잘 하지만, 다투지는 않는다.
> 뭇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가깝다.
>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노자』7장

>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 딱딱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 그 까닭은 아무 것도 이것을 대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을
> 모르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으나, 아무도 그것을 행할 줄 모른다.
> 天下莫柔弱於水, 而功堅强者, 莫之能勝, 其無以易之.
> 弱之勝强,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노자』78장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돌보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따라서 돌의 위에 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틈바구니도 파고 드는데 있어 물을 능가 하는 것은 없는데, '무'는 '유'가 비워놓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심지어 작은 틈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 속을 치달린다.
> '있지 아니함'은 '틈이 없음'에 들어 간다.

나는 그로써 '하지 않음'의 이로움을 안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 하지 않음의 이로움, 이것에 다다른 자가 천하에 거의 없다.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無有入無間. 吾是以知無爲之有益.

不言之敎,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노자』43장

노자의 말 가운데 상식과 반대되는 가장 놀라운 것은 '무'를 '유' 위에 놓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강해지고 우월해지려 한다. 따라서 무(無)보다 유(有)를 선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의 자연적인 추세를 거스른다.

78장에서 부드럽고 약함이 단단하고 강함을 이기는 사례로 물을 든다. 물은 바위를 깎는다. 폭포가 그것이다. 43장에서 부드러움이 단단함 속을 치달린다고 한 것은 물이 바위 속을 투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다 명가가 이미 증명한 것들이다. 명가가 자연학으로 주장한 것을 노자는 처세술로 바꾼다.

세상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겁다. 깨뜨리거나 돌파하기 어렵다. 그런데 노자는 물처럼 부드럽고 약하고 유연하면, 바위를 깨뜨리거나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세상살이도 그렇게 하면 된다.

4) 발생론과 구조론

도와 현상 세계라는 발상은 2원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뒤에는 도가 있다. 도는 현상을 움직이는 배후의 실체이다. 이런 식의 발상은 마치 '형이하(形而下 physics)'와 '형이상(形而上; metaphysics)'의 구별처럼 보인다. 『주역』「계사」에 나오는 이 구별은 아마 확실히 노자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2원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양자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도에서 현상이 유출되어 흘러나온다는 발생론, 혹은 도와 현상이 2층처럼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구조론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노자에서 시작되어, 신유학의 「태극도설」 등에도 있었다.

발생론이란 시간적으로 볼 때 도에서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발생, 유출했다는 것이다. 도와 현상은 시간적으로 선후이다. 반면 구조론 이란 도와 현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자의 사상은 표현으로만 보면 발생론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다. 1장에서는 '無名에서 有名이 나온다.'고 하고, 42장에서는 '도→1→2→3의 발생'을 말한다. 즉 '無名→有名', '도→1→2→3'은 전형적으로 발생론적인 설명이다. 그것은 '道에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자의 사상을 꼼꼼히 살펴보면, 도→현상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발생론, 유출론이 아닌 '구조론'이다. 즉 시간상의 설명이 아닌 논리상의 설명이다. (모순 공존의 논리. 도와 현상의 공존도 일종의 모순인가?) 시간적 선후 관계도 아니고, 생산 관계도 아니다.

도와 현상은 늘 동시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중요한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 측

면에서 볼 수도 있고, 현상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두 측면 다에서 볼 수도 있다. 일반인은 다만 현상의 측면만 본다.

따라서 노자의 철학이 구조론 이라면, 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할 수 없다. (도는 신처럼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진다. 그런 생겨남, 그 생명력, 그 창조는 道가 아닌 곡신(谷神; 6장)이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 창조하는 것과는 다르다.

3.3, 도와 언어 표현 방법

1) 부정문과 부정 화법

본체는 현상과 다르다. 현상은 이름 붙일 수 있다. 본체는 이름 붙일 수 없다.

⑴ 부정 화법

노자의 말하는 방법(話法)은 부정사를 주로 쓰는 부정하는 화법이다. 왜 그러한가?

노자는 道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1장에서 이미 선포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도에 대해서 노자는 1장에서 81장까지 5천여 자에 달하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모두 틀렸는가? 말할 수 없는 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부정 화법이다. 뭐든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도는 큰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인가?" "아니다." "그럼 중간의 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럼 도는 뭔가" "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이런 대화가 바로 부정 화법이다. '아니다.' 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튼 도에 대해서 뭔가 말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묻든지 간에 그렇게 '아니다'라는 부정 화법을 쓰면 된다. 도에는 냄새도, 형체도, 소리도, 색깔도, 등등 뭐든지 없다. '아니다' '없다'는 말을 계속하다 보니 '도(道)'는 바로 '아님' '없음'(無)이라는 것, 즉 道는 無라고 한다. 『노자』라는 책은 '아니다, 없다'는 부정어가 매우 많다.

⑵ 『논어』에는 긍정문과 명령문이 주종을 이룬다. 세상에 대한 규정, 군자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규정하는 것은 긍정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규정에 따라 행위하라는 명령문이 있다. 긍정문과 명령문은 도덕률을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들이다. 반면

『노자』에는 부정문과 감탄문이 많다. 부정문은 앞에서 설명했다. 긍정적으로 기술할 특징-속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노자는 감탄을 한다. '玄-妙 恍-惚'이 그런 말이다. 도는 오직 감탄의 대상일 뿐이다.

논어는 긍정-명령이므로 쉬울 듯 하나 오히려 어렵다. 평범함-쉬움 속에 깃든 지혜는 사실 실천하기 어렵다. 노자는 어려울 듯 하나 그 논리를 알면 쉽다. 그 큰 틀의 도식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 처세술도 실제로는 유가의 수양론보다 쉬운 것 같다.

⑶ 도는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많은 철학이 그 비슷한 것을 주장한다. 인도의 우파니

샤드에서는 브라흐만(아트만)의 본질을 neti-neti (neither A nor B)라 한다. ‘ -도 아니고 -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절대자 브라흐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할 수 없다.

서양 중세 기독교의 ‘부정 신학’이 있다. 무한한 신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런 말도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신은 말할 수 없다. 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만 가능하다. 긍정적 표현은 유한하나, 부정적 표현은 무한할 수 있다.

헤겔은 논리학에서, 순수 존재는 無와 같다고 했다. 순수한 존재는 아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한다는 것은 속성을 붙이는 것이고, 속성을 붙이면, 그 존재를 제한-한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예컨대, ‘빨간 것’이라 하면, 빨갛지 않은 것을 제외하게 된다. 이처럼 아무런 속성도 설명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순수 존재는 무와 같다. 이것은 상대적인 무(無)이다.

⑷ 無는 무엇인가? 道란 어쨌든 현상 사물의 특징(크기 냄새 같은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현상 세계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도를 본체라 한다. 이 본체라는 말은 영어의 substance에서 온 것이고, substance는 sub + stance (stand), 즉 (현상 사물/세계) ‘밑에 서 있는 것’을 말한다. 현상 사물의 밑 혹은 뒤에 있으면서 현상 사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본체는 현상의 특징이 없다. 그래서 무명(無名)이라 한다.

2) 무명(無名)과 언어 부정

노자는 언어 표현을 부정했는가? - 이처럼 노자는 부정문을 쓰고, 말을 부정하며, 말할 수 없다고 한다는 점에 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노자는 과연 선불교의 선사(禪師)들처럼 과격하게 말을 부정하고 “화두(話頭) 좌선(坐禪) 방할(棒喝 몽둥이질과 고함)” 그런 비슷한 수련 방법을 쓰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노자는 결코 선사(禪師)는 아니다.

노자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부정한다. 말이란 현상 사물에 붙이는 이름이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말이 늘어난다. ‘無名’은 말을 부정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문명 사회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유가나 묵가나 법가 등의 이론을 부정한 것이다. ‘無名’이란 이름의 부정이고, 이론과 이념의 부정이며, 문명의 부정이다. 그리고 그런 부정과 더불어 노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노자가 말과 이름을 부정했지만, 노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며, 그리고 노자도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다.

3.4, 道와 無名 - 무규정

1) 도(道) - 무명(無名) - 무(無)

⑴ ‘無名’은 “이름이 없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을 없앰”이다. 여기에서 ‘이름’은 현상 사물을 규정하는 수단이다.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 사물을 그 이름으로 규정

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버지답게 행동해야 한다. 즉 그 이름으로 그가 규정된다.

'이름이 없음'은 "규정되지 않음"이다. 즉 '무규정'이다.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특징이 없다. '특징이 없음'은 "~이 없다(無)" 라는 뜻이다. 그래서 '無名'은 많은 경우에 '無'라고 줄여서 말한다.

이 경우 '無'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규정'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것을 '상대적인 無'라고 한다.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절대적인 無)은 아니다.

⑵ '道'는 말 그대로 '길'이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人道'이고 하늘이 걸어가는 길은 '天道'이다. 그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 가는 길을 '道'라고 한다. 나아가 '道'에는 규범적 의미가 붙어서 사람이나 자연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방법이 된다. 그 길-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실패할 것이니라.

이 '道'에 대해서 25장에서는 *별명(字)*으로 붙인 이름이라 한다. 즉 '道'라는 말은 '*본질적인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억지로 붙인 이름이 바로 '크다'(大)라는 것이라 한다. 大야말로 도의 본질을 규정한 말이라는 것이다. 大의 뜻은 일단 25장에서 살피기로 하고, 노자가 '道'를 규정하는 다른 말, 즉 '無'에 대해서 고찰하자.

'道'를 無라고 했을 때 無는 無名을 줄인 말일 것이다. (현상의 어떤 속성도 없다는 뜻에서 無名-無이다.)

2) 무(無)의 개념

노자가 '道'를 규정하는 다른 말은 '無'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이 성립한다. 이 도식은 앞에서 인용한 1장에 표현되어 있다.

무(無) - 도의 세계 - 이름이 없음(無名) - 욕망의 대상이 아님(無欲) - 자연 상태.

유(有) - 현상 세계 - 이름이 있음(有名) - 욕망의 대상임(有欲) - 문명 사회.

이 無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절대적인 無 :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없는 것, 심지어 는 공간도 없는 것이다. 이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無이다. 하느님은 無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음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에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런 의미의 無는 전지 전능자를 말하는 종교에서나 거론할 뿐, 논리와 근거를 대야 하는 철학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다.

(2) 상대적인 無 ; 뭔가 있기는 한데, 규정(名)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다. 이때의 無는 '無名' 과 같은 뜻이다. 노자가 말한 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無'란 도의 본원적인 상태이며, 그것은 인간에 적용되면 무위(無爲). 무지(無知). 무욕(無欲). 무아(無我) 등의 개념으로 발전된다. 결국 노자는 사람들의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것을 부정한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사람이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행위하면, 객관 필연성인 도를 무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노자는 의식적 인

위적 행위를 부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난 상태가 곧 '자연(自然)'이다. '自然'은 두 가지 뜻이 있다. ① 물질적 자연이다. 문명 사회를 벗어나서 자연 상태로 가는 것이다. 노자 전체를 부면 이런 의미에서 자연으로 가자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장자의 주장이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가치판단이나 사회적인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뜻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절대적인 해방, 곧 인간의 절대적 '자유'인 것이다.

② 自然 - 스스로 그러함. 이는 道라는 객관 필연성의 특징이다. 도를 따르면 일이 스스로 그렇게 진행된다. 내가 굳이 힘을 들여서 人爲를 할 필요가 없다. 노동의 절약이다. 이것이 노자가 주장하는 것이다.

노자는 절대적인 원리로서의 도(道)의 추구 , 인간 이성의 한계성에 대한 각성에서 이른바 무(無)의 사상과 자연(自然)의 사상을 발전시킨다.

3) 무명(無名) - 상대적인 무(無)

⑴ 이 無란 규정이 없는 것, 한정짓지 않음이므로, 그것은 자유이다. 장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고 본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 것이며, 뱁새 다리가 짧다고 늘릴 일이 아니다. 아무런 규정 없이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장자의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자유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⑵ 힘 능력 - 자유롭다는 것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힘-능력이 없는 자는 아무리 규정이 없고, 가능성을 주어 보았자 아무 것도 하지 못 한다. 자유-가능성은 바로 능력-힘이어야 발휘할 수 있다.

⑶ 상상력과 은유 - 이는 노자의 표현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노자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이미지에 주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너무 떨어진, 동떨어진 거리-공간을 주목하기를 바란다. 바로 이 동떨어진 이미지들 사이의 공간이 '無(무규정)'이다. 일반인이 볼 때 그 동떨어진 이미지들의 결합이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서로 거의 연관이 없는 이미지들을 갖다 붙이는가? 그것은 '이미지의 폭력적 결합'이 아닌가? 물론 폭력적 강제 결합이다. 그런 폭력을 자행하는 이유는 뭔가? 우선 일반인에게 충격을 주고 싶은 것이다. 노자는 일반인이 상식적인 의식이나 마음으로 자기의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그것은 그의 굴욕일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일부러 애써 어렵게 쓰며, 일반인이 이해하면 수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쓰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미지의 폭력적 결합'이다. (또 하나는 모순 공존의 논리이다.)

5장의 경우 '하늘과 땅은 만물을 풀 강아지로 본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피리'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알맞음을 지키라' -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 사이에 아무런 연결 관계도 없는 것 같다. 그 이미지들은 그냥 나열된 것, 아니 폭력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그 이미지들 사이의 거리와 공간은 뭘로 메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읽는 이의 상상력으로 메워야 한다. 노자는 허공에 말뚝을 박을 뿐이다. 말뚝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허공을 보라. (노자가 이미지를 그렇게 나열하는 것은 허공에 말뚝 박는 것과 비슷하다.) 허공과 無 그것은 바로 일반인 독자들의 상상력, 그것도 고통스런 상상력의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간의 여백을 채워서 두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은 읽는 이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그런 고통과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노자를 읽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문학적 상상력 = 정치적 자유'가 아닌가? 둘 다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같을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詩를 선택했을 것이다. 아니 노자가 시를 선택했다는 그 점에서 노자의 정치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시(詩)란 상상력 그 자체이다. 시 정신과 산문 정신은 서로 대립된다. 시 정신은 직관과 상상력이다. 반면 산문을 쓰는 정신은 차근히 이해해서 쓰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이다. 시 정신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설득보다는 받아들임을 원한다. 보다 권력적인, 혹은 독재적인 방식이다. 반면 산문 정신은 상대의 이성에 호소하여 설득하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다.

⑷ 은유와 상대적인 무

은유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개념이나 관념을 폭력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앞에 인용한 5장이 전형적으로 그렇다. 개념과 개념 사이는 허공이고,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무(無)'의 상태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개념과 개념 사이를 연결시켜야 한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무라고 할 수 있다.

4) 무명(無名)과 도

⑴ 현상 사물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들이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것과 반대가 도이다. 도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힘이다. 이런 점에서 도는 '무명(無名)'이며 '통나무'이다. 그래서 노자는 '무명(無名)의 통나무'(無名之樸)라고 한다. (37장)

규정되지 않은 가능성으로서 도는 현실에서 드러난다. 이 때 도(道)는 '길'이라는 뜻이다. 세상 사물이 변해가는 필연적인 추세이고 과정이다. 도는 상반된 두 뜻이 다 있다. 드러나기 전에는 '무규정, 자유, 가능성'이다. 드러난 이후에는 '객관 필연성으로서 길'이다.

⑵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명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모든 유명이 생기게 되는 원천이다.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無名)이기 때문에 말(언어)로 표현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하므로 억지로 어떤 이름이라도 붙여서 도라고 부른다.(25장)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것은 한 물질로서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를 도라고 부를 때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책상은 현상 사물이지만, 도는 현상 사물이 아니다. 도는 '이름이 없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도는 만물이 생겨나오는 원천이다. 언제나 사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도의 이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자는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므로 만물

을 생성하게 하는 '그 무엇'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그 무엇'을 노자는 '도'라고 칭하였지만 사실 이 '도'라는 것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의 개념도 역시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즉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술도 할 수 없다. '도'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므로 도를 다른 사물 중에 있는 하나의 사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가 그러한 사물의 하나라면 '도'는 어떤 사물이든지 다 산출해 내는 그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사물이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도' 그 자체는 사물이 아니므로 '무명'인 것이다.

3.5, 도의 이미지 - 곡신(谷神), 박(樸)

1) 곡신(谷神)과 현빈(玄牝)

>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러 '어두운 암컷'이라 한다.
> 어두운 암컷의 문, 이를 일러 '하늘과 땅의 뿌리'라 한다.
> (그 뿌리는) 가늘게 이어져 마치 있는 듯 하나, 써도 지치지 아니한다.
>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勤.『노자』6장.

'谷神'은 골짜기의 신이다. '玄牝'은 신비한 암컷이다. 골짜기의 신은 막후의 실력자를 비유한 것이다. 골짜기와 정상은 서로 반대이다. 정상은 빛나고 높지만, 생명체가 자라기 힘들다. 반면 골짜기는 움푹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생명의 산실이다. 골짜기는 모든 것이 살고 자라는 곳이다. 이래서 '신비한 암컷'에 비유한다. 또한 드러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다 하는 막후의 실력자이다. 이와 반대로 정상은 빛나지만 죽음의 장소이다.

곡신(谷神) 현빈(玄牝)은 둘 다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것이리라. 그리고 그 성기 숭배는 언제나 다산(多産)을 비는 것, 혹은 생산이 많기를 비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 두 가지 말로 도를 비유한 것은 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낳는 '생산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노자는 도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의 어머니'(天地母)라고 한다. 생산력이 생명력이란 뜻으로 옮겨간다. 뭔가를 '만드는 것' '살아 있는 것'이 바로 도(道)이다.

곡신은 노자가 제시하는 군주의 상이다. 이런 식의 군주는 진시황과 같은 당시의 군주와 정반대이다. 진시황이 자칭했던 '皇帝'는 드러남의 극치이고, 힘의 절정이다. 정상(산꼭대기)의 이미지이고, 죽음의 모습이다.

곡신(谷神)은 초나라의 호전적 분위기에 대한 반대이다. 오자서 사건 등에서 보이듯이. 초 오 월의 세 나라는 공격적이고 잔인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했다. 죽음의 나라들이었다.

노자는 이런 전쟁과 살상 대신에 골짜기의 신처럼 생산하고 살게 해 주자고 한다. 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다.

2) 통나무(樸)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통나무이다.
비록 작지만, 천하에 어느 누구도 신하삼을 수 없다.
道常無名. 樸雖小, 天下莫能臣也. 『노자』32장

통나무로 돌아간다. 통나무가 흩어져서 그릇이 된다.
성인이 그것을 쓰면 관리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크게 마름질한 것은 쪼개지지 않는다.
復歸於樸. 樸散則爲器, 聖人用之則爲官長. 故大制不割.『노자』28장

'樸'은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이다. 원 재료이다. 무규정자이다. 노자는 '樸'이라는 말로 국가 최고 권력의 원래 상태를 은유·비유한다. 국가 최고 권력은 무엇에도 규정되지 말아야 한다. 마치 아직 가공하지 않는 통나무처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권력은 다양하게 변해야 한다. 물론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 최고 권력은 다시 무 규정자-통나무가 되어야 한다. 곡신은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낳는 능력이다. 도(道)는 그처럼 배후에서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을 낳는다. 도를 얻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도 그렇다. 모든 것을 낳는 자는 '무 규정자'이다. 가공하지 않는 통나무(樸)와 같다. 무엇으로든지 변할 수 있는 자유-가능성-힘이다.

이 둘은 도 자체의 묘사라 할 수 있다. 반면 기(器)는 약간 다르다. 도를 체득한 자가 운용하는 도구이다. 대상이다. 국가 혹은 이 세상 자체가 도구이다.

곡신은 능력이다. 통나무(樸)는 재료이다. 그릇(器)은 도구이다. 능력-재료-도구, 이것은 장인이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노자의 도의 상상력은 만드는 것과 연결된다.

3.6, 덕(德)의 개념

어떤 사람이 도(道)를 얻으면 덕(德)이 생긴다. 도는 세상이 변해 가는 길, 즉 객관적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용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를 인식하여 내가 갖추게 된 능력이 바로 '덕(德)'이다.

덕(德)은 사람의 몸에 갖춘 도, 혹은 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 도를 닦아 그 몸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래에서는 도를 체득하여 덕을 갖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를『노자』『장자』『맹자』『대학』에서 살펴보자.

(1) 노자 - 和光同塵

덕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노자는 몇 가지로 설명한다. 예컨대 15장에서 말하는 옛날의

뛰어난 무사가 그것이다. 그는 “조심함이 겨울에 개천을 건너는 듯하고, 경계함이 사방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豫焉 若冬涉川, 猶兮 若畏四鄰.)

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래의 두 설명이 가장 유명하다. 그 사람은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같아진다.” 이를 ‘어둡게 같아짐’이라 한다.

> 그 날카로움을 꺾어서 그 얽힘을 풀라
>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 그 먼지와 같아지라.
>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노자』 4장

>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 한다.
> 그 구멍들을 막고, 그 문들을 닫으라.
> 그 날카로움을 꺾어서, 그 어지럽게 얽힘을 풀라.
>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 그 먼지와 같아지라.
> 이를 일러서 ‘어둡게 같아짐’이라 한다.
> 知者不言, 言者不知.
> 塞其兌, 閉其門,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是謂玄同, 『노자』 56장

노자가 말하는 도인(道人)의 경우 ‘和光同塵’과 ‘襲明’으로 나타난다. 노자의 경우 몸에 쌓인 도는 고도의 처세술이고, 그것은 말로 표현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슴에 전술 전략에 가까운 처세술을 감추고 있다. 평소에는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를 ‘빛을 누그러뜨림’(和光), 또는 ‘빛을 옷으로 가림’(襲明)이라 한다. 그래서 평소에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同塵) 보통 사람, 어수룩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지혜를 쓸 일이 있으면, 번개처럼 쓰고, 다시 먼지 쓴 보통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는 ‘어둡게 같아짐(玄同)’이다. 요컨대 상대가 알아채지 못 하게 하면서(玄), 상대와 같아진다(同). 그래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이는 『장자』 「인간세」에 나온다. 안회가 잔인한 폭군인 위나라 왕을 설득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⑵ 장자 - 尸居龍見 淵默雷聲

이는 도를 체득한 사람으로 장자가 제시하는 것 가운데 유명한 것이다. 그는 「소요유」편에서 붕새를 그린다. 붕새는 세상을 초월달관한 사람이다. 도를 체득한 사람이다. 외잡편에는 이와 달리 매우 신비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을 제시한다.

> 시동(尸童)처럼 있어도 용이 나타난다.
> 연못처럼 침목해도 우레 소리가 난다.
> 정신이 움직이니 하늘이 따른다.
> 조용히 아무런 함이 없어도 만물이 밥을 짓고 묶인다.

君子 … 尸居而龍見, 淵默而雷聲,

神動而天隨, 從容无爲而萬物炊累焉.『장자』「재유(在宥)」「천운」

장자에 따르면, 인식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거리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인식하여 말하는 자는 인식 대상인 道와 떨어져 있다. 만약 인식 대상인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아무런 지식이 없을 것이다. 인식은 주관과 객관이 떨어져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주관(나)=객관(도)이 되면, 인식은 없다. 도를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도와 하나가 되면,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된다. 도의 능력을 가진다.

도가 사람의 안에 서리면, 용처럼 우레처럼 밖으로 드러난다. "시동(尸)처럼 가만히 있어도 용처럼 드러나고, 연못처럼 침묵해도 우레 소리가 난다! 이는 카리스마가 가득한 사람이다.

「인간세」에서는 잔인하면서도 엄청나게 똑똑한 폭군이 나온다. 그리고 「응제왕」 편에서는 '帝王'이라 한다. '신적인 군주', 즉 하느님과 같은 군주이다. 장자는 붕새와 달리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카리스마가 절정인 군주를 말한다. 이는 곧 '진시황'을 연상시킨다. 아마 진시황은 '帝王' 사상을 알고 구현하려 했을 것이다.

⑶ 맹자의 '粹面盎背',『대학』의 '心廣體胖'

맹자는 공자를 이어서, 마음에 덕을 쌓아서 인격을 이룬 자는 겉으로 빛나게 드러난다고 한다.

군자가 본성으로 하는 바는

인격 의로움 예의 지혜가 마음에 뿌리박아서

그것이 낯빛에 생겨남이 맑아서, *얼굴에 보이고, 등에 그득차고*

네 몸에 베풀어져서, 네 몸이 말하지 않아도 깨우친다."

君子所性 仁義禮智 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맹자』「진심」상 21.

'채워서 가득참'을 일러서 '아름다움'이라 한다.

'채워서 가득차서 빛나는 것'을 일러서 '큼'이라 한다.

'커서 변화시킴'을 일러 '성스러움'이라 한다.

'성스럽되 (그가 한 것을) 알지 못함'을 일러 '신묘함'이라 한다.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맹자』「진심」하 25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후덕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뜻을 성실하게 한다.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 必誠其意. 대학 전 6장

맹자가 말하는 "*얼굴에 보이고, 등에 그득함*"(睟面盎背), 『대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후덕해짐*"(心廣體胖)은 안에 쌓인 덕과 인격이 겉으로 드러남이다. 공자나 맹자에 따르면, 사람이 인격을 닦으면, 혹은 몸에 도를 쌓으면 그것이 말로 드러나고, 지혜의 빛이 반짝반짝 온 몸에서 빛난다. "얼굴에 빛나고 등까지 가득 차며"(粹面盎背),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듬직해진다".(心廣體胖) 이는 붇다나 예수처럼 후광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리라.

반면 장자의 용과 우레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데, 그를 만나는 자가 보고 듣는 것이다. 절대 권력이 온 몸에 카리스마로 드러남이다.

반면 공자 맹자의 지혜의 빛은 얼굴에 실제로 나타나고 몸이 덕이 있는 풍채가 된다.

⑷ 노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도(道)'가 있다는 것이다. 도를 체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덕(德;능력)을 갖게 된다.

'도(道)'와 '덕(德)'의 관계는 이렇게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현상이 전부는 아니고, 현상을 움직이는 배후의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노자의 사상이다. 노자는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허상이고, 진실은 그 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는 이 부분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진실이란 '힘-권력'을 뜻한다. 진실은 현실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현상이 아니라 그 진실, 참 모습을 보라는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대문을 나서지 않고도 온 세상을 알 수 있다!" (不出戶, 知天下; 47장)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극히 피상적인 것이다. 방안에 앉아서도 세상이 움직이는 흐름과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노자가 볼 때 현상이 그대로 이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 배후에 無名, 樸 그리고 道, 혹은 '모순의 공존'을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본질주의라 할 수 있다.

3.7, 대립자의 공존

1) 노자는 역발상을 한다. 그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기를 철저히 실천한다. 이 실천의 결과가 '대립자의 공존(모순 공존)'의 논리이다. 화의 곁에는 복이 있고, 고난의 끝에는 행복이, 흥성함에는 쇠락이 있고, 더럽고 추악하니까 아름답고, 사랑하니까 미워하며, 소나기는 하루를 내리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내가 현재 고난에 처해서 화(禍)를 받았지만, 실망할 것은 없다. 화(禍)의 속에 복이기 있기 때문이다. 성공의 절정에서 좋아할 것이 못 된다. 복에는 화가 기대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역발상이다.

이처럼 대립된 양쪽, 즉 A와 ~A의 둘 다를 인식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하다. 그 둘 중 하나만 보면,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

이다. 대립자 양쪽을 다 파악함, 이를 노자는 '포일(抱一)', '득일(得一)'이라 했다. 대립자를 '하나로 껴안으라', 또는 '하나로 됨을 얻으라'는 말이다. 대립자 양쪽을 다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물질주의이다. 현실은 물질적 힘의 관계이다. 그 힘이 작용하고 변화하면서 현실을 바꾸는 과정은 대립자의 공존의 과정이다. 대립자가 겨루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 않으려면 대립자 공존의 논리를 터득해야 한다.

현실은 물질적인 힘이 대립하면서 변해가는 마당이다. 변하는 속에는 길이 있다. 길을 '도(道)'라고 한다. '도(道)는-객관적 필연성'이다. 사람은 주관을 죽이고 객관 필연성인 도를 따르라는 것이다. 객관 필연성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을 노자는 혐오한다. 세상이 변해가는 객관적 필연적 과정인 도를 따라야 한다.

2)『노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대립자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현상 세계는 대립자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대립자의 공존 논리는 변증법과 같다.

노자는 1장에서 도를 '無名'과 '有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바로 2장에서 대립자의 공존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1-3은 노자의 핵심 사상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다.

2장은 다음과 같다.

>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되는 줄 알지만, 이는 추악함이다,
> 모두 선이 선함이 되는 줄 알지만, 이는 선하지 않음이다.
>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 낳고,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고,
>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고,
> 음성과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 이러므로 성인은
> 함이 없음(無爲)을 일삼음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 만물을 만들되 지배하지 않고, 생산하되 가지지 않는다.
> 위하되 기대하지 않는다. 결과가 이루어져도 거하지 않는다.
> 대저 오직 거하지 않기에 이로써 떠나지 않는다.
>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 音聲相和, 前後相隨.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不去 『노자』2장

⑴ 여기에서 노자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있음과 없음, 길고 짧음 등, 대립된 것은 반드시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수하게 보면, 있음과 없음, 길고 짧음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성립하지 못 한다. 그런데 선과 악, 미와 추는 꼭 동시에 존재할 이유는 없다. 유가는 그 둘이 따로 있다고 본다. 노자는 그 둘이 하나로 동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노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⑵ 노자는 이 2장에서 '도(道)'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일종의 변증법적 논리)'를 제시한다. 그것이 '모순과 대립자의 공존'이라는 논리이다.

노자는 1장에서 이 세계의 구조를 이원적으로 설명한다. '무명(無名) - 무욕(無欲)'과 '유명(有名) - 유욕(有欲)'의 구도이다. 이 세계는 하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道-無名)과 인간이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개조 변형시킨 세계(有名-有欲)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나 행위가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고 말한다. 도(道)의 세계는 규정(名)이 없으므로 어떤 대립자도 없다. 반면 인간의 세계는 모든 것을 규정하고 이름을 붙이므로 대립자가 공존한다. 이 대립자의 공존을 여기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 세상은 두 부분(無名-有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명(無名)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 도(道)의 세계이다. 반면 유명(有名)은 규정의 세계이며, 현상 세계이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신(A) 이외의 다른 것(~A)이 있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서 대립자의 공존 논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유명(有名) - 현상 세계의 구조 - 대립자의 공존"을 설명한 것이다.

⑶ 이 대립자의 공존 논리가 바로 변증법이다. 또한 대립자의 공존 논리는 등석(鄧析)의 양가(兩可, 양쪽 다 됨)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등석은 정나라에서 일종의 변호사를 했다. 황하에서 부자가 물에 빠져 죽었다. 가난한 어부가 시체를 건졌다. 부자 아들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그 아들이 등석과 상의했다. 그러자 등석이 "기다려라. 그럼 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 어부는 다른 곳에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초초한 어부가 등석에 물었다. 그러자 등석이 "기다려라. 그럼 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 아들은 다른 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등석이 보기에 대립 모순되는 두 입장은 다 성립한다. 이것을 '양가(兩可)' 논리라고 한다. 그리고 노자가 이 논리를 채용해서, 사회 국가 문명을 분석하는 도구로 삼는다.

3) 되돌아옴과 대립자 공존 논리

> "되돌아 감이 도의 움직임이요, 약함이 도의 작용이다."
>
>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노자』40장

노자는 도의 움직임을 '되돌아 옴'(復)이라 한다. 현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해 가서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립자 공존한다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기가 한 대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이웃나라를 힘으로 유린하면, 반드시 나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힘으로 유린당한다. 30장에서 노자는 "그 일은 되돌아 오기를 좋아한다."(其事好還)이라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강함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강함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4) 대립자의 악순환으로서 역사의 흐름

노자는 대립자의 공존이라는 논리로 인류의 역사를 해석한다.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대립자의 공존 갈등이 더 심해진다. 역사라는 것은 대립자가 서로 맞서면서 더 악화되는 과정이다. 악순환이 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공동체인 '소국과민(小國寡民)'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이후는 타락하고 퇴보하는 과정이다.

4. 노자의 국가론

4.1, 소국과민(小國寡民)과 퇴보 사관

1) 노자의 이상적 국가

노자가 말하는 이상 국가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이다. 이는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을 뜻한다. 이를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 설사 什佰의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아니하며,
>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멀리 옮기지 않게 하라.
>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타는 바가 없고,
> 비록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벌려 놓는 바가 없도다.
>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묶어서 (셈을 하는데) 쓰게 하라. (結繩 문자)
> 그 먹이를 달게 여기고,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 그 사는 곳에 편안하고, 그 풍속을 즐긴다.
> 이웃 나라가 서로 마주 보아서,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 백성들이 늙어서 죽도록 서로 오고가지 아니 한다.
> 小國寡民;
> 使有什佰之器而不用, 使民 重死　而不遠徙.
>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 使人復結繩而用之.
> 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
>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 『노자』80장

80장은 노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혹은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다.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인 공동체는 마을 규모이다.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쓰지 않는다. 특히 무기와 탈 것, 문자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머물며 산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이러한 묘사에 맞는 나라는 역사 초창기의 “씨족 국가, 마을 국가, 모계 사회, 원시 공산 사회”이다. 이후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부족 국가, 고대 국가, 통일 국가로 변해 간다. 이 과정은 전쟁과 정복에 의한 것이다.

① 작은 공동체 ② 무기와 도구를 쓰지 않음. ③ 현상에 만족함 - 이 셋은 ‘소국과민’의 특징이다. 그리고 노자가 볼 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셋이 깨진 것이다. 국가가 커짐에

따라 전쟁과 혼란도 가중된다. 그래서 노자 당시가 가장 혼란스런 때라고 보았다. 그는 문명 사회를 가장 나빠진 상태로 본다. 그래서 노자는 문명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국과민(小國寡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문명의 발전은 새로운 도구나 개념의 도입 과정이다. 이는 말이 늘어나는 과정이다. 새로 생긴 것에는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국가가 규모가 커 가면서 새로운 덕목 등이 강조된다. 유가의 충과 효, 법가의 법과 형벌 등이 그런 것이다. 대립자의 공존 이론에 의하면, A가 있으면 ~A도 있다. 충효가 있으면, 그 반대인 혼란 갈등이 있다. 혼란 갈등을 하므로 충효를 강조한다. 그것이 없으면 왜 충효가 필요하겠는가?

결국 역사의 흐름은 대립자의 공존이 강화되면서 점점 퇴보하는 과정이다. 이 측면에서 보자면, 노자는 대립자의 양쪽을 부정하여 궁극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부정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것은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다. "작은 나라(마을 국가), 적은 백성"의 원시 공산 사회는 최소 사회이다. 따라서 최대 사회인 문명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없게 된다. 문제 자체가 없는 셈인 것이다.

이는 무명론(無名論)으로 나타난다. 문명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이름(말)'으로 나타난다. 이름(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름(名)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문명사회가 제시하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자는 그런 가치가 바로 문제의 뿌리라고 본다. 문명사회는 권력-돈-명예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이 갖는 욕망의 대상이다. 그것을 추구하려면 이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자는 욕망을 이성의 뿌리로 본다.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려 애쓰고, 그래서 이성이 발전한다. 이성이 깨이면, 그에 따라 이번에는 욕망이 커진다. 이성과 욕망은 상호 작용하면서 악순환을 한다. 악순환은 문명사회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라가 혼란하니까 충신이 생겨난다고 본다. 그러나 노자의 생각은 반대이다. 충신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혼란하다고 본 것이다. 큰 충신이 있다는 것은, 큰 혼란이 있었다는 말이다. 나아가 충신은 혼란을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충신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즉, 충신과 혼란은 악순환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나라의 혼란과 충성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라의 혼란'은 없애려는 목표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대상이다. 객관적인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처럼 사람들이 문명사회에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함이 없는 것, 즉 무위(無爲)가 바로 노자가 바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 없으므로 조금씩 덜어내어(損之又損), 종래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처럼 대립자들이 선순환을 하면 결국 문명의 혼란이 전혀 없는 소국과민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노자는 이 자연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처음으로 돌아갈 것(復初)"를 주장한다. 이것은 바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소의 논리이다.

다시 말해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넓이가 작은 땅을 가진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이다. 원시 공동체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개의 '도' 단위나 혹은 '시' 단위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인류 역사로 보면 맨 처음 농업이 시작되면서 농경생활이 기반이 된 마을 국가나 부족 간에 형성된 부족국가가 이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작은 땅은 거의 법이나 국가의 간섭이 필요 없으며

그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만족을 알고 살 수 있으며, 적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씨족의 가족 단위(혹은 모계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자급자족이 되고 정보의 교류가 필요 없고, 다른 곳(혹은 나라)의 문물은 거의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이다. 다른 곳과의 비교가 없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곳의 문물을 보면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은 곧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불만은 모두 비교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행복과 지식은 반비례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노자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지고 행복의 조건 중에 '무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2) '소국과민'의 의미

소국과민은 노자 당시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가? '小國寡民'은 노자가 단 한번만 말한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노자의 이상 국가인가?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小國寡民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지극히 어렵다. 역사 초창기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노자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노자 당시는 전국 시대이다. '戰國'은 '전쟁하는 나라'들이라는 뜻이다. 이 시대에 7국의 제후들의 목표는 패자(覇者,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천하 통일함이었다. 이를 실현한 사람은 진시황이다.

노자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힘으로 우격다짐을 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한다. "힘을 떨치는 자는 제 명에 죽지 못 한다"(強梁者, 不得其死, 42장)이라 한다. 따라서 "도로써 사람의 주인을 보좌하는 자는 군대로써 천하에 강함을 떨치지 않는다.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強天下, 30장)

그는 공격 전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력은 최소한으로 써라. 힘자랑하지 마라. 승리해도 초상 치루라. (31장) 이런 것을 종합하면, 노자는 무력에 의한 통일보다는 다국의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을 주장했다. 소국과민은 다국 공존의 극치에 해당된다. 중국에 수천수만 개의 국가가 가능하다. 소국(小國)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자는 전국시대의 정복 논리를 반대한다. 노자 사상이 생겨났던 초나라는 장왕(莊王) 이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리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늘 전쟁에 휩싸였다. 초 오 월이 그렇게 싸웠다. 『노자』라는 책은 이런 전쟁 분위기에 대한 반성과 반대이다.

이렇게 보자면, 노자는 '소국과민'을 현실에서 실현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소국과민'은 정복 전쟁에 광분하던 당시의 군주와 지배층들을 비판하는 수단이었다. 당시 군주나 지배층들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전쟁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힘에 의한 정복 전쟁을 노자는 힘써 반대했다. 그 논리의 바탕에는 '소국과민'이 있다.

3) 퇴보 사관

노자의 역사관은 퇴보 사관이다. 역사의 맨 앞에 소국과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노자

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다. 소국과민은 서로 공존했고 전쟁이 없었다. 반대로 노자 당시의 국가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한다. 그렇다면 역사는 흘러갈수록 퇴보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역사 초창기의 국가였던 소국과민(小國寡民)은 공존과 전쟁의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의 나라에 많은 백성을 원하는 군주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소국과민은 마을 국가이면서, 모계 사회이고, 원시 공산사회이다. 인류 역사 초창기의 국가이다. 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이다.

시초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면, 그 이후는 퇴보의 과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자는 당시의 정복 전쟁을 극렬히 반대했다. 따라서 최초의 이상 사회와 그 당시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를 연결하면, 역사는 퇴보하는 과정이 된다.

> 가장 위는 아래(백성)가 그(지배자) 있음을 안다.
> 그 다음은 그를 사랑하고 기린다.
>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한다.
> 그 다음은 그를 업신여긴다.
> 믿음이 넉넉하지 않아서, 믿지 못 함이 있다.
> 유유히 말을 그 아끼도다.
> 공적이 이루어지고 일이 마치면,
> 백성이 모두 이르기를, '내 스스로 그러했다' 한다.
> 太上下知有之, 其次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
> 信不足焉, 有不信焉. 悠兮其貴言.
>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노자』17장

이상의 인용문에서 노자는 말한다. 역사는 퇴보하는 과정이다. ① 가장 위인 태초에는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백성이 모른다. 혹은 있다는 정도만 안다. ② 그 다음에는 백성이 통치자를 친하게 대하고 칭찬한다. 지배자가 사랑(仁)과 의로움(義)의 통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가의 통치이다. ③ 그 다음에는 백성이 지배자를 두려워한다. 법과 형벌로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가의 통치이다. ④ 그 다음에는 백성이 통치자를 업신여긴다. 백성들이 학대와 탄압을 당한 끝에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성이 통치자에게 대드는 것이다.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노자는 통치가 없는 무위(無爲) 자연(自然)의 상태를 최상으로 친다. 그리고 유가와 법가를 각각 역사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사상으로 간주한다. 사랑과 의로움의 통치는 유가의 것이고, 강압 통치는 법가의 것이다. 법가 다음에는 폭군의 통치가 될 것이다. 이때는 천하 대란이 된다. 실제로 노자의 예언처럼 되었다. 진시황이 통일한 뒤에 강압적 통치를 한다. 그가 죽은 뒤에 중국 전체가 반란에 휩싸여서 전쟁터가 된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진나라에 대해서 '업신여김'(侮)을 공공연하게 했다. 반란이 그것이다.

> 큰 도가 폐지되자, 인과 의가 있게 되었다.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 하자, 효와 자애가 있게 되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충신이 있게 되었다.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僞;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 『노자』18장

대립자의 공존 논리에 따라서, 유가나 법가에서 주장하는 덕목, 통치 수단이 반드시 그 반대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점 때문에 역사가 퇴보하는 것이다.

'큰 도'는 무위자연이다. 무통치의 통치이다. 그 단계가 깨지므로, 사랑과 의로움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유가의 통치가 된다. 이어서 그 다음인 법가나 그 다음인 폭군은 설명하지 않고, 유가를 계속 분석한다.

큰 지혜는 큰 거짓과 언제나 함께 간다. 대립자는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가 발전하면, 그에 맞추어 거짓과 사기도 발전한다. 충과 효가 있으면 가정에 화목, 국가에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유가는 강조한다. 그런데 반대로 보자면, 불화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효자와 충신이 필요한 것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나라가 평화로우면 충신 효자가 왜 필요한가? 효자가 많다는 것은 그 집안이 싸운다는 말이다. 충신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충신은 이순신이다.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그는 유명한 충신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4.2, 통나무(樸)와 그릇(器)

소국과민은 시간의 흐름, 역사 속에서 국가의 변천을 살피는 개념이다. '樸과 器'는 공간적으로 현재 국가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노자의 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통나무'(樸)와 '그릇'(器)이다. 통나무는 원료를 뜻한다.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있음을 함축한다. 그릇은 담는 것이다. 담는 내용은 다양하다. 사람의 경우 인품이나 도량이 사람에게 담기는 것이다. 국가나 군주의 경우, 권력이 바로 담기는 것이다.

이런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노자는 시적으로 국가 구성의 원리를 설명한다.

1) '최고 권력'의 표현으로서 국가

"영광을 알되 치욕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谷神, 막후의 실력자)가 된다. 그러면
항상 능력(德)이 넉넉하여 통나무(樸, 군주권, 국가의 최고 권력)로 돌아간다.
통나무가 흩어지면 (가공되면) 그릇(器, 국가 기관, 官)이 되나니,
성인은 이를 써서 관리의 우두머리(군주)가 된다. (*관청의 우두머리를 만든다.*)
크게 마름질된 것은 잘라져 있지 않다."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大制不割.『노자』28장

이것은 28장의 후반부이다. 이는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다.『노자』라는 책은 시집이다. 모호하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이는 국가 구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⑴ 영광과 치욕은 정치에 필수적인 것이다. 정치인은 치욕보다 영광을 바란다. 겉으로 드러나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카리스마로 모두를 제압하기를 원한다. 노자는 이것에 반대한다. 치욕을 선택하라. 뒤로 물러나서 숨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힘이 되라. 이것을 그는 '골짜기'에 비유한다. 골짜기는 숨고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생물을 품고 키워준다. 정치는 그러해야 한다.

⑵ 노자는 樸과 器로 최고 권력(주권)이 국가를 구성함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논리적 측면을 지정해야 한다.

첫째, 최고 권력(樸)은 무한하다. 국가 기구(器)는 유한하다. 최고 권력을 쪼개고 잘라서(制) 국가 기구를 만들면, 최고 권력은 흩어진다(散). 무한히 많은 국가 기구를 만들어도, 최고 권력은 마르지 않는다. 다하지 않는다. 이는 모순이다.

둘째, 국가 기구는 마름질된 것(制)이다. 재료를 자르고 가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런데 최고 권력은 무엇인가? 아무런 가공도 되지 않은 원재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크게 가공된 제품이다. 국가 기구가 가공된 제품이라면, 국가 전체를 만드는 최고 권력도 제품이어야 한다. 최고로 가공된 것은 가공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大制不割'이라 한다. 이것도 모순이다.

유한과 무한의 모순, 가공됨과 되지 않음의 모순 - 이 둘이 국가 구성에 필수적이다.

⑶ 28장은 제왕학이다. 군주가 최고 권력(주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제왕학의 측면에서 보자면, 노자가 늘 강조하듯이, 군주는 현상이 아니라 본체가 되어야 한다. 신하와 백성들은 현상이다.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체는 군주이다. 군주가 본체가 되어 국가의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는 '최고 권력(주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주권이 드러난 것이다. 주권은 '통나무(樸; 원목)'로 상징화된다. '樸'이란 규정되지 않음, 가능성, 힘을 의미한다. '樸이 散함'이란 '통나무(樸)'가 흩어짐과 가공됨(책상, 침대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가공됨)을 말하며, 그 무규정자가 특정한 어떤 것으로 규정되는 것(有名)을 말한다. 그래서 '그릇(器, 하나의 도구)'이 된다. 그릇은 신하를 상징한다. 한비자에 의하면, 군주는 無名이며, 신하는 有名이다. 또한 군주는 無爲하고, 신하는 有爲해야 한다. 유위(有爲)하기 위해서, 신하는 그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有名'은 '규정함'을 뜻한다. 유명(有名)을 여기서는 박산(樸散)이라 하고 있다.

⑷ 器(그릇)란 어떤 일이나 상황에 유용한 도구나 장치이다. 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유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가 기관이나 관리를 의미한다. "박이 산하여 기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일이 분야별로 나뉘어 신하들에게 맡겨지며, 그 기능의 총체는 국가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최고 권력이 각 분야별로 위임되어 각 분야의 기관과 관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란 결국 국가 최고 권력의 변용과 변신이며, 자기 표현일 뿐이다.

성인(聖人)은 그 박(撲)을 써서 국가를 장악하고 운용한다. 따라서 박산(樸散)의 기(器)를 만들고 사용하므로, 관료, 관리, 기관의 우두머리(官長)가 된다. 이점에서 박산(樸散)이 관료의 유위(有爲)와 유명(有名)이라면, 박산(樸散)의 극치이다. 그 극치는 불할(不割), 즉 불산(不散)이라는 것이다. 무위(무위)와 무명(무명)이다. 이는 대립자의 공존 논리이다. 대제(大制)는 박산(樸散)으로 나누어지는 최고 권력이며, 박산(박산)된 권력들을 모두 모은 것이다. 박산(樸散)이 되든 말든 대제(大制)는 그 자체로서 분할이나 양도되지 않은 전체로서 군주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

2) 3보 - 그릇의 우두머리(器長)의 덕목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

검소하기 (아끼기) 때문에 넓힐 수 있다.

감히 천하의 맨 앞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릇의 우두머리를 이룰 수 있다.

“감히 천하의 앞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므로, 그릇의 우두머리(器長)를 이룰 수 있다.”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能成器長.『노자』67장

⑴ 67장에서 노자는 자신이 세 가지 보물 (3寶)를 설명한다. 이 셋을 가지면 ‘器長’이 된다. ‘器長’은 ‘그릇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백서 을본은 “成器長 → 爲成器長”이라 한다. ‘成器長’은 ‘器長을 이룬다’는 뜻이고, ‘爲成器長’은 “成器의 長이 된다”이다. 즉 “이루어진 그릇의 우두머리가 된다.” ‘成器’는 국가의 모든 관청과 기구를 뜻한다.

이 둘은 결국 뜻은 같다. 器長은 국가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군주는 3보를 가져야 한다.

3보는 이렇다.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하다.” 당시는 정복 전쟁 시대라, 늘 싸웠다. 싸움은 증오와 분노로 한다. 용감함이 거기에서 나온다. 노자는 반대로 말한다. 분노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용기가 나와야 한다. 일반 사병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적에게 돌진해야 한다. 그것이 용기이다. 지휘관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군주도 마찬가지이다. 군주는 모두의 군주이다. 전체를 포용해야 한다. 따라서 용기는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사병과 다르다.

둘째, “검소하기 (아끼기) 때문에 넓힐 수 있다.” 검소함은 아끼는 것이다. 물자 뿐만 아니라, 행위도 아끼는 것이다. 함부로 많이 행하면 반드시 탈이난다. 군주는 될 수 있으면 최소의 행위로 최대의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넓어진다. 모든 행위에는 그 반대의 측면이 달라붙는다. 대립자의 공존이다. 넓어지고 싶으면 행위를 줄여라.

셋째, “감히 천하의 앞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군주는 이미 그 나라에서 맨 앞자리이다. 굳이 앞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맨 뒤로 가야 한다. 그래야 백성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군주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맨 뒤에 있어야 한다. 앞과 뒤라는 것은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이다. 군주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겁게 여긴다. 군주의 존재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36장에서 군주는 연못이 되라 한다. 군주권은 국가 최고 권력이다. 최고로 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물이나 밥은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먹는다. 군주권도 그 비슷해야 한다. 강하고 딱딱하면 백성이 질리고 참지를 못 한다. 그래서 노자의 철학은 전시황과 정반대이다. 진시황은 권력이란 강한 것, 폭력으로 생각한다. 오래 못 간다.

⑵ 28장은 군주권이 국가 기구를 만들음을 설명한다. 여기 67장은 군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측면으로 가야 한다. 사랑, 검소, 앞이 안 됨이 그것이다.

3) 신비한 그릇(神器) - 국가 권력

⑴ 노자는 국가의 권력을 신기(神器)와 이기(利器)로 말한다. '신묘함, 날카로움'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군주가 군주인 이유는 최고 권력(주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최고 권력, 그것은 호랑이 등과 똑같다. 등 위에 올라탔을 때 권세 등등하지만, 등에서 굴러 떨어지면 바로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비극이고, 모순의 공존일 것이다. 하긴 권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재능이나 미모도 그런 것이다. 그 재능과 미모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능이나 미모가 주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된다.

따라서 군주는 '최고 권력'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잘못하면 자신이 죽고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묘함, 날카로움"이라 한 이유가 그것이다.

⑵ 노자는 '신비한 그릇(神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장차 천하를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 나는 그 할 수 없음을 본다.
> 천하는 '신비한 그릇'(神器)이니, 할 수 없다.
> 하는 자는 실패하고, 잡는 자는 잃는다.
>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
>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者敗之, 執者失之.『노자』29장

신기(神器)는 '신비한 그릇'이나 '도구'라는 뜻이다. 노자는 천하를 '신묘한 그릇'이라 한다. '神'이라는 말은 '인식할 수 없음'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한다. 단지 '신묘한, 신비한'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천하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릇이다.

당시의 군주들은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 노자가 볼 때, 천하는 일반 사물과 다르다. 일반 사물은 부분이고, 천하는 전부이다. 부분은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는 잡을 수 없다. 나는 부분이고, 천하는 전체이기 때문이다. - 논리적으로는 이렇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를 차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천하를 잡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잡으면 잃는다. 여기에서 노자는 대립자가 공존함

을 말하고 있다. 잡음=잃음이 된다. 천자는 반드시 이것이 적용된다.

노자 당시에는 모두가 천하를 취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천하를 차지하지 못 했다. 그런데 아무도 노자의 이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결국 진시황이 통일을 했다. 그는 천하를 자신이 잡았다고 확신을 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통일 국가 진나라 전체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통일하기 전에는 적국이 내 나라 밖에 있었다. 통일하고 나서는 적이 내 나라 안에 있게 된다. 진시황은 이를 생각하지 못 한다. 단지 외부의 적을 다 멸망시키면, 자기 나라가 만세를 갈 것이라 생각한다. 적이 정복당해서 내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노자는 그래서 말한다. "하는 자는 실패하고, 잡는 자는 잃는다"고 한다. 노자의 저주가 중국 역사를 관통한다. 왕조들이 흥망을 되풀이한다.

⑶ 신기(神器)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다. 당시에는 군주정이라 이 권력은 군주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국가의 현상이란 결국 그 최고의 권력(군주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상의 배후(본체)가 바로 그 최고 권력이다. 따라서 그 권력 역시 도(道)와 아주 비슷하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관청이나 관리들이다.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최고 권력'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묘함이라 할 수 있다.

29장에서는 '최고 권력'으로서 신기(神器)는 붙잡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말한다. 최고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을 수도 있다. 권력을 자의적인 욕망 감정으로 쓰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최고 권력을 노리는 자에게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잡지 못 한 것일 수도 있다.

4) 날카로운 연장(**利器**)

'利器'는 ① 날카로운 도구. 예리한 그릇, ② 이로운 그릇, 편리한 도구, - 이런 두 뜻이 다 있다. 이 가운데 ①을 주로 뜻한다. '성능이 매우 좋은 도구'라는 말이다. 아래 36장에서는 "나라의 날카로운 연장"이라 한다. 이 연장은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군주가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1)

장차 그것을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진실로 주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서 '희미하게 한 밝음(지혜)'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함이 굳세고 강함을 이긴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라의 날카로운 연장(利器)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將欲奪之, 必固與之, 是謂微明.

柔弱勝剛強. 魚不可脫於淵, 國之利器不可以示人. 『노자』36장

36장에서 노자는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을 말한다. 뺏고자 하면 먼저 주어라. 왜 그런가? 그냥 뺏으면 상대가 경계를 한다. 주면 상대가 나를 친구로 알고 방심한다. 그러면 뒤통수를 쳐라. 쉽게 뺏을 수 있다. 정치는 원래 이런 것이다.

나의 의도를 상대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微明'을 가져야 한다. "밝은 지혜를 희미하게 만듦", 즉 자기의 지혜를 감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자는 무식하게 힘 자랑하는 것과, 과정을 냉철하게 따져서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을 대비시킨다. 당시의 강자들은 자기 의도를 그냥 드러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 노자는 이를 경멸한다. 힘 자랑은 반드시 대립자의 공존을 부른다.

따라서 '희미하게 한 지혜'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부드럽고 약함'(柔弱)이다. 반면 힘으로 밀어붙임은 '굳세고 강함'(剛强)이다. 후자는 겉보기에는 센 것 같지만, 결국은 전자, 부드러움에게 패배하게 된다. 이것이 노자의 신념이다.

⑵ 부드럽고 약한 것은 주는 것, 연못이다. 굳세고 강한 것은 뺏는 것, 물고기이다. 나라의 날카로운 연장(利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음은 미명(微明)이다. "희미하게 만든 밝음"이다. 나라의 날카로운 연장 (군주권. 최고 권력)은 부드럽고 약하게 써라. 주어라. 연못이 되라. 연못의 비유는 군주권은 연못과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고 권력으로서 '날카로운 연장'(利器)은 '부드럽고 약함', '연못'에 비유된다. 반대로 신하나 백성은 '굳세고 강함' '물고기'이다. 물고기는 물을 의식하지 못 한다. 그러듯이 신하와 백성은 국가 권력을 의식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 즉 강압적인 통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그들이 의식하면, 최고 권력은 흔들린다.

날카로운 연장은 날카롭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칼로 치기 전과, 칼로 친 이후 가운데, 치기 전이 더 두렵다. 강한 힘으로 하거나 우격다짐은 오래 가지 못한다.

⑶ '利器'는 일차적으로 국가 최고 권력(주권, 왕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날카로운 연장"(國之利) 이라 하므로, 군주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무형의 권도(權道)와 제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利器'는 법규 규정 명령 형벌, 각종 통치 제도나 법령을 총망라한 사회 시스템의 총체이다. 백성 교화 수단,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조처까지 포함한다.

요컨대 군주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국가를 통치하되, 강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 하듯이, 신하나 백성이 국가 권력을 의식하지 못 하게 하라. 이는 무위(無爲)의 통치를 말한다.

이기(利器)는 무기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라의 날카로운 무기는 적에게 보이지 말라. 연못 속에 든 물고기처럼 하라는 뜻이다. (36장)

⑷

천하가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으니, 그래서 백성이 더욱 가난해진다.

백성이 '날카로운 연장'을 많이 가지니, 나라와 집안이 더욱 어두워진다.

사람들이 기술과 재주를 많이 가지니, 기발한 물건이 일어남을 불린다.

법의 명령이 더욱 드러나니, 도적이 많이 있게 된다.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노자』57장

여기 57장의 '이기(利器)'는 '편리한 날카로운 연장'이다. '民多利器, 國家滋昏'- "백성이 날카로운 연장(무기)를 많이 가지면, 나라와 집안이 더욱 어두워진다." '이기(利器)'가 나오면 백성들이 그것에 혹한다. 이래서 백성들이 새로운 기물에 대한 욕망이 늘어난다. 그래서 노자는 잠자던 욕망을 깨우지 말라고 했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도구를 보여주지 말라고 강조한다.

혹은 이기(利器)는 일종의 권력 단체를 의미한다. 요즘의 이익 단체, 시민 단체 비슷하다. 그들은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자는 많은 점에서 백성들이 권력을 갖는 것을 두려워 한다. 노자는 부쟁(不爭) 사상으로 귀족의 신분제를 옹호한다. 신분을 규정해서 경쟁을 없애버린다. 여기에서는 백성들이 자체적인 권력 기구를 만드는 것을 부정한다. 이것이 한비자와 같은 법가 사상과 그대로 연결된다. 군주와 국가를 벗어난 어떤 단체나 권력도 부정하는 것이다.

5) 기(器) - 도구, 연장 및 무기

(1) 도구 혹은 연장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한 굴대를 공유하니, 그 없음에 이르러 수레의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니, 그 없음에 이르러서 그릇의 쓰임이 있다.
지게문을 뚫어서 방을 만드니, 그 없음에 이르러서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있게 하여서 그로써 이로움을 삼고, 없게 하여서 그로써 쓰임을 삼는다.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노자』11장

이 11장은 텅 빔(無)의 쓸모(用: 효용)을 주장한다. 정리해 보면,

無의 用 - 수레바퀴 통 ; 그릇 안 ; 방의 안 - 텅 빈 곳
有의 利 - 수레바퀴 살 ; 그릇 자체 ; 방 자체 - 그것들 자체, 공간을 만드는 구조물

여기에서 '器'는 말 그대로 '그릇'을 의미한다. 그릇의 쓸모는 그릇이 만드는 공간에 있다. 그릇 자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릇'은 '공간을 담는 도구'라는 뜻이다. 그리고 노자가 '器'라는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담는 것으로 '그릇'을 말한다. 담는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자는 유(有)가 아니라 무(無)를 본다. 이는 예컨대 중국화에서 '여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화에서 구체적인 사물은 바로 그 여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일지도 모른다.

11장은 바로 '발상의 전환', '새로운 시각' 또는 '상식과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수레바퀴, 그릇, 방안 에서는 보통사람들은 그것의 테두리만 본다. 그러나 노자는 그 안의 無, 虛를 보라고 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으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다.

⑵ 무기 - 살인의 도구

대저 아름다운 무기란 것은 상서롭지 못한 도구이다.
사물이 혹 미워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처하지 아니한다.
夫佳兵者, 不祥之器. 物或惡者, 故有道者不處. 『노자』31장

여기에서 '器'는 연장, 도구, 기구의 뜻에서 나아가서, 무기를 뜻한다. 노자 당시에는 철기 시대로, 철제 무기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전쟁도 참혹해졌다.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일을 한다. 일은 주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기는 죽이는 도구이다. 그래서 살인의 도구는 '상서롭지 못 한 도구'이다. 노자는 통치자나 군자는 가능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한다.

⑶ 소국 과민에서 도구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설사 열명이나 백명이 사용하는 (좋은)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아니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멀리 옮기지 않게 하라.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타는 바가 없고,
비록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벌려 놓는 바가 없다.
小國寡民, 使有什伯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노자』80장

여기에서 '什伯之器'는 ① 도구 ② 무기 -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일 경우, 什伯之器 ① 열명, 백명의 군사의 무기(갑옷, 칼, 창 등) ② 什伯人之器 (백서본) 사람 人이 들어가 있다. 열 사람, 백 사람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 도구. 작업 효율을 높이는 기계. 국가 기구이다. 이것은 이기(利器)이다.

80장의 兵器와 利器는 차이가 모호하다. 배와 수레가 전쟁에 쓰이면 무기이고, 물자를 나르면 利器이다. 효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노자는 군대와 같이 무식한 힘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小國寡民의 통치를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금지 한다.

그 첫째로 도구의 사용을 금지 한다. 什佰의 器, 배와 수레, 갑옷과 무기가 그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무기이다. 즉 싸움을 금지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탈 것이다. 여행의 도구를 금지 한다는 것은 여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 농기구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따라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다음의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전쟁과 여행이다. '遠徙와 往來'는 여행을 뜻한다. 여기서 이 둘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첫 번째는 죽음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경쟁을 부추기고, 욕망과 감정을 부풀리기 때문이다. 욕망의 증가와, 경쟁과 전쟁은 '문명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4.3, 전쟁 이론

노자 당시는 정복 전쟁이 횡행했다. 나라와 나라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최악이 전쟁이다. 그런데 당시는 정복 전쟁의 시대였다. 그래서 '전쟁하는 나라'(戰國)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의 문제이다.

이 시대의 제자백가는 다양한 전쟁 이론을 내세운다. 전쟁하자는 극단이 법가이다. 하지 말자는 것의 끝은 묵자이다. 노자와 맹자는 그 사이에 있다.

법가는 힘의 정복 전쟁을 주장한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획득한다. 궁극적으로는 천하를 통일한다. 반대로 묵자는 '공격 전쟁을 반대'(非攻)한다. 수비 전쟁은 찬성한다. 이는 무장 중립이다. 힘의 균형을 통한 다국 공존이다.

맹자는 정의를 내걸고 정복 전쟁을 한다. 탕과 무왕이 그러했다. 이는 신화적인 발상이다. 노자는 힘에 의한 강압을 반대한다. 따라서 전쟁도 반대한다. 다만 부득이해서 전쟁을 하면, 소극적으로 최소화된 전쟁만 하라.

이들과 달리 전쟁을 병법의 차원에서 말한 사상가도 있다. 손자의 병법이 가장 유명하다. 단위 전쟁의 기술, 즉 전술을 말한다. 전략은 없다. 또한 무기 이야기도 없다.

순자는 병가의 병법의 요소보다는 민심의 규합이 승리의 원동력이라 한다.

1) 제자백가의 전쟁 이론

⑴ 맹자는 정복 전쟁을 긍정한다. 양혜왕과 제선왕이라는 당대의 강한 나라의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가의 주장을 굽힌 것이다. 공자는 주나라의 봉건제를 부활시키려 했다. 봉건제는 제후국이 공존하는 것이다. 맹자는 주장한다. 무력이 아니라, 대의명분과 정의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군주의 덕으로 적국 국민을 감복시켜서, 그 민심이 몰려오게 하라. 탕왕 무왕이 걸과 주를 정복할 때 이러했다. 이는 신화에 불과하다. 양혜왕과 제선왕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둘 다 채택하지 않는다.

맹자는 환상적 비현실적 전쟁론이다. 아래는 모두 현실적 전쟁론이다.

⑵ 법가는 힘에 의한 정복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 이것이 당

시에 가장 현실적이었다. 진시황이 이 노선을 취해서 중국을 통일했다.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바로 망했다. 결과로 보자면, 성공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이다. 통일했다가 15년 만에 망한다면, 통일 안 하는 것이 낫다.

통일 전에 진시황은 여불위와 노선 투쟁을 했다. 여불위는 조화를 강조한다. 『여씨춘추』가 4계절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천지에서 만물이 조화롭게 사는 세계이다. 반면 진시황은 다른 나라를 모두 정복해서 멸망시키는 길을 택한다.

⑶ 묵가는 다국 공존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공격 전쟁을 반대하고, 방어하는 전쟁을 찬성한다. 철저하게 방어하되 공격하지 않음은 무장 중립이다. 모든 나라가 현상을 유지하면서 서로 공존한다.

당시의 군주는 군대를 키워서 정복해서 영토를 늘리고, 적의 인구와 재산을 약탈한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묵자는 다국 공존이 이로움을 역설한다. 전쟁의 막대한 피해가 없다. 또한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서 그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⑷ 『손자병법』은 단지 병법만 이야기한다. 전술은 있는데, 전략이 없다. 전략은 천하를 도모하는 원대한 시각이다. 전술은 개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또한 손자는 무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이래서 중국은 인해전술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이후 10가의 병법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간과하고 전술만 말한다.

⑸ 순자는 임무군과 논쟁하면서, 전쟁 이론을 말한다. 임무군은 손자 식의 전술을 말한다. 순자는 민심의 단결이 국력이고, 군사력이라 한다. 군주가 유교적인 정치를 해서, 백성과 관리가 단결하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는 전략적인 측면이다. 병가의 강한 군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전술적인 측면과 다르다. 순자에 따르면 한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는 문제가 안 된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문제이다. 진나라의 국력이 압도적 우위였는데, 이는 우월한 생산력에서 나온다. 진나라가 통일한 것은 단순한 전술의 승리가 아니다. 순자적인 전략의 승리였다.

2) 노자의 전쟁론

⑴ 전쟁은 강함, 힘자랑이 아님. 목적만 이룰 뿐.

> 도로써 군주를 보좌하는 이는
> 군대(兵)로 천하에 강함(强)을 자랑하지 않는다.
> (전쟁을) 잘 하는 자는 목적만 이룰 뿐이지 강함을 취하지 않는다.
> 목적만 이룰 뿐 (강함을) 뽐내지 않으며,
> 목적만 이루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다.
>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强天下, 其事好還.…
> 善有果而已, 不敢以取强; 果而勿矜, 果而勿驕,
> 果而不得已, 果而勿强, 『노자』 30장

노자는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강자가 되는 것이나 승리하는 것을 부정하

는 것도 아니고, 패권을 잡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면 승리해야 한다. 노자가 부정하는 것은 바로 전쟁 승리에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전쟁에 골몰하다 보면, 목적을 잃고, 힘을 자랑하고, 강함을 과시하는 길로 나간다. 잔인한 폭력과 살상으로 간다. 노자는 무력으로 천하에 힘자랑함을 부정한다. '강(强)'은 강함을 떨침, 즉 '힘 자랑'이다. 무력으로 천하에 강함을 과시하고, 강권을 휘두르고, 강압하는 것을 그는 반대한다. 그렇게 강함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자기 과시, 기분 풀이에 불과하다. 문제는 강한 나라, 강자가 되어, 싸워서 이기고,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표이다. 힘자랑은 그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도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군대나 무기로 천하에 힘자랑을 하지 않는다. 세상일이란 되돌아오기를 잘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 대로 자신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잘하는 자는 결과를 낼 뿐, 힘 자랑(强)함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를 낼 뿐,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이것은 초 오 월 등 남방 국가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그 세 나라는 강함을 서로 떨쳤다. 군대나 전쟁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전쟁을 자주하던 나라가 초나라, 진나라이다. 그 결과 다 허망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망했다. 군대는 어쩔 수 없어서 써야 한다. 전국시대 중후기의 진나라는 전쟁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진나라 장군 백기(白起)는 적군을 100만 명 이상 죽인 장군이다. 전국시대 최고의 장군이라 칭송 받는데 이것은 명예가 아니라, 욕인 것이다.

> 포악한 자는 제 명에 죽지 못한다!
> 强梁者 不得其死!『노자』42장

이것이 노자가 최고의 처세술로 권하는 것이다.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비명횡사한다. '강량强梁'은 강함을 떨치는 것이다. 강함으로써 포악하고 잔인한 것이다. 포악함은 비정상적 상태이다. 진시황이나 항우가 그렇다. 비정상은 오래 가지 못 한다.

힘으로 하는 것을 노자 언제나 금기시한다. 대신에 그는 '부드럽고 약함'(柔弱)을 강조한다. 강함은 남성의 상징이라면, 유약은 여성의 상징이다. 이런 점에서 노자의 철학은 여성적이다.

⑵ 지휘관은 담담한 마음, 냉철함, 허심을 유지해야 한다.

> "무기란 상서롭지 못한 도구이니,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 어쩔 수 없어서 쓸 뿐이니, 담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최상이다.
> 이겨도 아름답게 여기지 마라."
> 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
> 恬淡爲上, 勝而不美.『노자』31장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다. 무기를 쓰면 사람이 다치고 피를 흘린다. 피를 보면 사

람이 흥분한다. 흥분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대패하는 수도 있다.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는 늘 살상 속에 있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공포에 빠진다. 반면 지휘관은 그런 아수라장에서도 늘 냉철하고 담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상황을 파악하고 전술을 짜야 한다. 지휘관뿐만 아니라 군주도 담담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 욕심이 앞서면 무리한 짓을 한다. 패배하면 또 무리한 짓을 한다.

"잘 하는 무사는 무사 같지 않으며,
잘 싸우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대결하지 않는다.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의 아래가 된다.
이를 일러서 다투지 않는 능력이라 한다."
善爲士者不武,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與,
善用人者爲之下. 是謂不爭之德. 『노자』68장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기선 제압 보다 평상심이다. 싸움은 비상 상황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일수록 평소의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잘 싸우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사 같지 않게 보인다. 싸움이란 일종의 기술이고 전술이다. 이것을 잘 발휘하려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싸우다 보면 반드시 흥분하고 공포에 빠져서 평정심을 잃는다. 그러면 대패한다.

또 하나 잘 이기는 자는 적과 대결하지 않는다. 대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둔다. 이것은 손자도 누누이 강조한다. 전쟁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뒤에 하는 것이다. 그냥 덜렁, 덜컥 하는 것이 아니다.

⑶ 사랑, 애통함

"사랑하므로(慈) 용감할 수 있다. ... 사랑으로 전쟁을 하면 이긴다."
慈故能勇, ... 夫慈以戰則勝『노자』67장

전쟁은 증오와 적개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로 이야기한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다. 전쟁이란 단순하게 나와 적의 투쟁만 아니다. 전쟁의 결과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길 경우에, 진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죽이는가? 결국 자기 영역으로 복속시켜야 한다. 전쟁 전에는 적이지만, 전쟁 뒤에는 우리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나와 적의 모든 것을 슬픔과 연민으로 보게 된다. 이기고 짐, 삶과 죽음을 통찰할 때, 사랑(慈)이 생겨난다. 지휘관이나 군주는 언제나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증오와 분노로만 보면 반드시 반란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위에서 말한 담담한 마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현상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필연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길(道)을 직시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담담한 마음이 필요하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진정

한 용감함은 이런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화는 적을 얕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적을 가볍게 보면 거의 나의 보물을 잃게 된다.
따라서 대치한 병력이 비슷하면, 슬퍼하는 쪽이 이긴다.”
禍莫大於輕敵, 輕敵幾喪吾寶. 故抗兵相加, 哀者勝矣.『노자』69장

여기에서는 적을 얕봄과 애통해 하는 마음을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적을 얕보고 가볍게 보면, 적에게 포악하게 대하게 된다. 힘을 떨쳐서 적을 잔인하게 대하게 된다. 이는 반드시 후환이 생긴다. 가볍게 보고, 포악하게 굴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잃게 된다. 그것을 ‘나의 보물’이라 한다. 적에 대해서든지 아군에 대해서든 지휘관은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

사람을 죽임이 많으니 슬픔과 애통함으로써 눈물을 흘린다.
전쟁에 이기면 상례(喪禮)로서 그것에 처한다.
殺人之衆, 以哀悲泣之. 戰勝 以喪禮處之.『노자』31장

전쟁에 이기면 개선 행진과 전승식을 하지 말라. 이긴 자야 물론 기쁠 것이다. 그러나 진 자는 비통해 할 것이다. 그런데다 전승식을 거창하면 더 비통할 것이다. 패배자들도 결국은 그 나라에 포함된다. 속으로는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진나라 통일이 그러했다.
노자는 전승식 대신 초상을 치루라고 한다. 아군과 적군, 모든 죽은 자를 위한 초상을 치루고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⑷ 전진이 아니라 후퇴

군대를 쓰는 격언에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며,
감히 한 치를 진격하지 않고 한 자를 물러난다’는 것이 있다.
이를 일러
‘행군을 하나 행렬이 없고, 걷어붙였으나 팔뚝이 없고,
당겼으나 적이 없고, 잡았으나 무기가 없다’고 한다.
用兵有言,“吾不敢爲主而爲客, 不敢進寸而退尺.”
是謂 行無行, 攘無臂; 扔無敵, 執無兵. 『노자』69장

이것이 노자의 유명한 병법이다.
①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 - 능동적 주도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대응자가 되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안에 든 객관적 필연성(道)을 알아내라.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이 되라고 한다. 장기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다. 수동적 입장이란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이다.

노자는 굳세고 강함이 아닌 부드럽고 약함을 취하라고 한다. 부드러움과 약함의 입장이 되면, 결국 주도자가 아니라 대응자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담담한 마음'과도 일치한다.

② 한 치를 진격하지 않고, 한 자를 물러난다. - 이것은 말 그대로 후퇴하는 것이다. 전쟁하러 나선 장군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후퇴이다. 전쟁은 전진해야 공격하고, 공격해야 이긴다. 후퇴하면 공격할 수 없고, 공격을 못 하면 이기지 못 한다 - 이것을 노자는 반박한다. 장군은 공격만큼이나 후퇴도 잘 해야 한다. 후퇴만 해서 이긴 장군도 있다. 수나라와 싸운 을지문덕이 그렇고, 한니발과 싸운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이 그렇다.

노자는 상식을 뒤엎는다.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이야말로 상식을 깨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전쟁은 이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노자는 기(奇)를 말한다.

후퇴를 전진으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의 퇴행·퇴보 사관과 비슷한 논리이다.

③ "가도 행렬이 없고, 걷어붙였는데 팔이 없다. 당겼으나 적이 없고, 잡았으나 무기가 없다." 이는 전쟁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중요하다. 나는 적을 다 알지만, 적은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해야 한다. 내가 행군하는데, 적이 알아차리지 못 한다. 가도 행령이 없는 것이다. 팔을 걷어붙임은 싸울 준비이다. 적 당김은 칠 준비이다. 무기를 잡음을 찌를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을 적이 알지 못 하게 만들어라. 이것은 『손자병법』도 대략 똑같이 주장한다.

⑸ 정(正)과 기(奇)

> "바름(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奇)로써 군대를 부린다."
> 以正治國, 以奇用兵『노자』57장

正과 奇에 대해서는 뒤에도 또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간략한 설명만 한다.

正과 奇는 병법의 용어이다. 『손자병법』에도 나온다. 正은 올바름이다. 법도 규칙 규범 등을 의미한다. 반면 奇는 기이함이다. 평소에 없던 것, 즉 변칙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正'으로 해야 한다. 반면 전쟁은 '奇'로 한다. 전쟁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승작 독식이다. 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죽음 혹은 노예가 된다. 따라서 전쟁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라지 않고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奇이다.

군대를 부릴 때 '奇'로서 한다. 이는 조심해서 봐야 한다. 군대를 유지할 때는 正으로 한다. 군대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 오직 적과 대적할 때만 奇로 한다. 만약 군대 자체에 대해서 奇로 하면 그 군대는 무너질 수 있다. 군대가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양자를 잘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5. 정치 사상

5.1, 『노자』에 대한 시각 - 양생술과 통치론

모든 사상은 그 시대의 역사와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7] 노자의 정치 사상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노자의 정치사상의 특성을 파악하자면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노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정복 전쟁이 일반화되었다. 전국시대의 혼란과 절망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주나라 봉건제는 천자의 절대적 지배 아래 제후국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평화를 유지하였다. 전국 시대에는 이런 '천하관(天下觀)'이 무너져 지배 체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인간 사회의 절대적 지배자였던 하늘(天)의 보편성과 능력이 의심받게 되면서 '천명관(天命觀)'이 무너지고, 하늘의 존재 가치나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인문주의적 논의들이 등장하게 된다. 기존의 피지배 계층에서 부와 권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자,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던 지배와 피지배 계층 사이에 동요가 생겨나면서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놓고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자는 혼란한 이유를 한 가지 체계로 통일하려는 인위적 문화 체계나 통치 방식으로 보았다.

노자는 인간의 언어, 개념, 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서로 대립되는 것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강함, 단단함, 높음, 그리고 채움에 대비하여 약함, 부드러움, 낮음, 비움, 그리고 겸손함을 강조한다. 억지로 그리고 작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을 반대하고 명예와 이익에 대한 추구 그리고 지나친 욕망 등을 비판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하여 일이 자발적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함을 주장한다. 통치자의 욕심으로 인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되니, 통치자는 헛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명령과 법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통치자와 관련된 구절이나 유무(有無)에 대한 구절들에 주목하여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왕필이다. '오래 사는 것'(長生不死)에 주목하여 양생론적 종교적으로 보는 쪽이 하상공과 도교의 입장이다. 노자의 정치 철학은 소국과민(小國寡民)이다. "나라는 작게 하고, 백성은 적게 하라." 노자는 원시 공동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긴다.

노자의 사상은 유가나 법가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치자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한다는 점에서 같다. 노자 사상의 도교적, 양생론적 측면을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노자 사상의 이러한 통치 규범적 측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다 양생론으로 본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도가'에 묶이게 되었다. 하지만, 『도덕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장자』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 등을 종합하여 노자의 상대성, 자연, 부드러움 등에 대한 태도가 결국 "부드러운" 형태의 통치술을 논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특히 한비자의 「해노(解老)」 부분이나, 황로학파 등은 아예 노자가 유가, 법가, 묵가 등보다도 더 섬세한 고도의 통치술을 이야기한다고 보았다.

---

7)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1. p 9~11 참조

이 때문에 후대의 왕필본에서는 이게 권모술수에 대한 서술인지, 자연적 원리에 대한 서술인지 애매하게 읽히는 부분들이 나온다. 실제로 이렇게 애매한 몇몇 부분들은 죽간본에는 없다. 대표적으로 36장이다. 다만 죽간본에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봐도 유가와는 대비되는 통치 기술서로 읽을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면을 보면, 왜 한비자가 『노자』에 주석을 달았고, 병법이나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노자에서 영감을 얻거나 비유를 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전한 초기, 특히 한 문제 같은 경우 '無爲之治'의 도라고 해서 노장 사상의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했다. 그의 부인인 두태후에 의해 한 무제 초기까지도 통치 이념으로 남았다. 대놓고 억지로 의도를 내비치면, 상대가 반발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몇 수 앞을 읽어 행동하는 통치자나 전략가야말로 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일 수 있다. 병법서에서도 거국적인 외교술을 다루고, 격투기나 무기술에서도 음양수라고 해서, 실로 허를 치고, 허로 실을 치고, 허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기묘한 원리들을 다루는데, 노자를 이러한 맥락으로 읽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이 노자의 묘미이다. 당연하지만 노자 식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긍정적으로 평하는 학자들은 노자를 "권모술수를 담은 책"이라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 둘 다 노자를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읽은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중심에 제자백가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격변의 시대는 역설적이게도 중국 고대 사상사를 가장 빛나게 만든 밑바탕이 된 시기이기도 하다. 노자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5.2, 도에 의한 정치 - 무위(無爲)의 정치

1) 도에 의한 정치 - 無爲 自然 ; 무통치의 통치

⑴ '無爲'는 '함이 없다'는 뜻이고, '自然'은 스스로 그러함이다. 일반적으로 노자는 '無爲 自然'의 통치를 주장했다고 한다.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두는 것이 통치의 요점이다.

'道'는 '길'을 뜻한다. 길은 바깥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따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道'는 객관적 필연성, 혹은 자연의 필연적 추세를 뜻한다. 객관 세계에는 길, 즉 필연성이 있다. 이 필연성을 다른 말로는 '自然'이라 한다. '스스로 그러함'이다. 스스로 그러함이란 객관 그 자체이고, 주관적으로 즉 내가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하거 싫어한다고 해서 그 필연성-추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 필연성을 따라야 한다.

노자는 주관을 비우고, 객관을 따르라고 한다. 즉 '허심(虛心)'을 해서, 도를 따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道)와 무위자연(無爲自然)은 같은 것의 두 측면이다. 객관의 측면에서 볼 때는 도(道)를 따르는 것이다. 주관의 측면에서 볼 때는 주관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무위(無爲)'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관을 비우고 객관을 따라야 한다.

주관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마음 속에 담긴 감정 욕망이다. 이것은 비워야 할 대상이다. 허심(虛心)해야 한다. 둘째는, 그 감정 욕망에서 나온 행위이다. 이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가 없는 것을 '무위(無爲)'이다. 욕망 감정을 비우고, 그것에 따른

행위를 없애고, 도(道 길)를,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야 한다.

⑵ 노자는 세상을 '도와 현상', 둘로 나누어 본다. 1장에 나오는 무명(無名)-유명(有名), 무욕(無欲)-유욕(有欲)의 대립이 그것이다. 도는 무명(無名)이며 무욕(無欲)이다. 이름이 없고, 욕망이 없다. 반면 현상 세계는 유명이며 유욕이다. 이름이 붙어 있고, 욕망의 대상이다. 따라서 도(道)는 자연의 법칙이며, 객관 필연성이다. 그것을 '스스로 그러함(自然)'이라 한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無爲) 꼭 그렇게 된다. 도(道) - 무위(無爲) - 자연(自然), 이렇게 연결되는 사상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노자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본다.

'無爲 自然'이란 내가 주관적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행위함이 없이, 도라는 객관적 추세(스스로 그러함, 自然)를 따르라. - 이것이 정치의 요점 중 하나이다.

⑶ 이 사상을 한비자는 받아들인다. "통치의 大體는 道이다."(『한비자』「대체(大體)」) 군주는 道=길=객관 필연성을 따르라.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無爲이면 無不爲이다.' "함이 없어도, 하지 않음이 없다." 즉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왜 그런가?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객관 필연성이 그 일을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군주가 통치할 때 무위(無爲)하면, 국가 전체에서 무불위(無不爲) 한다.

한비자는 군주가 도(객관 필연성)을 따르라고 했다. 그러나 진시황은 자신을 '皇帝'라고 한다. 즉 '신-하느님'이라 한다. 신은 객관 필연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객관 필연성을 만드는 존재이다. 신은 그렇게 만든다. 그러나 진시황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황제 놀음을 한 끝에 나라가 처참하게 망한다.

⑷ 도(道)를 따름은 무위(無爲)이다. 여기에서 무위(無爲)는 주관적인 실천을 배제하는 것이다. 노자는 주관을 줄이고, 객관을 따르라고 한다. 객관 우위의 사고 방식이다. 이런 생각은 경험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2) 객관 필연성

'道'는 길이다. 길은 밖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따라가 걸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 필연성, 필연적 추세이다. 이것을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늘의 길은
>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하고
>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며, 느리고 굼떠도, 잘 꾀한다.
> 하늘의 그물은 (코가) 넓고 넓어서,
> 엉성하기는 해도 놓치는 법이 없다.
> 天地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 繟然而善謀.
> 天網恢恢, 疏而不失.『노자』73장

여기에서 천도(天道)는 하늘의 길, 하늘의 방법이다. 자연이 가는 길이다. 자연을 배우자는 것은, 노자의 기본적 신념 가운데 하나이다. '하늘의 길'은 '도(道)'를 따른다. 따라서 다툼, 말함, 부름 등의 주관적 실천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응하고, 온다. 상대를 이긴다.

주관을 비우고, 객관적 필연성을 따른다.

하늘의 그물은 하늘의 도이다. 그물코가 넓어서 엉성하지만, 잡을 것은 다 잡는다. 도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엉성하다.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결과를 낸다.

도라는 객관 필연성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힘, 혹은 굳세고 강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의 도는 여성적인 힘, 부드러운 힘으로, 길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결국 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현동(玄同; 어둡게 같아짐), 화광동진(和光同塵; 지혜의 빛을 눅이고 먼지와 같아짐), 부쟁(不爭; 다투지 않음) 등의 사상이다. 하늘은 그런 길, 그런 방법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을 키우고 움직인다.

천망(天網)이라는 그물은 이 세상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늘이 세상 사물과 다투지도, 말하지도, 부르지도 않아도, 세상 사물이 지고, 응하고, 오는 것은 바로 이 그물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필연성, 법칙을 의미한다. 누가 그것을 어기겠는가?

> 하늘이 가는 길은 (특정한 것만) 사랑함이 없이
> 항상 잘 하는 사람의 편에 선다.
> 天道無親 常與善人『노자』79장

여기에서 '親'은 '私'와 뜻이 같다. '사적으로 편을 들다'라는 뜻이다. '與'는 '더불어, 어울리다, 함께하다, 편들다'의 뜻이다. '善人'은 '잘하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다.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늘은 잘 하는 사람의 편을 든다. 잘 하는 이유는 객관적 필연성 즉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도라는 필연성을 따르면 일이 잘 이루진다. 따라서 개인적 욕망 감정 때문에,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할 필요가 없다. 도를 따르면, 부드럽고 약한 입장에 서 있게 된다.

노자는 '善 - 잘함'이라는 주제를 꺼낸다. 왜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정복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건 바로 '잘 함'이라는 관점 때문이다. 노자는 문명 사회의 본질을 다툼과 경쟁으로 본다. 경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적 상식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강함으로 상대를 이기면 원망이 생겨서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강함을 상대의 정복에 쓰지 말고, 부드러움과 약함으로 상대를 설득하라고 한다.

세상은 냉엄하고 냉철하다. 강한 자가 이긴다. 그러나 이긴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오래 간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잘 함'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이긴 자이다. 중간에 아무리 많이 이겨도 결국 마지막에 지면 패배자이다.

'잘 하는 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 하늘은 별 의지도 없다. 다만 잘 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게 그냥 둔다.

3) 무위 자연(無爲 自然)의 정치

노자의 '무위(無爲)' 사상은 그의 정치론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무위'가 실현된 상태를 '자연(自然)'이라고 한다.

⑴ 노자의 '무위(無爲)'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함이 없음', 혹은 '행위 하지 아니함'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사 말해 '무위(無爲)'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지 않

음'(having no acting) 또는 '함이 없음'(non acting)이다.

그러나 이처럼 '무위(無爲)'를 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산이나 나무같이 전혀 행위 하지 않거나,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이 생존하는 한 행위를 완전히 중지할 수는 없다. 행위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 본래의 모습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무위(無爲)'란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 '불위(不爲)'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위'란 정말로 완전히 행동을 정지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뜻하며, 인위적인 것이나 인공적인 것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런 행위를 뜻한다. 인간도 다른 사물들과 마찬 가지로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인간이 욕망과 감정에 따라 지나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롭기 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 어떤 일이라도 주관적 욕망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되면, 결과가 나빠진다.

⑵ 그러므로 노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유가적인 덕목을 반대하였다. 그것은 도와 덕이 타락한 데서 생기는 인위적인 처방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주관적인 욕망과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객관적 도를 보지 못 한다. 도를 인식하면 덕이 생긴다. 인의는 본래의 덕을 상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도를 무시하고 덕을 따르지 않는다.(38장)

'無爲'의 '爲'는 어떤 목적을 위한 의도, 혹은 욕망이 있고, 이 의도와 욕망에 따른 행위이다. 이 행위는 '스스로 그러한'(自然) 객관적 필연성과는 반대가 된다. 객관적 도를 무시하고 주관적 욕망에 따라 목적을 추구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따라서 목적 달성의 길은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무위'는 이런 역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역설 때문에 노자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강하다."(勝人者有力, 自勝者強. 32장)

이것은 군주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군주는 최고 권력을 가졌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욕망을 제어할 자는 그 자신 뿐이다.

> 도는 항상 함이 없으나 되지 않음이 없다.
> 후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 만물은 장차 스스로 교화될 것이다.
>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노자』37장

37장에서 노자는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강제로 억지로 하는 행위를 '爲'라 한다. 문명 사회가 부과하는 모든 행위,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하는 모든 행위, 그런 것을 '爲'라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이라는 역사 초기의 원시 공산 사회를 이상향으로 꿈꾸었다. 그런 사회는 '無爲而無不爲'였을 것이다. "함이 없어도 하지 않음이 없다." '無爲而無不爲'와 더불어 유명한 말이 '無爲自然'이다. '無爲=自然'이다.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의 뜻이고,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자유'이다. 외부의 강제나 통제 없이(無爲) 스스로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전국시대 사상가들의 염원 가운데 하나가 감시나 통제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돌아

가는 국가를 건설해 보는 것이었다. 노자는 道를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생산하지만 지배하지는 않고,
베풀지만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고,
우두머리가 되지만 다스리지 않는다.
이를 일러 '어두워지는 능력'이라고 한다.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노자』51장

2장에서 "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이라 한다. 여기와 두 구절이 같다. 성인은 "함이 없음을 일삼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함이 없는, 말하지 않는 통치는 무엇인가? 그걸 노자는 만물을 일어나게 해주어도 다스리지 않고, 생산해도 소유하지 않고, 위해 주어도 기대하지 않는, 업적을 이루어도 그 업적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대립자는 공존하므로, 어느 한쪽만 취하라. 생산하고 소유까지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

* 문제는 과연 생산하고 소유하지 않는가? 행위하고도 선전하지 않는가? 일을 처리하면서 지배하지 않는가? - 그럴 리는 없다. 노자는 현실주의자이고, 제왕학-처세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노자는 생산하되 오래 소유하는 법, 행위 하되 영원히 각인시키는 법, 일을 처리하되 길이 지배하는 법 - 그걸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앞부분은 드러내놓고 하되, 뒷부분은 숨겨서 하는 것이다. 생산하고 행위하고 처리하는 것, 그것은 내놓고 한다. 반면 소유하고, 선전하고 지배하는 것은 은밀히 한다.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한다. 이것이 '어둡게 숨기는 능력'(玄德)이다

4) 박(樸) ; 국가 기구는 주권이 변용된 것

⑴ '樸'은 노자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통나무 = 무규정 = 변화 가능성 = 자유 = 능력"을 상징한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를 통해서 군주의 최고 권력(군주권, 주권)을 비유한다. 군주는 최고 권력을 쪼개어서 관청과 관직을 만든다. 그러해서 국가 체제를 만든다.

'樸'의 두 번째 의미는 "통나무 = 규정되지 않음 = 소박함 = 원시 자연"이다. 백성들은 바로 이런 소박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혹은 행복하려면 이런 상태가 최고이다.

⑵ '樸'은 '무규정자(無規定者)'라는 뜻이다. 무규정은 '無名'을 번역한 것이다. 이름은 규정하는 것이다.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제약, 제한도 없다는 것이고, 모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규정되면 그 이외로의 변화 가능성은 상실된다. 반면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을 규정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나가게 한다. 정명론正名論이 바로 그것이다. 이름이란 바로 그런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덕률로 사람과 사회를 규정하려는 것이 공자의 목표이다. 공자가 보건대 사람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노자는 공자의 정명론을 부정한다. 사람을 인의(仁義)의 도덕으로 가공하는 것을 반대한

다. 그리고 백상들이 '박樸'이란 말을 '자연 상태 그대로의 소박함'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노자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모순 공존의 논리' '도와 현상의 2분법' '무규정-자유-힘' 같은 것이다.

> 도는 항상 함이 없으나 되지 않음이 없다.
> 후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교화될 것이다.
> 변화해서 일어나려 한다면, 나는 장차 이름 없음의 소박함으로 그것을 진압하리라.
> 이름 없음의 소박함은 대저 또한 장차 욕심이 없다.
> 욕심내지 않고 고요하니 천하가 장차 스스로 안정되도다!
>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無欲, 不欲以靜, 天下將自定.『노자』37장.

통치의 요점은 소박함(樸)으로 백성을 진압한다는 것이다. 소박한 상태가 되면, "함이 없으나 되지 않음이 없음"(無爲而無不爲)이 된다. 樸은 군주권 행사의 방법이다. 무명지박(無名之樸)은 '이름이 없는 통나무'이다. 이것은 소박함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국가 권력으로 백성을 진압한다. (이 경우 '樸'은 국가 최고 권력을 상징한다.)
백성들이 통나무처럼 소박하면, 욕망으로 뭔가를 도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이 없다. 만약 욕망 때문에, 야심가들이나 백성들이 일어나면. 無名之樸으로 진압을 한다. 이것은 일종의 우민 정치이다. 백성뿐 만 아니라 관리가 무지 무욕(無知 無欲)하게 만들면, 아무도 반항하지 못 할 것이다. 여기에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 오합지졸의 국가를 만들고, 내외부의 적에 완전히 취약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소박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행복의 문제이다. 소박하여 욕망이 '0'이 되면 행복은 무한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노자를 해석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정작『노자』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다.

>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발함'으로 군대를 사용한다.
> '일을 없앰'으로 천하을 취한다. …
> 내가 함을 없애니, 백성이 스스로 변화된다.
>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게 됨)
> 내가 일함을 없애니,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진다.
> 내가 욕심냄을 없애니, 백성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
>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노자』57장.

이는 正과 奇의 사상이다. 나라를 다스림은 '올바름'(正)으로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에 따라서 '기이함'(奇)를 한다. 여러 이상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럴 때 군주는 욕망과

함을 없앤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일을 없앤다. 그래서 백성도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든다. 욕망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런 마음은 '소박함'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는 안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위(無爲)의 정치이다.

'無事'는 '일이 일어남을 없애다'라는 뜻이다. 지배자가 일삼는 것이란 권력의 과시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건축 따위가 그렇다. 이것은 백성을 굶주림과 추위로 몰아넣는다. 백성은 통나무(樸)되어야 한다. '欲'은 욕망과 이성이다. 노자는 욕망과 이성을 같은 것으로 본다. 욕심을 실현시키려면 백방으로 머리를 쓰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성이 발달된다. 반대로 이성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크다는 말이다. 따라서 '欲'은 일차적으로는 욕심, 2차적으로는 이성을 가리킨다. '欲'위 반대는 물론 '박(樸, 통나무, 소박함)'이다. '박(樸)'은 '규정되지 않음, 가능성, 자유'의 의미가 있다. 지배자가 욕망이 없으면, 백성들은 규정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이나 자유에 따라 살게 된다. 이것은 우민 정치를 이야기 한다. 忌諱, 利器, 伎巧, 법령등 이런 것들을 없애라. 군주의 욕심부터 비워라. 그래서 소국과민(小國寡民)이다.

5.3, 우민(愚民) 정치

1) 군주정과 우민 정치

우민(愚民) 정치란,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얻기 어려운 재화나 욕심낼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민(愚民) 정치는 도(道)의 현(玄)과 묘(妙)를 실현시킨 것이다.

노자가 살던 전국시대에는 나라를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은 군주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군주가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백성들이 지혜를 가지거나,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백성이 지혜로우면 반드시 따지고 덤비게 된다.

전국시대에는 군주정 왕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국민 주권의 민주정,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양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 로마의 원로원 공화정이 있었다. 중국은 이런 전통이 전혀 없었다. 국민 주권은 근대 국가의 특징이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이성을 갖추게 만들어야 투표하고 정치 참여를 한다. 또 경제적 이유로 국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공장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근대적 국가는 반드시 국민을 교육시키고, 국민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게 국력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래서 근대 국가는 교육 예산이 가장 크다. 우민(愚民) 정치는 왕정 모델이다. 근대적 국가 모델이 아니다.

노자의 우민 정치는 왕정 군주정을 위한 이론이다. 왕정은 정복 전쟁으로 성립한다. 전쟁에 이기려면 어느 정도 병사를 교육시켜야 한다. 무식한 병사는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했다. 병사는 교육할 필요가 있지만, 백성은 그 필요가 없다. 교육받은 백성은 군주에게 덤벼들기 때문이다. 노자는 전국시대처럼 치열한 전쟁 없이 소박하게 사는 소국과민의 국가를 원했다. 거기에서 백성은 앎도 욕망도 없다.

노자는 백성은 지식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좀 더 많이 알게 만들어 이러한 목적들을 얻는 수단으로 쓰이게 만든 다는 것이다. 지식은 욕망의 주인인 동시에 욕망의 노예인 것이다. 많이 알면 알수록 백성들은 만족과 자제를 모르고 절제할 줄도 모른다고 하였다.

우민(愚民)을 하는 이유는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그게 백성들의 행복이다. 행복은 분자인 재화를 늘리기 보다는 분모인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늘어난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이는 유가나 도가나 똑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유가의 성인은 윤리 도덕을 가르친다. 그래야 인간답게 산다. 반면 노자는 우민 정치를 말한다. 윤리 도덕도 비운 마음이다.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2) 우민 정치의 목표

우민 정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통치의 방법이다. 백성이 어리석으면 덤비지 않는다. 둘째, 행복의 방법이다. 마음을 비우고, 소박해질 때 행복하다. 분자를 늘리기보다 분모를 줄이기이다.

> 현명한 이를 높이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라.
>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하라.
> 욕심낼 것을 보여 주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지 말라.
> 이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 그 마음은 비우되, 그 배는 채우라.
> 그 뜻은 약하게 만들되, 그 뼈는 강하게 만들라.
>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앎도 욕심도 없게 하여,
> 대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감히 하지 못 하게 만들라.
> 不尙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 是以 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 『노자』 3장

⑴ 여기는 주로 통치 방법으로서 우민 정치를 말하고 있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앎도 욕심도 없게 함”은 우민 정치이다. 이렇게 해도 가끔 가다가 여전히 욕망을 가져서, 감히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잡아서 죽이면 된다.

“대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감히 하지 못 하게 만들라.” 이것은 무지 무욕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꼭 智者가 나온다. 그런 智者는 감히 행위를 하지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⑵ 주로 통치 이론으로서 우민 정치이지만, 어떻게 보면 無知와 無欲이 백성에게 행복일 수도 있다. 앎과 욕망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욕심이 크다는 것이다. 노자는 머리가 나쁘고 욕심이 적게 만들라고 한다. 머리는 나쁜데 욕심은 많은 경우가 백성들에게는 더 많다. 이렇게 되면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된다. 그래서 첫줄의 “얻

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 욕심낼 것을 보여 주지 않음"을 해야 한다.

⑶ 3장의 앞 부분은 "~ 하게 하라"는 명령문이다. "현자(賢者)를 높이지 말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통치에 도전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를 없애기 위해서 권하는 말이다. 즉 제왕학의 측면에서 한 말이다. 노자에는 이처럼 백성을 위하는 측면과 군주를 위하는 두 측면이 다 있다. 문명 사회라는 국가는 한정된 재화(貨)와 권력을 놓고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치열하게 경쟁하게 한다. 그것이 통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자(賢者)란 문명 사회가 제시하는 모범형의 인간이다. 노자는 바로 그 모범형을 부정한다. 노자의 문명 사회에 대한 기본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문명 사회의 본질은 '경쟁을 시킴'이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욕심낼 만한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게 한다. 그 경쟁에서 이긴 자는 '현자(賢者)'라고 하고, 욕망의 대상을 많이 준다. 그런 매카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는 정확한 파악이다.

노자 당시에 유가, 묵가, 법가 등 대부분의 학파는 현자 숭상론(尙賢論)을 주장한다. 그들은 문명 사회와, 문명의 발전을 긍정한다. 반면 노자는 문명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모두 부정한다. 그것은 문명(文明)이 아닌 치열한 싸움이고, 퇴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 통치하는 우민(愚民) 정치 이론이다.

> 옛날에 도를 잘 하는 사람은
> 백성을 총명하게 함으로써 하지 않고, 장차 어리석게 만들음으로 했다.
> 백성들이 다스려지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요,
>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 이 둘이 또한 법칙(稽式)임을 알 것이지, 항상 이 법칙을 아는 것,
> 이를 일러 '어두운 능력'이라 한다.
>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 民之難治, 以其智多,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
> 知此兩者亦稽式, 常知稽式, 是謂玄德. 『노자』65.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민 정치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까닭은 앎이 많고, 욕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앎도 비우고, 욕망도 줄인다. 허심(虛心)을 하게 해야 한다. 백성이 소박해지고 멍청해지면 다스리기 쉽다.

이것이 '稽式'이다. '稽式'은 "참조해야 하는 공식 도식"이다. 또한 이는 참조해야 할 거푸집이다. 전자로 해석하면 군주가 가져야 할 공식이다. 후자로 해석하면, 백성을 그 거푸집에 넣어서 찍어내는 것이다. 혹은 백성이 어리석어야 거푸집에 넣어서 찍어낼 수 있다. 아마도 후자에 가까운 의미인 것 같다.

이런 의도를 백성에게 드러내면 안 된다. 백성이 알면 반항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둡게 숨겨야 한다. 이를 '玄德'이라 한다. 이런 공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한다. 어둡게 숨길 지혜이다.

우민 정치가 바로 국가의 기본 공식이다. 이래서 『노자』를 제왕학이라 한다. 『노자』는 군주들이 많이 읽은 책이다.

3) 우민 정치의 문제

노자는 이성과 감성을 나눈다. 이성은 도를 인식한다. 철학자만 하는 것이다. 감성은 현상을 인식한다. 백성도 한다. 통치는 철학자가 해야 한다. 백성은 통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 백성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 정치로 나간다. 이는 독재의 기본 공식이다.

백성은 똑똑해야 하나? 어리석어야 하나?

어리석음 ; 노자는 악의가 적은 우민 정치를 주장한다. 백성이 똑똑해서 따지면, 군주와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져서 전체적으로 백성에게 안 좋아진다. 국가 전체로도 안 좋은 상태이다. 홉스의 태초 상태와 같다.

우민 정치는 독재자의 독재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우민 정치는 악의적인 것이다. 독재 수단은 ① 강압, 탄압 - 굴복, 수동성, 무기력. ② 어리석게 만들기이다.

중국이 일반적으로 우민 정치의 경향이 있다. 현재 중국 정부도 같다. 역대 중국 정부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소극적이다. 중앙에 태학이 있었다. 이는 관리 양성소이다. 향시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향교는 별로 열심히 운영하지 않는다. 교육은 주로 민간이 했었다. 서원이나 서당이 그것이다.

왕정 자체가 본성이 독재 정치이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우민 정치는 필요하다. 노자는 근대 이전의 왕정을 국가의 유일한 모델로 삼는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왕정 모델만 가졌다. 왕정-군주정 이외의 체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 한다.

서양 근대는 국민을 교육시킨다. 우민 정치를 벗어 던진다.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산업화되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기계를 알지 않으면 노동 생산을 할 수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화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 나아가 제국주의 시대에 국가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교육받은 국민이 국력의 지표가 된다.

6. 제왕학

제왕학은 군주가 처세하는 방법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처세술'이라 하고, 군주의 경우에는 '제왕학'이라 한다. '帝王'은 '신적인 군주'라는 말이다. 신·하느님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이다. 진시황이 처음 이런 군주를 구현했다.

노자의 주된 이야기는 처세술이다. 그리고 이는 제왕학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6.1, 군주권의 본질

1) 군주가 가진 국가 최고의 권력을 '주권', 혹은 군주권이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군주권이 분할되어 나간 것이 국가의 관청이나 기구가 된다. 관청과 관리는 군주권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반면 최고 권력으로서 군주권은 분할되지 않은 것, 가공되지 않는 것(樸, 통나무), 혼돈 상태의 것이다. 그것은 통나무처럼 원재료이다. 이 재료에서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구가 만들어진다. 모든 것을 만드는 원재료는 전혀 마름질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것이다. "크게 마름질된 것은 쪼개지지 않은 것이다."(大制不割) 이 통나무가 흩어져서 그릇이 된다(樸散爲器).

'이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관청이나 관리는 모두 이름이 붙는다. 이름에 따라 규정된다. 반면 군주권은 이름이 없다. 無名이다.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군주권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규정하되, 어떤 것도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 만약 규정된다면 그것은 최고 권력이 아니다.

2) 군주권은 재료이다. 그래서 가능태이다. 가능태이므로 힘. 권력이다. 권력이므로 자유롭다. 또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무규정은 구속 없음이다. 이것은 '자유'이다. 가능태는 무엇이든지 할 수도 될 수도 있음이다. 이것은 최고권력이다.

신하는 일 하는 자이며, 군주권(無名 樸)을 위임 받아 행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자의 제왕학이 성립한다. 군주권은 국가에서 두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관청 관리 기구로 드러난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다.

둘째, 군주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신하를 제어하고 조종한다. 이것은 법이라든지 제도로 객관화되지 않는다. 군주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술수이다. 이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최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6.2, 포일(抱一) 사상

'抱一'이란 '하나로 껴안음'이다. '하나'라는 말은 둘을 함축한다. 둘이기 때문에 하나로 껴안는 것이다. 둘은 A와 ~A처럼 모순 대립되는 두 측면이다. 노자는 현상 세계를 변화로 본다. 변화는 반드시 A와 ~A라는 모순된 두 세력이 있어야 일어난다. 변증법이 그렇다. 따라서 노자는 A와 ~A의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한다. 반드시 둘 다를 보고,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로 껴안음'이다.

포일 사상은 처세술 혹은 제왕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왜 중요한가? 'A+~A=전체'이

다. 따라서 A와 ~A, 둘 다를 고려하면, 전체를 대비하게 된다. 만약 둘 중 하나만 중시한다면, 결국 나머지 하나는 빼먹게 된다. 그래서 실패하기 쉽다. 특히 군주는 전체를,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해야 한다.

1) 포일(抱一) 득일(得一)

'抱一'은 '하나됨을 껴안음', 혹은 '하나가 되게 껴안음'이고, '得一'은 '하나됨을 얻음'이다. 이 둘은 결국 같은 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립자의 공존' 이론이다. 변증법이다.

'抱一'은 다음 세 번역이 가능하다. ① "하나로 껴안음"은 3격 목적어이고 간접 목적어이다. ② "하나됨을 껴안음"은 4격이고 직접 목적어이다. 이것은 동명사이다. ③ "하나를 껴안음"에서 '하나'를 일반적으로 '도(道)'라고 해석한다. 이는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굳이 道를 '껴안음'(抱)라고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도를 껴안으면 '抱道'라고 할 것이지 '抱一'이라 할 이유는 없다.

이들 해석 중 ②번 해석이 가장 낫다.

노자는 현상 세계를 변화로 본다. 변화는 모순의 공존 현상이다. 노자는 기본적으로 모순 혹은 대립자의 공존 논리를 가지고 현상 세계를 분석한다. 이 논리를 처세술화한 것이 포일 사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군주에게 중요한 것이다. 제왕학의 핵심이다.

대립자의 공존은 대립자의 양측면을 다 껴안음이다, 혹은 양측면을 하나로 잡고 있음이다. 이게 처세술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 부분적이면 온전하게 되고, 굽어져야 곧게 된다.
> 비워져야 차게 되고, 낡아져야 새롭게 된다.
> 작으면 얻게되고, 많으면 헷갈린다.
> 따라서 성인은 하나로 껴안아서(抱一) 천하의 모범이 된다.
> 曲卽全, 枉卽直; 窪則盈, 敝則新; 少則得, 多則惑.
> 是以聖人抱一爲天下式 『노자』 22장

이는 '抱一'이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 "부분-전체, 굽음-곧음, 비움-참, 낡음-새로움"은 대립자들이다. A와 ~A이다. 사람들은 이 대립된 둘 가운데 하나만 본다. 그래서 늘 일에서 실패한다. 성인은 양쪽 다 하나로 껴안아서 본다. 대립자이고 모순인 A+~A =전부, 전체이다. 만약 A나 ~A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잃게 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전부를 보아야 한다.

하나됨을 껴안으면 성인은 천하의 '式'이 된다. '式'은 첫째는 모범, 규칙이다. 대립자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게 된다. 그래서 일의 처리에 있어서 성인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모든 사람들은 성인을 배워야 한다. 둘째, '式'은 거푸집이다. 대립자의 공존을 알기 때문에, 성인은 백성들을 어떤 틀에 넣어서 찍어낼 수 있다.

> 혼(魂-정신)과 백(魄-육체)을 싣고, 하나로 껴안아서,
> 떨어짐이 없게 할 수 있는가?

載營魄 抱一, 能無離乎? 『노자』10장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만약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안 된다. 얼빠진 상태, 혹은 넋이 나간 상태일 수도 있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 이는 대립자의 공존으로서 '포일(抱一)' 사상과는 좀 다르다.

옛날의 '하나된을 얻은 자'는
하늘이 하나됨을 얻어서(得一) 그로써 맑고,
땅이 하나됨을 얻어서 그로써 편안하다.
정신이(神) 하나됨을 얻어서 신령스럽고(靈), 골짜기가 하나됨을 얻어서 가득찬다.
만물이 하나됨을 얻어서 자라고, 제후 왕이 하나됨을 얻어서 천하의 곧음이 된다.
(이 모두는) 그 하나됨을 이룬다.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其致之一也. 『노자』39장

천지(天地)와 만물, 후왕(侯王), 그리고 곡신(谷神), 이 넷은 반드시 '하나됨'을 얻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 이 넷은 현상 사물의 기본 구조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는 반드시 A와 ~A라는 대립자가 있어야 한다. 그 대립된 양자를 다 껴안을 때 오래 가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천지와 만물은 개천설이다. 위와 아래에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만물이 있다. 그리고 후왕과 곡신은 그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이다. 드러나지 않은 실세는 곡신이다. 드러난 지배자는 후왕이다. '侯王'은 제후였는데 뒤에 왕이 된 사람이다. '谷神'은 골짜기의 신이다. 6장에 나온다.

노자는 도에서 현상 사물이 나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陰)을 짊어지고 양(陽)을 안고 있으며,
텅 빈 기운(沖氣)으로 조화를 이룬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 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노자』42장

"도→1→2→3→만물"이라는 낳음의 과정은 발생론이 아니라, 구조론이다. 일반적으로 '生'이라는 말 때문에 도가 만물을 낳는 것으로 본다. 이는 발생론이다. 그러나 도는 자궁

이 없다. 낳을 리가 없다. ‘生’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42장은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로 나온 명제이다. 자연과학의 빅뱅 이론처럼 우주 발생론은 아니다.

이는 세계가 5가지 구조가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다섯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도의 측면, 1의 측면, 2의 측면, 3의 측면, 그리고 만물의 측면이다. 1은 도이다. 혹은 기의 원래 상태인 태허(太虛)이다. 도는 표제어이다. 도(道)는 이 모든 과정이다. 만물은 그 안에 이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는 음과 양이다. 3은 음과 양에 ‘충기(沖氣)’를 합한 것이다. 沖氣는 텅 빈 기(氣)이다. 太虛와 같다.

다섯 구조 가운데, 노자가 가장 먼저 이해한 구조는 2인 것 같다. 2는 대립자·모순이다. 대립자가 있으면, 대립자가 없는 상태와 대립자가 조화로운 상태, 둘이 가능하다. 대립자가 없는 상태가 하나, 조화를 이룬 상태가 셋이다. 셋은 대립자(음+양) + 沖氣이다. 하나와 셋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것이 포일(抱一) 사상이다.

‘沖’은 ‘비어있음’을 뜻한다. ‘中’은 ‘가운데, 알맞음’이란 뜻이다. 이 둘은 비슷한 글자이다. 따라서 沖和→中和와 같다. 음과 양은 텅 빈 기(沖氣)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음과 양의 가운데(中)이며, 알맞음(和)이다. 알맞음으로 조화를 이룸이다.

노자는 우주의 기본 구조가 음과 양의 충기(沖氣), 충화(沖和)를 이룬 상태라고 본다. 이는 결국은 대립자의 공존을 뜻한다.

2) 대립자의 공존(모순 공존)과 처세술

세상의 구조는 대립자가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데 대립자의 공존을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처세술이라 한다. 그런데 군주가 하는 처세술을 특별히 ‘제왕학’이라 한다. 그래서 처세술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 자질구레하면 온전해진다. 구부러지면 곧아진다.
> 패이면 찬다. 닳으면 새로워진다.
> 작으면 얻는다. 많으면 헷갈린다.
> 이래서 성인은 하나로 껴안아서 천하의 법도가 된다.
> 스스로 보이지 않으므로 밝아진다.
>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므로 드러난다.
>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이 있게 된다.
>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우두머리가 된다.
>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幣則新; 少則得, 多則惑.
> 是以聖人抱一爲天下式. 不自見 故明, 不自是 故彰;
> 不自伐 故有功, 不自矜 故長. 『노자』22장

이 장은 대립자의 공존 논리를 서술하면서 처세술과 연결시키고 있다. ‘부분-전체, 구부러짐-곧음, 닳음-새로움’ 등은 대립자이다. 이는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둘 다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를 보면, ‘스스로를 보임’과 ‘드러남’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안

다. ‘스스로를 드러내 보임’은 대립자 공존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나지 않음’이 따른다. 따라서 전자인 ‘스스로를 드러내 보임’을 하지 않는다. 이는 고도의 처세술이다.

처세술의 의미는 세상일이란 내 것이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내가 헷갈려 잃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 활동성과 유연성을 키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산 지식 등 나를 붙잡는 모든 것을 줄여야 한다.

이 대립자의 공존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장자적 경향이다. 현실에서 초월 달관하는 방법이다. 대립자의 악순환으로 문명사회를 부정하고, 대립자의 선순환으로 원시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노자가 말하는 성인 또는 참 되게 세상을 이끌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위 방식이다.

둘째, 한비자적 경향이다. 힘의 관계로서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의 갈등 속에서 승리를 위한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것은 제왕학과 연결된다.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대립자의 공존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 회오리 바람은 한나절을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를 내리지 못한다.
>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 天地.
> 天地尙不能久, 而況於人乎! 『노자』23장

이 자연 현상도 대립자의 공존이다. 회오리바람과 소나기의 특징은 힘이 센 것이다. 거세다. 그 힘으로 보자면, 정말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나 힘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가지 못 한다. 자연 현상도 ‘대립자의 공존’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 한다.

노자는 사람이 자연에서 배워야 함을 여러 방면에서 강조한다.

> 되돌아 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弱)이 도의 작용이다.
>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 天下萬物 生於有, 有生於無. 『노자』40장

이는 대립자의 공존 사상이며, 포일 사상이다. 되돌아가 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즉 A와 ~A의 어떤 한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A와 ~A는 공존한다. 그래서 이 양 측면을 다 껴안아야 한다.

대립자의 공존을 알면, 강함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대립자의 공존은 객관 필연성이다. 도의 움직임이다. 그것을 따르면 일이 잘 된다. 따라서 약하고 부드러움에서 시작해도 된다. 약함이란 도의 작용이다. 도의 속성이다.

3) 처세술

노자는 대립자의 공존의 논리를 처세술의 핵심으로 삼는다. 사람의 행위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분석한다.

>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 한다.

가랑이를 벌려서 가는 자는 (오래) 가지 못 한다.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게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그 옳음이)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그 공을 인정받지 못 한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자라나지 못 한다.
企者不立, 跨者不行;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노자』24장

이는 노자의 유명한 처세술이다. 이는 상식을 뒤엎는다. A와 ~A라는 관계에서 세상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발끝으로 서는 이유는 두드러져서 돋보이려는 것이다. 가랑이를 벌려서 가는 이유는 빨리 가려는 것이다. 이 둘은 오래 가지 못 한다. 대립자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옳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인정받지 못 한다. 왜 그런가? 반대의 측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밝은 길은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것 같고,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것 같다. …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큰 음성은 소리가 드물고, 큰 모습은 형체가 없다."
"明道若昧, 進道若退, 夷道若頹.
上德若谷, 大白若辱;
廣德若不足; 建德若偸, 質眞若渝.
大方無隅, 大器晩成; 大音希聲, 大象無形."『노자』41장

이는 매우 시적인 표현이고, 또한 기하학적 지식이 들어간 것이다. 끝에 관한 사유이다. 큰 모습은 형체가 없어서 못 본다. 큰 소리는 음성이 없어서 듣지 못 한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다. - 이 셋은 기하학적 지식이며, 동시에 도를 묘사한 것이다.
밝은 길, 나가는 길, 평편한 길은 반드시 반대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대립자의 공존이다. 이를 알면, 세상을 살 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누군가 평탄한 길이라고 추천했다. 정말 평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는 반드시 울퉁불퉁함이 있다는 말이다.

잘 가는 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잘 말하는 자는 트집 잡을 데가 없다. 잘 세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는다.
잘 가두는 자는 자물쇠를 쓰지 않으나 열 수 없으며,
잘 묶는 자는 밧줄을 쓰지 않으나 풀 수 없다.

이것을 밝음을 감춤(襲明)이라 한다.

善行 無轍迹, 善言 無瑕謫, 善數 不用籌策;

善閉 無關楗而不可開,

善結 無繩約而不可解. …是謂襲明.『노자』27장

이는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에 매우 유용한 격언이다. 가고 말함 - 이는 인생살이를 비유한 것이다. 세는 것은 장사이다. 가두고 묶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사실은 그것이다.

이러한 대립자의 공존 처세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상대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이것을 '밝음을 감춤(襲明)'이라 한다.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같아지라."

和光同塵 『노자』4장

이는 앞에서 말한 습명(襲明 밝음을 감춤)과 같다. 이는 또한 현동(玄同 어둡게 같아짐) 혹은 현(玄 검게 어둠)의 사상과 연결된다.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말고 '검은 어둠'(玄)에 두어야 한다. 이는 유가와 반대이다. 유가는 지혜를 가지면 겉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자면 맹자는 마음 안에 쌓인 지혜가 얼굴과 등에 드러나 빛난다고 한다. 수면앙배(睟面盎背)가 그것이다.

대립자의 공존의 논리는 剛-柔, 陰-陽을 동시에 갖춤으로 드러난다.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켜라."

知其雄, 守其雌. 『노자』28장

이는 외유내강과 같은 말이다. 수컷의 강함을 알되, 겉으로는 암컷의 부드러움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음과 양의 조화이다. 그 둘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강함, 혹은 약함 들 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이다.

그것을 약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강하게 해야 하며,

그것을 없애 버리려 하면, 반드시 그것을 흥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밝음을 어둡게 함'(微明)이라 한다.

將欲弱之, 必固强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奪之, 必固與之. 是謂微明.『노자』36장

이것은 노자의 처세술로는 악명 높은 구절이다. 이는 뒤통수를 치는 처세술이다. 예컨대 왜 빼앗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하는가? 만약 처음부터 뺏으려고 덤벼들면, 상대는 감추

고 저항한다. 만약 먼저 주면 상대는 나를 호의적으로 보고, 경계를 늦춘다. 그럴 때 뒤통수를 쳐라. 그러면 아주 쉽게 뺏을 수 있다.

이는 처세술을 넘어서서 병법에 접근을 하는 이야기이다. 노자 당시는 전국시대였다. 치열하게 전쟁했다. 힘이 결정하는 시대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처세술은 일반적이었다. 노자는 힘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혐오한다. 대신에 이처럼 대립자의 공존에 따른 처세술로 살기를 바란다. 무식한 힘보다는 뒤통수치는 것이 낫다.

세상은 힘의 관계이다. 그리고 냉혹하다. 노자는 유가처럼 온정주의가 아니다.

6.3, 노자의 통치론

노자 뒷부분에는 통치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세금 문제, 평형성, 국가 권력 문제 등이다.

>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만들겠는가?
> 만약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렵게 여기도록 만들고
> 그리고 변칙을 쓰는 자는 내가 잡아서 죽일 수 있다면, 누가 감히 하겠는가?
> 항상 죽임을 맡는 자가 있어서 죽인다.
> 대저 죽임을 맡는 자를 대신해서 죽임,
> 이를 일러서 큰 목수를 대신해서 깍음이라 한다.
> 대저 큰 목수를 대신해서 깍는 자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드물게 있다.
> 民不畏死, 奈何以死懼之? 若使民常畏死,
> 而爲奇者, 吾得執而殺之, 孰敢?
> 常有司殺者殺. 夫代司殺者殺,
> 是謂代大匠斲. 夫代大匠斲者, 希有不傷其手矣. 『노자』 74장

국가는 백성을 복종시켜야 통치를 할 수 있다. 복종시키는 최후의 수단은 '죽임'이다. 처벌은 빼앗음이다. 백성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이 그들의 목숨이다. 그런데 만약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백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라. 그런 통치를 하라. 백성이 뭔가 가지게 만들라. 가진 것 뺏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진 것이 없으면 죽음도 불사한다.

꼭 변칙을 쓰는 자들이 나온다. 욕망과 야망 때문에 변칙을 쓴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잡아 죽여라.

1) 첫 번째 부분

첫줄 :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만들겠는가?" (民不畏死, 奈何以死懼之?) 이것은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규제도

통하지 않는 이판사판인 경우이다. 통치나 다스림은 일단 백성을 복종시킴이다. 그들의 의지를 통치의 의지에 종속시킨다. 그래서 불복하는 자는 처벌한다. 처벌의 강도가 가장 큰 것이 사형이나 죽임이다.

대부분의 경우, 죽이겠다고 하면 복종한다. 그런데 죽이겠다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된다. 이것은 큰 혼란에 빠진다. 통치권의 극단, 끝부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다. 백성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이럴 경우에는 통치에 저항을 한다. 이렇게 저항하면, 방법이 없다. 백약이 무효이다. 호해 때 진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초, 월, 오 - 세 나라의 상황이 저런 극한 상황이었다. 무력을 믿었다. 무력의 끝에는 죽음,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안방법은 백성들이 항상 죽음이 두렵게 만들어라. ① 논리적으로 보면. '삶>죽음' 이어야 한다. 반대로 '삶<죽음' 이면 당연히 죽음을 각오한다. ② 삶>죽음, 가족, 재산을 가지게 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비겁해진다. 국가가 가족 재산 등을 보장한다. → 맹자의 왕도 정치. 정전법 등 ③ 그리고 죽음을 함부로 남발하는 풍조를 없애야 한다. 이런 걸로 해결하려는 풍조는 죽음을 쉽게 알게 만든다. 중국이 이것이 문제이다. 왕조 교체기에는 항상 전쟁으로 백성들이 떼죽음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죽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때는 집단 반란이나 농민 반란을 일으킨다. 중국 왕조는 대부분 농민 반란으로 무너졌다. 청나라 태평천국의 난, 명나라 이자성의 난, 원나라 백련교도와 명교, 후한은 황건적의 난, 진나라는 진승과 오광의 난 등 셀 수 없이 많다. 중국 역사는 노자의 희망을 언제나 깔아뭉갠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가족과 재산 보장이다. 다시 말해 지킬 것이 있게 만들기이다. 죽음을 남발하지 않게 만들어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면 통치가 쉬워진다.

그리고 이런 때 나타나는 변칙을 하는 자(爲奇者)들, 즉 선동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죽음 남발이 아니다. 이것을 노자는 말하고 있다.

2) 두 번째 부분

司殺者가 있다. 이것은 살인을 담당하는 사형 집행인가? 아니다. 경찰 검찰 군인과 같은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개천설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 중 가을과 겨울은 죽음을 담당하고, 봄과 여름은 생명의 자람을 담당한다. 이것이 천지 자연의 조화인 것이다. 둘이 조화를 이룬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을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다. 통치자는 둘 다를 담당한다. 인간 사회 국가는 천지자연을 모방한다. 그래서 임금을 중심으로 서쪽에 장군을 세우고 죽음을 담당하게 하고, 동쪽에 문인을 세워 생명을 담당하게 한다.

국가 전체가 다 죽임 살인의 조직이 되면? 이것은 법가가 추구하는 것이다. 전국시대에 각국의 정책은 부국강병이다. 전국시대에 부국강병은 군국(軍國)이다. 군국(軍國)은 나라를 군대 화 하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전시 조직이다. 이렇게 되면 죽음 담당, 삶 담당의 구별이 없어진다. 이렇다 보면 그 칼에 자기 손을 다치게 된다. 그래서 그 시대 목수들의 속담이 있다. 서투른 목수는 자기 칼에 자기 손 다친다.

74장은 전체적으로는 정기(正奇)의 이야기보다는 통치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역사에서 죽음의 문제는 심각하다. 너무나 잔인하게 많이 죽인다. 일본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역사가 진행된다.

중국에서 재판은 한 사람이 다 했다. 지방관은 행정가, 검사, 판사이다. 중앙 관리, 지방관이 모든 권력 휘두른다. 송나라가 되면서부터, 군사 지휘 부분이 떨어져나간다. 절도사는 군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지방 봉건 영주, 호족의 관직화이다.

송나라는 군령과 군정을 분리시킨다. 송나라부터는 무사가 아니라 문인 정치 주도자가 된다.

노자는 司殺者는 분리시키라 했다. 이것은 초나라에 대한 반성이자 반대이다.

하늘의 길은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을진저!
높은 것은 누르고, 아래 것은 들어올린다.
남은 것은 그것을 덜고, 부족한 것은 그것에 보탠다.
하늘의 길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에 보탠다.
사람의 길은 곧 그렇지 아니하다.
부족한 것을 덜어서, 그래서 남는 것을 받들어 기른다.
누가 능히 남음으로써 천하를 받들 수 있는가? 오직 길이 있는 자로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위해 주되(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그것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天地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擧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天地道 損有餘 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 以奉有餘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是以 聖人 爲而不恃, 功成而不處, 其不欲見賢.『노자』77장.

이는 노자의 평균주의로 유명한 것이다. 자연은 남음을 덜어서 부족한 데에 보탠다.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한다. 부족한 것을 쥐어짜서 남는 것에 보탠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인류 역사는 늘 이런 식이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빈부의 극단적 차이는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다. 그래서 국가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백성의 반란에 대해서 맹자나 순자도 지적한 바가 있다. 노자는 평균주의라는 점에서 매우 핵심적인 점을 지적한다. 맹자나 순자는 군주가 백성을 먹여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못 하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래서 사랑의 정치를 하라고 한다. 매우 상식적이다. 노자는 구체적인 점을 지적한다. 불평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큰 원한을 누그러뜨려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 어찌 잘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성인은 좌계를 잡고도 사람들에게(빚 갚기를) 재촉하지 않는다.

능력이 있는 자는 '어음을 담당'하고, 능력이 없는 자는 '세금을 담당'한다.

하늘의 길은, 따로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항상 잘 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和大怨, 必有餘怨, 安可以爲善?

是以聖人執左契, 而不責於人;

有德司契, 無德司徹.

天道無親, 常與善人. 『노자』79장

전국시대에는 전쟁이 일반화된 때였다. 그래서 원한이 두루 깔려 있었다. 그리고 원한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는 늘 불안정하다. 빚 갚기를 독촉하지 않는 것도 원한을 줄이는 방법이다.

원한 문제는 공자가 최초로 중시했다. 한비자는 신하에게 '감춘 원한'(伏怨)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전국 시대는 정복 전쟁이 일상화되었다. 정복 전쟁은 반드시 원한을 폭증시킨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진 자들은 원한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원한(怨)은 원망하는 것, 즉 슬퍼하고 한탄하며 미워하는 것이다. 노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원한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철기시대로 접어서면서 정복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대였다. 철은 무기와 농기구를 만드는데 쓰였다. 무기와 식량과 군인을 가진 자는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정복했다. 정복한 자와 정복된 자는 각각 주인과 노예가 되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처럼 가축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힘의 지배는 나라 사이의 정복 전쟁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권력자와 백성의 관계에서도 형성된다. 백성은 노예였고, 일회용 컵처럼 소모품에 불과했다. 권력자들의 사이에서도 힘을 장악하기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힘을 위한 싸움,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고, 그 결과 하늘 아래에 가득찬 것은 바로 '원한'이었다. 세상은 이긴 자는 적고 진 자가 대다수일 수 밖에 없다. 이긴 자가 많다는 것은 이익이 적다는 말이다. 이익이 적어지면 당연히 원망이 많아진다.

그래서 노자는 남은 원한(餘怨)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남은 원한(餘怨)은 잔불씨와 같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대로 두면 큰 산불로 진행된다. 따라서 통치자는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 정복전쟁 시대에는 특히 더 잘 다스려야 한다.

'여원(餘怨)'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봉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사계(司契 어음 담당)는 천자와 제후의 관계이고 사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봉건제'에 가깝다. 사철(司徹 세금 담당)은 국가와 백성의 관계 중에 공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군현제'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어음을 주고 받을 때(司契) 서로 믿음이 중요하다. 반면 세금을 징수함은 국가의 권력이 뒤에 있다. 전자는 믿음 위에 서고, 후자는 권력에 근거한다. 봉건제는 천자와 제후 사이의 믿음 위에서 존립한다. 군현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다.

군주의 경우에 빚을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믿고 어음으로 대체해야 한다. 제후이던 백성이던 간에 나름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음으로 부채를 증명하듯이, 그들과 믿음을 쌓고,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

법가는 반대이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

다. 힘으로 제어하고 조종해야 한다. 힘에 눌린 자는 당장 복종한다. 그렇다고 마음에 원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씨처럼 살아 있다. 힘으로 큰 원한을 누그러뜨려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는 법이다.

> 큰 원한을 누그러뜨려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게 된다.
> 그러니 어찌 잘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和大怨, 必有餘怨, 安可以爲善? 『노자』79장

노자에서 '和'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누그러뜨리다' '풀다' '화해시키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조화시키는 것이다. 4장, 56장에 '和其光, 同其塵'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빛을 죽이고, 그 먼지와 같아지라." 누그러뜨려서 조절하고 조화를 시켜서 압력(혹은 에너지)을 줄이는 것이다. 원한이라는 에너지를 풀고 누그러뜨리는 것,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화해시킨다.

또 하나는 "모든 개체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和)을 말한다. 2장의 '音聲相和'(음과 소리, 혹은 자음과 모음이 서로 조화로움), 18장의 '六親不和'(여섯 친척이 조화롭지 못함)가 그것이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는 것은 힘과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화(和)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텅 빈 기'(冲氣)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 길러야 생겨난다. 42장에서 '沖氣以爲和'라고 한다. "텅 빈 기로써 조화를 만든다."

다른 개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기 위해서는 생명력과 같은 힘이 있어야 하며, 그 힘을 발휘할 기술이 있어야 한다. 音과 聲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는 음과 양의 관계이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 짝이 된다.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和大怨' '和光同塵'에서 '和'는 왜 '줄이고, 죽이고, 누그러뜨리는 것'인가? '큰 원한'이나 '지혜의 빛'이 바로 개체들 사이의 조화를 해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력'(情)이나 '텅 빈 기'(冲氣)와 반대되는 힘이며 기술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화광동진(和光同塵)'이다. 조화를 위해서는 이처럼 키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죽여야 하는 것도 있다.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 바로 '큰 원한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6.4, 정(正)과 기(奇)의 사상

'정(正)-기(奇)'는 병법에 나오는. 군사 용어이다. '정(正)'은 올바른 방법, '기(奇)'는 기이함, 즉 변칙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쟁은 이기는 것이 목표이다. 군대는 그래서 기(奇)에 의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문명 사회도 전쟁의 길로, 기(奇)가 늘어가는 길로 간다.

1) 올바름(正)과 기이함(奇)의 사용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변칙)으로 군대*를 쓴다.

일함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내가 무엇으로써 그것이 그러함을 아는가? 이것으로써이다.

천하에 '꺼려서 기피할 것'이 많으니, 그래서 백성이 두루 가난해진다.

백성이 '날카로운 연장'이 많아지니, 나라와 집안이 더욱 어두워진다.

사람이 '재주와 기술'이 많아지니, *기이한 물건*이 더욱 일어난다.

법의 명령이 더욱 빛나니, 도적이 많이 있게 된다.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吾何以知其然哉? 以此。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人多伎巧, 奇物滋起。法令滋彰, 盜賊多有.『노자』 57장

이는 正과 奇를 정의한 것이다. 이 둘은 각각 나라와 군대에 쓴다. 그래서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변칙)으로 군대를 쓴다."(以正治國, 以奇用兵)라고 한다. 正과 奇는 안과 밖의 차이이다. 안으로 자기 군대를 조직하고 통솔 하는 것, 즉 합하는 것은 正,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 올바름이란 규칙 법도 등 불변의 것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밖으로 적군을 향한 공격은 변화무쌍해야 한다. 奇란 바로 그 자유자재한 변화를 말한다. 그것은 올바름 법도 상례까지 벗어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 하는 기이한 것까지 자유롭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올바름 법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일상 생활에서는 올바른 길, 상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군령 법령 상식 등 모든 틀을 다 깨고, 상상력의 극한까지 다 허용된다.

국내적으로 국가나 백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적이 많아지는 것들은 奇가 늘어나서 그렇다. 즉 국가가 전쟁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사람이 '재주와 기술'이 많아지니, 기이한 물건이 더욱 일어난다."(人多伎巧, 奇物滋起)

이 부분은 '正과 奇'에서 '奇'이다. 문명 사회에서는 상상력의 극한으로 달리는 많은 물건과 일이 발생한다. 사업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한다. 따라서 극악무도한 범죄도 일어난다. 기발하고 신기한 제품 뿐만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사건들까지 다 포함한다. 노자는 80장에서 소국과민을 말하면서, 그런 것을 배척한다.

"법령이 밝아지니, 도적이 많아진다" - 이는 대립자의 공존 논리이다.

그 정치가 어둡고 어두우면, 그 백성이 순수하고 순수해진다.

그 정치가 살피고 살피면, 그 백성이 이지러지고 이지러진다.

재앙이여! 복이 기대는 바로다. 복이여! 재앙이 엎드려 숨어 있는 바로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그 '올바름'이 없다. *올바름(正)은 다시 기이함(奇)*이 되고,

잘 함은 다시 괴이함이 된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맴이 그 날이 진실로 오래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네모지게 하되, 자르지 않는다. 날카롭게 하되, 쪼개지 않는다.
곧게 하되, 늘어놓지 않는다. 빛나되, 비추지 않는다.

其政悶悶, 其民淳淳。其政察察, 其民缺缺。
禍兮 福之所倚, 福兮 禍之所伏。
孰知其極? 其無正, 正復爲奇, 善復爲妖。
人之迷, 其日固久。
是以 聖人 方而不割, 廉而不劌, 直而不肆, 光而不燿。『노자』58장

정과 기가 서로 대립자의 공존의 관계가 되어서 악순환한다. 양자를 다 살펴야 한다.

2) 어두운 통치 - 민민(悶悶)과 찰찰(察察)

⑴ 앞의 58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悶'은 '어둡다'라는 뜻이다.

"그 정치가 어둡고 어두우면(其政悶悶), 그 백성이 순수하고 순수해진다." 여기에서 '어두운 통치'는 두 의미가 있다. ① 통치가 안 드러나는 것이다. 통치자나 통치 기구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한다. 최소 통치이며, 방임의 정치이고, 무위(無爲)의 통치이다. 小國寡民도 그것에 가깝다. ② 정치가 그 백성의 마음을 어둡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을 일종의 허심(虛心) 상태로 만든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우민(愚民) 정치도 비슷하다. 이 때 백성의 마음은 어둡고 어둡다.

'悶'의 본래 뜻은 '어둡다'가 아니다. '고민하다 번민하다'이다. '其政悶悶'은 직역하면 '고민하는 통치'이다. 지배자와 군주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통치이다. 예를 들자면, 대립자의 공존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것이다. 세상 일에는 길(道)이 있다. 대립자의 공존은 '길'과 통한다. 대립자의 공존 때문에 길이 있다. 이는 섬세하게 세상을 따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는 고민하지 않는 통치이다. 무력과 힘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다. 정복 전쟁이 그것이다. 춘추 시대부터 통치자들은 잔인해지기 시작한다. 특히 초 오 월이 그러했다.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웠다. 이런 논리를 전쟁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적용을 한다. 강한 권력일수록 백성을 힘으로 완전히 제어하고 조종하려 한다.

⑵ '察'은 '살피다'라는 뜻이다. "그 정치가 살피고 살피면(其政察察), 그 백성이 이지러지고 이지러진다."에서 '살피는 정치'는 ① '밝고 세밀하고 빈틈없이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다. 나아가 ② 법이나 규정으로 신하와 백성을 꽉 묶고 빈틈없이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군주가 신하와 백성을 믿지 못 하고, 살피고 감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察察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상하가 엄격하게 구별되고, 서로 대립 투쟁하는 상태이다.

노자는 역사의 흐름을 퇴보와 타락으로 본다. 역사의 시작은 원시 자연 상태 그대로이다. 이후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서, 유가적 통치방법에서 법가적 통치방법까지 간다. 유가는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한다. 그러나 법가는 힘과 형벌로 한다. 察察의 정치가 바로 법가의 통치방식이다.

노자가 보건대, 정치는 悶悶해야지, 察察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초나라, 오나라, 월나

라 전쟁에 대한 반성이다. 노자는 초나라 출신이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된다.

3) 화와 복의 공존

사람들은 재앙이나 화를 만나면 그 행위가 신중해지고 방정하게 된다. 생각이 원숙하고 깊어진다. 따라서 좋은 결과, 즉 복이 오게 된다. 반대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함부로 행위하게 된다. 그 결과 세상을 사는 올바른 길(道)를 벗어나게 되고 재산, 권력, 목숨을 잃는 재앙을 만든다. 58장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화와 복이 공존한다는 부분이다.

재앙이여!　복이 기대는 바로다.
　복이여! 재앙이 엎드려 숨어 있는 바로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여기에서 禍와 福은 권력, 재산, 목숨 등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 대한 것과 남에 대한 것이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라는 이 부분은 세상을 지배하는 도(道)에 따르면 복을 받고, 어기면 재앙을 만난다. 사람들은 禍와 福 사이의 원대한 이치를 모른다. 즉 ‘極’은 ‘끝까지 감, 원대함, 깊음’의 뜻으로 그 결과가 ‘치명적임’을 뜻한다. 이것은『한비자』「해노」편에 나오는 해석이다.

원문 그대로 보자면, 화⇄복의 순환은 끝이 없다. 누가 그 순환의 끝을 알겠냐? 화와 복이 계속 순환하는 이유는 ‘正⇄奇’ 때문이다. 正의 상태가 奇가 되고, 奇의 상태가 다시 正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와 복이 계속해서 순환한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화↔복’과 같은 대립자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대립자를 떠남, 이것을 네 번째 부분에서는 “네모 날카로움 곧음 빛남” 등으로 설명한다.

네 번째 부분의 “자르지 않되, 네모지게 만든다. 쪼개지 않으면서 날카롭게 만든다. 늘어빼지 않으면서 곧게 만들다. 비추지 않는데, 빛난다.”(方而不割, 廉而不劌, 直而不肆, 光而不燿)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대립자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대립자의 공존이다.

상식적으로는 “잘라서 네모지게 만든다.” 그런데 노자는 “자르지 않고, 네모지게 만든다”고 한다. ‘자르지 않음’과 ‘네모짐’은 서로 반대되는 것, 즉 A와 ~A의 관계이다. 문제는 자르지 않았는데 네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道는 길이다. 객관 필연성이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즉 無爲(함이 없음)하면 自然(스스로 그렇게 됨)이 된다.

자르지 않음은 뭔가 하지 않음이고, 無爲이다. 그러면 네모지게 됨은 自然(스스로 그러함)이 된다. - 이것은 노자의 신념인 것 같다.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것을 화와 복에 적용을 하면, 내가 복의 상태일 때, 화에 대비한다. 그 대비는 무엇인가? 복에 딸린 것들을 하지 않음이다. 무위함이다. 교만함, 욕심, 공격적임(갑질) 등이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복이 이루어지고 오래 갈 것이다. 무위가 아니라 유위로 가면 다시 禍와 福이 서로 공존하고, 奇와 妖의 끝으로 가는 것이다.

悶悶에서 察察로 변함은 중국의 역사의 과정이다. 또한 화⇄복, 正⇄奇가 순환한다. 헤

맴이 오래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간다. 모순의 공존이며 순환이다. 이는 순환 사관과 비슷한 것이다. 노자가 관찰한 당시의 정치는 끝없는 퇴보이다.

여기서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인이 하는 것은 네 가지이다. 성인이 하는 네 가지는 모두 대립자의 공존이다. 노자의 전형적인 사유 방식이다.

4) 길고 멀리 보기

禍兮 福之所倚, 福兮 禍之所伏。

'兮혜'는 초나라 계열의 말투일 것이다. 『초사』 등에 많이 나온다.

어조사를 빼고 보면, '福倚禍'- "복이 화에 의지한다." 재앙(禍)에 근거해서 복이 나타난다. 또한 '禍伏於福' - "화는 복에 엎드려 숨어 있다."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이다. 이것은 노자의 대표 사상이다. 초나라 계열 지식인들이 뼛속 깊이 느낀 일이다. 대표적으로 오자서의 경우가 그렇다. 초나라는 장왕 이래, 타국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복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패가 있다. 승리하면 패배도 있고, 패배하면 승리도 있다. 승패는 일종의 사인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구천과 부차의 싸움도 이런 것이다.

길고 멀리 보기란 이렇다. 구천은 악에 받쳐서 오나라를 멸망시킨다. 오나라가 망하니까, 월나라도 망하게 되었다. 오나라가 초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 오가 사라지니까 월은 초와 직접 맞서게 되었다. 초 오 월이 양자강 아래에서 솥의 발처럼 대치했으면, 세 나라가 오래 갔을 것이다. 이것이 노자가 길고 멀리 보라는 말이다.

구천은 부차만 못 했다. 부차는 월을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구천은 멸망시킨다. 구천은 당장의 복수심 때문에 눈이 멀고, 이성이 마비되었다. 길고 멀리 보지 못 한 것이다. 오나라를 멸망시킨 구천의 승리는 결국 월나라의 멸망을 담고 있었다.

5) 정(正)과 기(奇)의 상호 작용

58장에서 말하는 正은 정상적인 방법이다. 奇는 비정상적인 변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正과 奇'는 '올바름과 기이함', '정도와 변칙'이다. 바로 앞에 말한 57장의 "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奇로써 군대를 부린다."의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다스릴 때는 正으로 하고, 적을 칠 때는 奇로 한다. 이것은 병법의 개념이다. 『손자병법』「세(勢)」편에 나온다. 奇는 변칙이다. 대표적인 것이 졸속(拙速)이다. '拙速'은 '졸렬하게 빨리'라는 뜻이다. 원래 바늘허리에 묶어서는 못 쓴다. 그러나 급하면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도 있다. 그게 군대이다. 군대는 법도, 원칙, 인도주의는 아무 짝에 쓸모없고, 오직 이기면 된다. 이기려면 별짓을 다 한다. 전국시대는 正이 사라지고 奇가 많았다. 노자가 관찰한 당시 사회와 국가 간의 국제 정세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이 바로 奇의 극단으로 간다. 이런 타락을 시작하고 주도한 나라가 초나라 장왕이다. 장왕이 이웃 제후 멸망시키고, 천하 제패하려 했으나, 진나라가 그것을 완성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의 일관된 과정이 이웃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이웃은 왜 공존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인가? 奇의 극단으로 가서 그렇다.

6) 正과 奇 - 정치와 전쟁

正과 奇를 정치와 전쟁의 이론으로 보자면 A와 ~A의 순환이다. 다시 말해 '禍와 福', '正과 奇'가 서로 순환하는 '反(되돌아 옴)'의 길이다.(40장) 이것이 맞물리면서 사인 곡선 그리는 것이다. 순환사관이며 흥망성쇠를 한다. 발전도 퇴보도 없이 사인 곡선이다.

4번째 부분을 다시 보자. "方而不割, 廉而不劌, 直而不肆, 光而不燿" - 이 부분은 뒤집어 번역해야 정확한 의미가 파악된다. "자르지 않아도 네모지게 하고, 뾰족하게 하지 않아도 각지게 하고, 잡아당겨서 펴지 않아도 곧게 하고, 눈부시게 하지 않아도 빛나도다."

이는 전형적으로 '無爲而無不爲' 혹은 '無爲自然'의 정치론이다. 함이 없다(無爲).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이 없다(無不爲). 저절로 그렇게 된다(自然). 이렇게 되는 이유는 道가 객관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객관적 필연성(道)을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인은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 통치술을 베푼다. 이것은 無爲의 통치이다. 직접 관여를 하지 않음이다. 그리고 그 정치가 悶悶한 것이다. 고민하고 번민하는 정치의 요점이 이 넷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割 劌 肆 燿'를 함이 없다. 無爲이다. 이렇기 때문에 '方 廉 直 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립자의 공존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가? 희망 사항이 아닌가? 우호적으로 해석하자면,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시켜라. 민간에 자율에 맡겨라. -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런 노자의 부드러운 통치는 묵자의 상동 겸애 사상과 비슷하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는 부드러운 통치는 실천된 적이 없다. 노자의 통치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6.5, 숨겨 놓은 지혜

- 화광동진(和光同塵), 습명(襲明). 현동(玄同) 사상

和光同塵은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같아지라. (어수룩한 보통 사람이 되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최소화시켜라. 이런 태도는 여성적인 것이다. 권력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수가 많다.

습명(襲明)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밝음을 옷으로 가림"이다. 지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다. 和光同塵과 비슷한 뜻이다.

현동(玄同)은 '어둡게 같아짐'이다. 상대가 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 하게 하면서, 상대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장자』「인간세」첫머리에 나오는 안회가 위나라의 폭군을 설득하는 이야기와 같다. 안회가 폭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폭군과 '어둡게 같아짐'을 해야 한다. 지혜의 빛을 감추고(襲明) 어둡게 같아진다.

1) 화광동진

和光同塵은 '빛을 누그러뜨려서, 먼지와 같아지라'이다. 이 말은 그 지혜의 빛을 감추고 먼지와 같아지라는 말이다. 지혜는 보통 '빛'에 비유한다. 지혜와 빛은 서로 같은 이미지이다. 빛이 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선다.

그런데 노자는 빛을 죽이고, 먼지를 뒤집어쓴 속세의 평범한 인물처럼 살라고 한다. 지혜를 과시하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위에서 모두 그 지혜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유가는 지혜의 빛을 드러내라고 한다. 성인(聖人)이 되면 후광처럼 지혜가 빛난다. 그런 성인은 말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변화가 된다. 이를 맹자는 '過化存神'이라 한다. 성인이 "지나가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신묘함을 보존시킨다."

ⓐ 도는 비었으나 그것을 씀에, 혹은 가득 채우지 못한다.
연못이여! 만물의 마루치(종손) 같도다.
ⓑ 날카로움을 꺾어서, 그 얽힌 것을 풀고,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 먼지와 같아지라.

道 沖而用之, 或不盈.
淵兮! 似萬物之宗.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노자』4장

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의 '挫其銳, 解其紛' 구절부터 해석해야 한다.

그 얽혀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얽힘(紛)은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어지럽게 뒤엉겨 있음이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지혜와 이성을 날카롭게 갈아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다. 마치 잘 드는 칼로 얽힌 실타래를 단숨에 잘라 버리듯 하는 것이다.

노자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는 얽힘을 풀 수 없다고 한다. 그 반대로 날카로움을 꺾어버리라고 한다. 유가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선악과 시비를 명확하게 가려주면, 분쟁이 해결되는가? 노자가 볼 때, 오히려 분쟁이 더 얽혀들고, 더 복잡해진다.

노자는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해소로 나간다. 서로의 대립을 줄이면, 분쟁도 줄어든다. 서로 윤리 도덕과 법을 동원해서 날카롭게 대립하면 할수록 더 싸움은 심해진다. 그래서 노자는 '挫其銳'를 하라고 한다. "그 날카로움을 꺾어라!" 그러면 얽힘이 줄어든다.

⑵ '날카로움'은 지혜의 빛을 상징한다. 윤리 도덕이나 법을 잘 알고 적용함이다. 이것을 끊어버림을 노자는 '和其光, 同其塵'이라 한다. "그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같아지라."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쓰지 말라. 감추어라. 그리고 먼지를 쓴 노동자와 비슷하게 살라.

이는 和光同塵이 그것이다. 안으로 지혜를 간직하되, 겉으로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어수룩하지만, 얽힌 분쟁을 해결한다. - 이 것, 혹은 이런 사람을 ⓐ부분에서는 연못에 비유한다. 연못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고요하고 담담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시 만물의 종손(마루치)에 비유한다. 종손은 어떤 집안의 뼈대가 되는 줄기이다. 가부장에서 가부장으로 연결되는 족보가 종손이다. 화광동진하는 사람은 만물에서 가부장이 되는 것(萬物之宗)들을 만들고 운용하는 자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물의 모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다.

⑶ 최후로 이것을 '道'라고 할 수 있다. 도는 비어 있다. 虛는 빔이고, 實은 참이다. 이

는 각각 본체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도는 비어 있지만, 현상을 제어한다. 도(道 길)를 알면 얽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도라는 것은 '비어 있음'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렵다.

여기 3장에서는 허(虛)라는 말 대신 충(沖)을 쓴다. 뜻은 둘 다 비슷하다. 다만 바로 뒤에 '淵'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沖'이라 한 것 같다.

⑷ "날카로움을 꺾은 마음"은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림'과 같고, 이는 연못이나 도의 비어 있음과 같다. 알 수 없는 것이며, 비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쓰면 한계가 없다. 모든 일에 다 적용해서 그 일의 얽힘을 풀 수 있다. 그래서 '만물의 종손'이라 한다.

이것은 6장의 '곡신(谷神)'의 비유와 비슷한 것이다. 만물의 배후의 본체이다.

⑸ 먼지와 같아짐은 먼지를 뒤집어 쓴 것이다. 남루함이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일반인을 상징한다.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 속으로는 지혜를 간직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산다. '和其光, 同其塵'과 반대는 『맹자』의 '수면앙배(睟面盎背)' 와 『대학』의 '심광체반(心廣體胖)'이다. 유가에서는 덕을 닦으면 온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후광(後光)이다. 불교의 붇다, 기독교의 예수는 후광이 있다. 신성함이다. 그러나 노자는 지혜의 빛을 죽이고, 속세의 평범한 인물처럼 살라는 것이다.

⑹ 처세술, 제왕학의 기본이 和光同塵이다. 군주가 신하와 적, 이웃 국가를 대할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화광동진이 필요하다. 최고 권력자는 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상생과 소통의 문제에서 언제나 노자는 여성적 철학으로 이야기 한다. 힘으로 하지 않는다. 윤리 도덕도 힘의 사용에 해당된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함을 선택하지만 음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광동진(和光同塵)이 전부는 아니다.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도 있다. 싸워야 한다. 윤리 도덕도 권력의 일이다. 윤리 도덕의 적용이 권력의 확립을 가져온다. 조선시대 당쟁은 윤리 도덕으로 싸운다.

㈀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 한다.

㈁ 그 구멍들을 막고, 그 문들을 닫아라.

그 날카로움을 꺽어서, 그 어지럽게 얽힘을 풀라.

그 빛을 누그려뜨려서, 그 먼지와 같아지라.

이를 일러서 '어둡게 같아짐'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를 남들과)

㈂ 친해지게 할 수도 없고, 소원해지게 할 수도 없다.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다.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 귀한 자가 된다.

知者不言, 言者不知,

塞其兌, 閉其門,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是謂玄同.

故不可得而親, 不可得而疏, 不可得而利, 不可得而害,

不可得而貴, 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 『노자』56장

㈀ 아는 것(知)은 현상이 아닌 본체를 아는 것이다. 본체는 도이다. 말하는 것(言)은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이다. 감각 지각한 내용을 말로 한다. 노자는 말은 경험적 지식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 본체는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적 지식이 아니다. 따라서 말로 하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감각 지각은 본체에 대한 사유 혹은 직관을 가리고 막는다. 따라서 감각을 하는 구멍(兌)을 막고, 그 구멍에 있는 문을 닫아라. 그러면 본체를 직관하게 된다.

* 노자의 생각에 따르면, 감각 지각을 하면 감정 욕망이 생긴다. 사람들이 욕망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분쟁이 생기고, 그 얽힘이 더 심해진다. 노자는 반경험론자이다.

만약 분쟁의 얽힘을 풀고자 한다면, 욕망과 감정에 따라 지혜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더 싸우고, 더 악화될 것이다. 방향을 반대로 잡아서, 본체를 직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 세상의 본체는 도이다.

* 도에 따라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혜의 빛을 죽이고, 먼지와 같아짐이다. - 지혜의 빛을 밝게하고, 시비와 선악을 명확하게 밝히면, 분쟁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시비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상대를 포용하라. - 이것이 화광동진(和光同塵)이고 현동(玄同)이다. 어둡게 같아짐은 그냥 상대를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또 줄여서 해소시키는 길이다.

㈂ 이렇게 상대를 포용하고 현동(玄同)하는 자는 세상의 일을 주도하는 자이다. 일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끄는 자가 있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 현동을 하면 능동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상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오게 된다.

겉보기에는 먼지를 뒤집어쓴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주도하고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극대화되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를 親-疎하거나 利-害하거나 貴-賤할 수 없다. 수동적인 것은 능동적인 것을 부릴 수 없다. 따라서 현동(玄同)하는 자를 누구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할 수 없고, 귀하게 하거나 천하게 할 수 없고, 친하게 하거나 소원하게 할 수 없다. 현동(玄同)하는 자는 얽힌 분쟁에서부터 세상일까지 모두 막후에서 조종하고 주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6장에서는 곡신(谷神)에 비유한다.

* 和光同塵은 玄同과 같다. '玄同'은 '어둡게 같아짐'이다. 상대가 알아채지 못 하게(=어둡게) 같아져서 상대를 조정하고 제어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고 권력자는 화광동진이나 현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자는 최고 권력자일수록 현동해야 한다고 한다. 진시황은 화광동진하지 않고, 권력을 직설적으로 강압적으로 포악하게 사용했다. 그는 매사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는 순식간에 망했다.

장사꾼들도 거래 협상 타협을 할 때 화광동진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화광동진이 당연한 것이다. 군주에 비해서 신하는 약자이다. 따라서 당연히 화광동진 한다. 한비자가 보면 이것은 신하의 간사함(姦)이다. 의도를 숨기고 군주를 속이는 짓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장사꾼이나 신하와 같은 약자들이 아니라, 군주와 같은 강자가 화광동진을 해야 한다. 군주가 자신의 권력 사용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다. - 이는 쉽지 않다.

노자의 인간 관계나 처세술은 제왕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힘으로 압도해도, 타협해

야 한다. 그래서 玄同이다.

2) 습명(襲明), 미명(微明)

잘 가는 자는 흔적이 없고,
잘 말하는 자는 흠잡을 데가 없고,
잘 셈하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는다.
잘 가두는 자는 자물쇠가 없어도 열지 못하게 하며,
잘 묶는 자는 밧줄이 없어도 벗어나지 못 하게 한다.
따라서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버림이 없다.
이를 일러 '숨겨 놓은 지혜'(襲明)라 한다.
善行 無轍迹, 善言 無瑕謫, 善數 不用籌策;
善閉 無關楗而不可開, 善結 無繩約而不可解.
是以 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是謂襲明. 『노자』27장.

여기서는 襲明에 대한 설명이다.

'襲습'은 ① 엄습·기습하다. ② 잇다. 계승·세습하다. '밝음을 잇다' - 이는 다음의 習明과 같은 뜻이 된다. ③ 익히다(習). '밝음을 익힘'(襲明→習明)은 유가적 학습을 말한다. 노자는 학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④ 덮다, 감추다.(풍우란), '襲'에는 '衣'의 뜻이 있다. 화려한 속옷 위에 수수한 겉옷을 입다. (이는『시경』에 나오는 말이다.) 明은 밝은 지혜이다. 따라서 '襲明'은 '옷으로 감싸 감추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밝은 지혜'이다.

가는 것, 말하는 것, 셈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다. 기술은 방법이고, 도(道)라고 할 수 있다. 도를 익힌 자는 그 세 가지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셋을 잘 하는 사람은 그냥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 편안하게, 별 힘을 안 들이고 한다. 최고의 기술자는 최고의 기술과 일상의 동작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두고 묶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 하수는 자물쇠와 밧줄로 한다. 그러나 고수는 그것 없이도 하지만, 누구도 빠져 나가지 못 한다. 이는 의도를 감추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음이다. 그리고 묶고 가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래서 자물쇠나 밧줄이 필요 없다. 이는 '지혜를 감추고 있음'이다. 이 지혜를 '습명(襲明)'이라 한다. 또한 이는 '미명(微明)'이라고도 한다. "밝음을 희미하게 함"이다.

'襲明, 玄同, 和光同塵'은 윤리적 선-악이 입장이 아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수단적인 개념이지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노자는 '잘함' -현실의 일을 잘 처리함을 추구한다. 선악(윤리 도덕)에 따르면, 버릴 사람, 구할 사람이 구분된다. 노자의 襲明 玄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하는 것이다. 바로 권력의 논리이다. 세 불리기이다. 나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다 내 백성이다. 반대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반대자에게 玄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술이다.

그것을 쪼그라뜨리고 싶거든, 반드시 그것을 확장시키라.
그것을 약하게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강하게 해야 하며,
그것을 없애 버리려 하면, 반드시 그것을 흥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를 일러 '희미하게 한 지혜'(微明)라 한다.
將欲歙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強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奪之, 必固與之, 是謂微明.
柔弱勝剛強. 魚不可脫於淵, 國之利器 不可以示人. 『노자』36장

이는 모순 공존의 논리를 처세술과 제왕학에 응용한 것이다. 이 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립자의 공존 처세술이다. 먼저 줌으로써 환심을 사서 방심하게 한 뒤에 뒤통수를 치면 쉽게 뺏을 수 있다. 이는 음흉한 처세술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차피 힘의 싸움이지, 인의(仁義) 도덕이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런 처세술이 중요하다. 이는 노자가 오직 힘이 지배하는 현실 관계를 보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그 보다는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이런 처세술은 갈등과 싸움을 전제로 하지만, 노자는 궁극적으로 격렬한 전쟁을 피하려 한다. 그는 벌거벗은 힘으로 강탈하는 것을 반대한다. 36장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일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微明'은 "밝은 지혜를 희미하게 함", 혹은 '숨김'이다. 和光同塵이나 襲明과 같은 개념이다. 어두운 지혜, 숨겨진 지혜, 혹은 어둡게 숨겨야 할 지혜이다. 즉 A와 ~A의 대립자의 공존의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상대가 알면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낳게 된다. 혹은 자주 보이게 되면, 상대가 대처하게 되어 효력이 손상되며, '날카로운 연장(利器)'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직설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위협적인 신하가 있으면, 그를 일단 키워주다가 실수를 기다려 축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두운 지혜(微明)이다. 군주의 마음가짐은 신하가 알아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주가 무엇을 할지 신하들은 전혀 모르게 해야 한다. 군주는 어둠에 있고, 신하는 밝음에 있어야 한다. 군주는 어둠 속에 있어서, 밝음에 있는 신하를 속속들이 알지만, 신하는 어둠 속의 군주를 그 微明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것은 법가의 法-勢- 術 이론 가운데 術이다.

이런 점은 병가(兵家)에서 적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노자와 한비자, 병법가는 이렇게 공유하는 점이 많다.

3) 현덕(玄德) - 어두운 능력, 본체의 능력

'현덕(玄德)'은 어두운 능력, 오묘한 능력이다. 즉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속으로 고요하게 소리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德'은 능력이라는 뜻이다. '玄'은 '검음'이다. 검음, 어두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이다. 어둠 속에 있는 능력이다.

어두운 거울을 씻고 소제하여서, 흠집이 없게 할 수 있는가? …

낳고 키워준다. 낳되 소유하지 아니하고,
위하되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두머리가 되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러서 '어두운 능력'이라 한다.

滌除玄覽, 能無疵乎? …
生之畜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노자』10장

⑴ 여기서는 玄의 사상을 설명한다. 자신의 능력을 어둠 속에 숨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작용해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 이것을 '어둡게 숨는 능력'이라 한다. 谷神이 바로 그런 것이다. '玄德'은 검은 어두운 능력. 숨겨놓은 능력이다. '微明'은 '밝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襲明'은 '밝음을 옷 입어 가림'이다. 밝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음이다. 숨길 대상이 지혜(明)이다.

이런 점에서 玄德은 微明이나, 襲明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노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종하고 관리할 것을 주장한다. 자신은 현상 뒤로 잠기게 하고, 현상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 역할과 비슷하다. 도는 현상의 뒤에 숨어서 현상을 조종한다. 현덕이 바로 그런 능력이다. 현상 뒤에 잠겨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현상을 조종 하는 것이 '검은, 어두운 능력'(玄德)이다.

⑵ "滌除玄覽, 能無疵乎?"에서 '滌除'는 화학적 세탁을 뜻한다. 빨고 쓸다 또는 씻어서 제거하다는 뜻이다. 玄覽은 覽의 두 뜻인 "거울, 보다"에 따라 둘로 해석이 된다.

① '검은 거울', 말 그대로 검정색 거울이다. 이 당시는 청동 거울이다. 청동이 녹슬면 녹색을 띄다가 오래 되면 검게 된다. 검게 되면 그냥 닦아서는 안 된다. 그냥 물이 아니라 잿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한 '검은 거울'은 '검은 어둠 속에 있는 거울', 즉 '숨겨진 거울'이라는 뜻도 있다. 혹은 '玄'은 '오묘하다'의 뜻도 있다. 따라서 '오묘한 거울'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여기에서 '검은 거울'은 공통적으로 마음을 상징한다. 마음은 오래 되고, 숨겨져 있고, 오묘한 능력을 가진다.

② "검게 어둡게 보다." "滌除玄覽" - "씻고 소제하여서, 어둡게 보다. 혹은 오묘하게 보다." 이런 해석은 소수의 것이다. 다수는 '검은 거울을 씻고 소제함'으로 본다. 뜻은 둘 다 비슷하다.

⑶ '能無疵乎?'에서 '疵'는 흠이나 하자를 뜻한다. 거울에 있는 것이다. '恃'는 '믿다, 기대다, 의지하다'이고, '長'은 '우두머리가 되다'. '宰'는 재상이 되어서 "주관 주재하다. 다스리다". '治'는 군주가 하는 것이고, '宰'는 재상이 하는 것을 말한다. '爲而不恃'는 사람들은 행위를 하면, 결과(보답)를 기대한다.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이 구절은 아마 관용적인 어구로 썼던 것 같다. 비슷한 구절이 『노자』에 여러 번 나온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서 관용구로 굳어졌을 것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대립자와 모순 공존의 논리로 말한 구절이다.

"생산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세상의 상식은 내가 생산하면 내가 소유한다. 노자는 그것이 아니라, 생산한 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게 함이

다. 내가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남들이, 백성이 적절하게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 이것은 『시경』에 나오는 "普天之下 莫非王臣. 率土之濱, 莫非王土"의 사상과 같다. "하늘의 아래는 두루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다. 땅의 테두리인 물가 안은 모두 왕의 땅이 아님이 없다." 백성과 땅이 다 왕의 것이다. 굳이 따로 왕이 소유할 이유는 없다.

이 논리를 뒤집으면, 왕은 재산을 하나도 가지지 못 한다. 전부 다 가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백성의 재산을 늘려 주는 것이 결국은 왕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위해 주되, 기대하지 아니한다." - 이 역시 비슷한 맥락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두머리가 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위(無爲)의 통치를 말한다. 군주가 군림하되, 세세하게 간섭하면서 다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풍우란은 '방임의 정치'라 한다. 중국 역사에는 드문 것이다.

⑷ 玄覽과 玄德이 서로 호응을 한다. '玄德'은 51장, 65장에도 나온다. '어두운 능력'이고,.'오묘한 능력'이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속으로 고요하게 소리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노자는 통치자가 전면에 나서서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반대한다. 대신에 2선으로 후퇴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뒤에서 여러 사안과 갈등을 조정한다. 막후의 실력자가 된다. 이를 '곡신(谷神)'이라고 한다.

요컨대 현상이 드러나서 변화할 때 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현상이 작동을 할 때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는 뒤에서 받쳐준다. 마찬가지로 군주도 도처럼 뒤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 무위(無爲), 혹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다스림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노자는 유약(柔弱 부드럽고 약함)의 입장에 선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적인 특징이다. 당시 사회는 정복 전쟁을 했다. 힘으로 결정한다. 이는 남성적인 사회이다. 노자는 이를 반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통치할 것을 주장했다.

⑸ 德은 중립적 개념이다. 덕(德)이 어떤 능력이냐는 학파별로 규정 내용이 다르다. 유가는 도덕적 인격적 능력, 법가는 정치적 장악 능력, 장자는 초월달관하는 능력을 말한다. 노자는 객관 필연성인 도를 따르는 능력을 덕이라 한다. 道와 德은 그래서 짝을 이룬다. 玄德은 자신의 욕망 감정을 배제하고, 도(객관적인 필연성)을 묵묵히 따르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노자의 '無爲'(함이 없음)는 많은 경우 '통치'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無爲'를 처세술 혹은 제왕학의 측면에서 말하면 '玄'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함이 없음'(無爲)은 다르게 보면, 검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다. '玄德, 玄同'이 그것이다. 어둡게 숨겨진 능력, 어둡게 같아짐이다. 화광동진(和光同塵)이나 습명(襲明)도 같은 사상이다.

도는 그것을 낳고, 덕은 그것을 기른다.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기르며,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치며,
그것을 기르고, 그것을 덮어준다.
생산하되 소유하지 않고, 위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우두머리가 되되 다스리지 않는다.

이를 일러 '어두워지는 능력'이라 한다.

道生之, 德畜之; 長之育之; 亭之毒之; 養之覆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노자』51장

"長之育之; 亭之毒之; 養之覆之"는 "키우고 기르며, 멈추고 해치며, 기르고 덮어준다"는 뜻으로, 이 세 구절은 표제어인 "道生之, 德畜之"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 세 구절은 상호 연관된다.

⑴ '長之 育之'와 '亭之 毒之'는 서로 반대되는 뜻이다. 長과 育은 길러 주고 키워 주는 것이다. 즉 높이와 폭, 부피를 늘려 주는 것이다. 반면 亭과 毒은 정지시키고 독을 주는 것이다. 즉 사물을 멈추게 하고, 가혹하게 대해서 해친다. 예컨대 봄 여름에 무럭무럭 자란 나무는 늦여름 태풍의 시련을 넘어야 한다. 모진 비바람에 가지와 줄기가 부서진다. 그렇게 견뎌낸 것이 크게 자란다. 또한 가을 겨울에는 추위가 들이닥쳐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해진다. 심하면 죽는다. 그런 식의 시련을 통해서 거품을 제거하고 알맹이만 남게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것이 亭이고 毒이다. 이는 유가에서 말하는 가을과 겨울의 역할이다.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 이런 것만이 다시 그 다음해 봄에 힘차게 자랄 수 있다.

⑵ '養之 覆之'(길러주고 덮어줌)은 개천설에 근거하고 있다. 개천설에 따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며(天圓地方), 하늘은 덮고(覆) 땅은 실어준다.(載)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길러 준다. 그래서 만물이 살고 자란다.

"덮어줌과 길러줌"은 하늘과 땅의 역할을 말한다. 그리고 "長·育과 亭·毒"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작용이다. 특히 밤낮과 사계절의 역할을 말한다. - 전체적으로 개천설이다. 개천설은 하늘과 땅이 만문을 길러준다고 본다. 군주의 역할도 이와 같다.

⑶ 검은 능력(玄德), 으뜸 능력(元德)은 도에 따를 때 생기는 것이다. 도(道 길)를 배우면 덕(德 능력)이 생긴다. 덕의 최고 단계는 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생산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 이것이 가장 오래 가는 길이다. 군주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가 그의 것이다. 특별히 또 소유할 필요는 없다. 반면 신하는 자기 집안만 자기 것이다. 따라서 소유하려 든다. 생산하면 소유하고, 위해 주면 댓가를 바란다. - 군주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군주의 모습은 천지 자연의 모양을 닮아야 한다. 참된 통치자는 자연을 본받아야 된다. 천지는 무위(無爲 함이 없음)을 하지만,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을 이룬다. 이는 부드러운 통치이다. 반면 전국 시대 당시의 제후들은 '강압 통치'를 한다.

옛날에 도를 잘 하는 사람은
백성을 '총명하게 함'으로써 하지 않고,
장차 '어리석게 만들음'으로 했었다.
백성들이 다스려지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니라,
이 둘이 또한 법칙(稽式)임을 알 것이니,
항상 이 법칙을 아는 것, 이를 일러 '어두운 능력'이라 한다.
어두운 능력은 깊도다, 멀도다!
사물과 더불어 되돌아가니, 그런 뒤에라야 곧 '크게 순종함'에 이르게 된다.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民之難治, 以其智多,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
知 此兩者 亦稽式, 常知稽式, 是謂玄德,
元德深矣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노자』65장

⑴ '稽式'에서 '稽'는 두 뜻이 있다. ① 고찰하다, 조사하다. ② 머무르다. 이 말의 주어는 무엇인가? 자연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뒤에서 도가 객관 필연성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 도가 '稽'한다. 나라의 경우, 군주가 다스릴 때 '稽'를 해야 한다.

'稽式'은 군주가 고찰하고, 머물러야 할 공식, 법칙이다. '式'은 객관화된 규칙, 법칙이다. '稽式'은 둘이 있다. 백성을 "총명하게 함, 어리석게 함"의 둘이다. 혹은 "나라의 해침, 나라의 복"이다. 둘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된다.

'고찰해야 할 공식'(稽式)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법칙이다. 정치의 중요한 법칙이니 군주가 꼭 기억해야 한다. 이는『묵자』에 나오는 '法儀'라는 말과 연관이 있다. '法儀'는 "법으로 삼아야 하는 범절"이다. 기술 용어로는 '거푸집'을 뜻한다. 거푸집 안에 진흙을 부어서 굳혀서, 벽돌 등을 찍어낸다. '法儀'는 법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거푸집이다. 군주는 백성을 하나 하나 그 안에 넣어서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낸다.

⑵ 군주가 '고찰하고 머물러야 할 공식'으로 노자는 둘을 제시한다. 백성을 총명하게 하지 말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라. 대신에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라. 지혜로 통치하지 말라. 전자는 나라의 재앙이 되고, 후자는 나라의 복이 된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해서 노자는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예를 들자면, 백성이 총명해진다는 것은 감각 기관이 예리해지고, 욕망 감정이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서로 다투게 된다. 여기에 군주가 지혜를 가지고 덤비면 더 복잡해고 더 혼란해진다. 그래서 노자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라고 한다. 소국과민이 그것이다.

⑶ '玄德'은 그런 稽式을 따르는 능력이다. 혹은 계식이 되는 능력이다. '玄'을 붙이는 이유는 도(道)라는 본체에 가깝다는 말이다. 노자는 '玄'이라는 말을 본체를 묘사하는 말로 쓴다.

65장에서 '玄德'은 우민(愚民) 정치를 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어둡게, 숨기면서 해야 한다. 백성들이 그런 정치임을 알면 안 된다. 따라서 군주는 그런 정치를 하되, 그런 정치인 것 같지 않게 숨겨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정치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이고, 총명하다는 뜻이다. 드러내놓고 하면 백성들을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다.

백성이 어리석어지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도를 행하는 군주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의지하게 만든다. 백성이 그를 계식(稽式)으로 삼는다. 그를 고찰하고, 그의 견해에 머무른다. 稽는 고찰함, 머무름이다. 군주는 백성들이 언제 참고하는 모델, 백성이 머무는 모델이 된다. - 군주는 백성을 어둡게 그렇게 만든다.

4) 현(玄)의 사상

'玄'은 '검음, 어둠. 본체'를 표시하는 말이다.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러 '어두운 암컷'이라 한다.
어두운 암컷의 문, 이를 일러 '하늘과 땅의 뿌리'이라 한다.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노자』06장

⑴ 이는 본체를 묘사하는 말이다. '谷神'은 '골짜기의 신비한 능력'이다. 골짜기는 그 모습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골짜기는 생명이 생산되는 곳이다. 반대로 산의 정상은 남성적인 것이다. 산은 골짜기가 아니라 정상이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이다. 그래서 남성적인 특징이 있다. 정상은 오래 머무를 수 없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한다. 또한 물이 적고 햇볕과 바람이 심하다. 그래서 생명이 살기 어렵다. 죽음에 가깝다.

여기서 노자의 핵심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높은 곳 보다는 낮은 곳, 정상보다는 골짜기, 밝음 보다는 어두움을 지향한다. 이것은 '玄'(검음, 어두움)의 사상이다. '玄牝'은 '어두운 암컷'이다. 어둠 속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암컷이다.

⑵ 6장에서 '谷神-玄牝-門-天地根'이라는 일련의 개념과 이미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玄牝'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노자는 이 세계를 개천설(蓋天說)로 본다. 개천설 우주론은 이 세상을 살아있는 생물이나 짐승으로 본다. 그것도 끊임없이 낳고 기르는 생물이다. 그런 생명력, 낳기와 기르기의 능력을 골짜기의 생산력에 비겨서 '谷神'(골짜기의 신)이라 한다. 그것을 다시 '신비한 암컷'(玄牝 검은 어두운 암컷)이라 하였다.

천지 자연은 봄에 모든 것이 자라고, 여름에 무성해지다, 가을에 열매를 남기고, 겨울에 앙상해진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순환이다. 그런 생명의 흐름을 만드는 근원을 노자는 '어두운 암컷, 신비한 암컷'이라 한다.

⑶ 노자에게는 저 넓은 대지가 바로 누운 신비한 암컷(玄牝)으로 보였을 것이다. 玄牝은 생명력의 상징이다. 그 암컷의 생명력의 핵심을 노자는 '門'이라 한다. 신비한 암컷의 문, 그것은 여성의 자궁의 문일 것이다. 자궁에서 자식을 키워서 내보내는 문이다. 노자는 門에 대한 애착이 있다. 저 넓은 대지가 누워 있는 신비한 암컷이라면, 그 대지-암컷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산력이 바로 谷神이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낳고 키울 때, 그 생명이 막 나오는 문이 있을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사이가 바로 그 문을 통과함이다.

생명의 탄생,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그 문을 나서는 것이 탄생이다. 노자는 대지, 신비한 암컷의 생산을 보면서, 그는 그 문을 본다.

⑷ 玄牝=玄覽=玄德에서 '玄'은 '검음, 어둠. 본체'를 뜻한다. 본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

자는 “암컷(玄牝), 거울(玄覽), 능력(德)”을 든다. 여기에서 ‘검은 거울’은 마음의 인식 능력이고, ‘德’은 행위 능력이다. 인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수도 있고, 본체를 포착할 수도 있다. 눈 코 입 귀의 감각 기관은 대상을 향한다. 반면 ‘검은 거울’(玄覽)로서 마음은 본체를 향한다. 본체는 도이다. 그 마음은 도라는 객관 필연성을 인식한다. 본체를 인식하면 본체의 특성인 ‘玄’(어둠, 오묘함)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⑸ 검은 암컷은 새끼를 낳음과 키움이다.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몸과 포용으로 낳고 키운다. 노자는 본체를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 비긴다. 남성적인 것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 포용한다. 대지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그래서 만물을 낳고 키운다. 玄牝은 수동적인 것이다. 숨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게 해서 만물을 자라게 한다.

‘天地根’은 ‘천지의 뿌리’이다. 천지의 만물이라는 현상을 낳는 근원, 본체이다.

옛날의 무사가 잘 된 자는
희미하며 묘하고(微妙), 어둡게 통하니,
깊어서 알기 어렵다. (깊이 알기 어렵다)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 『노자』15장

옛날의 무사가 잘 된 자는 微妙하고 玄通해서 깊이를 정말로 알 수 없다.

‘微’는 ‘희미함’을 뜻한다. ‘妙’는 ‘묘함’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한다. 한마디로 희미하고 묘하여서, 신비한 어떤 것들이다.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것은 종교에서 많이 볼 수 있다. ‘’玄은 ‘검음, 어둠. 본체’를 표시하는 말이다. 이 셋은 공통적으로 감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微와 妙는 본체를 의미한다. 현상은 드러나고 바로 지각할 수 있다. 명확하고 밝다. 본체는 희미하고 묘하다. 인식하기 어렵고, 말로 설명하기는 더 어렵다. 15장의 무사는 희미하고 묘한 본체의 특징을 가졌다.

‘玄通’은 ‘검게·어둡게 통하다’. 따라서 본체와 통한다. 도는 현상 사물의 뒤에 그렇게 숨겨서 감추어진 탁월한 능력이다. 감각 지각은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감각으로는 인식이 되지 않는다.

15장의 무사는 도라는 본체를 체득한 자이다. 희미하고 묘한 도에 어둡게 통했다. 그래서 도의 특징인 ‘희미함, 묘함’을 얻었다. 도를 알면 덕이 생긴다. 이 결과 적은 그와 싸우면 이길 수 없다. 그 무사는 ‘희미하고 묘함’이라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드러난 자가 숨은 자를 이길 수는 없다. 병법에서는 이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한다.

이 둘은 나옴을 같이 하되, 이름을 달리 하니, 똑같이 ‘어두움’이라 이른다.
어둡고 또 어두우니, 뭇 묘함의 문이다.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노자』01장

여기에서 두 가지의 것은 無名과 有名, 無欲과 有欲이다. 인용문 앞에 나온다. 이 둘은 각각 본체와 현상을 가리킨다. 본체는 이름이 없다. 규정되지 않는다. 반면 현상은 이름이 있고, 규정된다. 따라서 현상을 인식하면 사람의 마음에 욕망이 생긴다. 有欲이다. 반면 본체를 체득하면 욕망이 없어진다. 無欲이다.

본체는 하나이다. 道이다. 無名이다. 반면 현상은 여럿이다. 많은 이름이 있다. 有名이다. 현상은 본체에서 나온다. 본체와 현상은 '나음을 같이 한다'. 본체는 나오는 곳이고, 현상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나오면 서로 이름이 달라진다. 異名이다.

본체와 현상을 모두 '어두움'이라 한다.(同謂之玄) 본체는 '玄'(어두움)이다. 그런데 현상이 왜 '玄'인가? 현상은 본체에서 나왔기에 본체의 특징(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同出(나옴을 같이 함)과 同謂(똑같이 이름 지음)는 거의 같은 뜻이다.

'玄之又玄'은 '검고 또 검다'이다. 현상→본체로 거슬러 올라감을 뜻한다. '衆妙之門'은 뭇 묘함의 문이다. 본체에서 현상이 나오는 문이다. 이것은 본체와 현상의 경계선이다. 다시 말해 '同出'(나옴을 같이 함) 부분이다.

현상은 지각된다. 본체는 '微 妙 玄'(희미함, 묘함, 어두움)해서 지각이 안 된다. '玄之又玄'하여 거슬러 올라가면 최대한 門(경계선)까지만 갈 수 있다. 그 이상은 인식 불가능이다. 이래서 도를 '無名'(규정됨이 없음)이라 한다. 1장에서 '玄'이나 '妙'는 '無名'과 같은 뜻이다. '微 妙 玄'은 '이름이 없음', 혹은 '이름을 붙일 수 없음'을 다른 측면에서 기술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15장의 '微妙 玄通'과 연관된다, 또한 '衆妙之門'은 6장의 '玄牝之門'과 비슷하다. 이것은 다 玄의 사상이다.

7. 맺음말

노자(老子)는 중국 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노자에 대해서 가장 믿을만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이다. 노자는 은자(隱者) 계열 사상가이다. 은자들은 세속에서 벗어나서 숨어 살려고 했다. 숨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감추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은 어느 시기에 사람인지, 혹은 실존 인물인지도 불분명하다. 노자라는 사람과 『노자』라는 책은 다르다. 『노자』는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론이 중첩되고 편집되어, 전국 시대 말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 같다.

노자는 항상 일반인들과 반대로 생각하며, 상식을 뒤엎으려 한다. 높음보다는 낮음을,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앞으로 나서기 보다는 뒤로 물러남을, 남성적인 것보다는 여성적인 것을 취하라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강함, 남성적임, 앞으로 나섬"을 취하면, 좋은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노자는 현실을 냉엄한 힘의 관계로 파악한다. 강한 힘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다줌을 통찰한다. 그는 신비한 사상가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공자와 노자는 사고 방식이 다르다. 공자는 이상주의적 정치를 주장했고, 반대로 노자는 현실주의적 정치를 말한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을 주장한다. '~다움'은 이상적인 모습이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로 정복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사회의 혼란기였다. 노자가 살았던 곳은 초나라였다. 이 지역은 초, 오, 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가장 심하게 싸우던 지역이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상 자연스럽게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노자의 사상에 기반이 되었다. 노자는 항상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상식을 뒤엎는다.

노자는 현상적인 차원을 넘어선 도(道)라는 절대적인 원리를 추구한다. 현실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이성(理性)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판단 아래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道와 德을 따르라고 한다. 이것이 노자의 기본 사상이다. '道'는 '길'을 뜻한다. 노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변화한다. 변화해 나가는데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다. 이를 '道', 즉 '길'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道'는 객관적인 필연성, 추세를 의미한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식하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다. 현상 세계에는 그 자체로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있다. 그것이 道이다. 德은 능력이고 힘이며, 또한 특징이다. 사람이 도를 알 때, 그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다.

노자는 세상을 '도와 현상'이라는 두 가지 대립으로 본다. 1장에 나오는 무명(無名)-유명(有名), 무욕(無欲)-유욕(有欲)의 대립이 그것이다. 도는 무명(無名)이며 무욕(無欲)이다. 이름이 없고, 욕망이 없다. 반면 현상 세계는 유명(有名)이며 유욕(有欲)이다.

객관 필연성으로서 道는 '대립자의 공존'으로 말할 수 있다. A가 있으면, 반드시 ~A가 있게 된다. 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립자의 공존을 이해해야 한다.

노자는 도(道)를 무명(無名)과 무(無)라고 표현한다. '無名'은 "이름이 없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을 없앰"이다. 여기에서 '이름'은 현상 사물을 규정하는 수단이다.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 사물을 그 이름으로 규정했다는 말이다.

‘道’를 규정하는 다른 말은 ‘無’이다. 노자가 말하는 無는 뭔가 있기는 한데, ‘규정(名)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다. 이때의 無는 ‘無名’ 과 같은 뜻이다. 이 無란 규정이 없는 것, 한정짓지 않음이므로, 그것은 자유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상 사물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들이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것과 반대가 도이다. 도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힘이다. 이런 점에서 도는 ‘무명(無名)’이며 ‘통나무’이다. 그래서 노자는 ‘무명(無名)의 통나무’(無名之樸)라고 한다.

도(道)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명(無名)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모든 유명(有名)이 생기게 되는 원천이다.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無名)이기 때문에 말(언어)로 표현 될 수 없다.

노자는 도의 이미지를 곡신(谷神)과 현빈(玄牝), 박(樸)으로 표현한다.

곡신(谷神) 현빈(玄牝)은 둘 다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말로 도를 비유한 것은 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낳는 ‘생산력’이 있다는 뜻이다.

‘樸’은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이다. 원 재료이다. 무규정자이다. 노자는 ‘樸’이라는 말로 국가 최고 권력의 원래 상태를 은유·비유한다. 국가 최고 권력은 무엇에도 규정되지 말아야 한다. 마치 아직 가공하지 않는 통나무처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권력은 다양하게 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낳는 자는 ‘무 규정자’이다. 가공하지 않는 통나무(樸)와 같다. 무엇으로든지 변할 수 있는 자유-가능성-힘이다.

노자는 역발상을 한다. 그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기를 철저히 실천한다. 이 실천의 결과가 ‘대립자의 공존(모순 공존)’의 논리이다. 화의 곁에는 복이 있고, 고난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노자는 대립자의 공존이라는 논리로 인류의 역사를 해석한다.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대립자의 공존 갈등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공동체인 ‘소국과민(小國寡民)’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국가가 커짐에 따라 전쟁과 혼란도 가중된다. 그래서 노자는 문명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국과민(小國寡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노자는 전국시대의 정복 논리를 반대한다. 그 논리의 바탕에는 ‘소국과민’이 있다. 따라서 노자의 역사관은 퇴보 사관이다.

노자의 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통나무’(樸)와 ‘그릇’(器)이다. 통나무는 원료를 뜻한다.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있음을 함축한다. 그릇은 담는 것이다.

통나무는 원재료이다. 통나무를 가공해서 가구를 만든다. 이것은 재료와 제품의 관계이다. 노자는 樸과 器로 최고 권력(주권)이 국가를 구성함을 설명한다.

노자는 국가의 권력을 신기(神器)와 이기(利器)로 말한다. 신기(神器)는 ‘신비한 그릇’이나 ‘도구’라는 뜻이다. 노자는 천하를 ‘신묘한 그릇’이라 한다. 신기(神器)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다.

‘利器’는 ‘성능이 매우 좋은 도구’라는 말이다. 이 연장은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군주가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利器’는 일차적으로 국가 최고 권력(주권, 왕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利器’는 법규 규정 명령 형벌, 각종 통치 제도나 법령을 총망라한 사회 시스템의 총체이다. 백성 교화 수단,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조처까지 포함한다. 요컨대 군주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국가를 통치하되, 강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무위(無爲)의 통치를 말한다.

노자의 정치 사상은 도에 의한 무위(無爲)의 정치이다.

일반적으로 노자는 '無爲 自然'의 통치를 주장한다.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두는 것이 통치의 요점이다. '無爲 自然'이란 내가 주관적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행위함이 없이, 도라는 객관적 추세(스스로 그러함, 自然)를 따르라. 이것이 정치의 요점 중 하나이다.

노자의 '무위(無爲)' 사상은 그의 정치론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無爲'가 실현된 상태를 '자연(自然)'이라고 한다. '無爲'란 정말로 완전히 행동을 정지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뜻하며, 인위적인 것이나 인공적인 것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런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유가적인 덕목을 반대하였다. 그것은 도와 덕이 타락한 데서 생기는 인위적인 처방이다. 도를 인식하면 덕이 생긴다. 인의는 본래의 덕을 상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도를 무시하고 덕을 따르지 않는다.

노자는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강제로 억지로 하는 행위를 '爲'라 한다. 문명사회가 부과하는 모든 행위,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하는 모든 행위, 그런 것을 '爲'라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노자가 원하는 사회는 '無爲而無不爲'였을 것이다. "함이 없어도 하지 않음이 없다." '無爲而無不爲'와 더불어 유명한 말이 '無爲自然'이다. '無爲=自然'이다.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의 뜻이고,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자유'이다. 외부의 강제나 통제 없이(無爲) 스스로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우민(愚民) 정치란,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백성들에게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민(愚民) 정치는 도(道)의 현(玄)과 묘(妙)를 실현시킨 것이다.

제왕학은 군주가 처세하는 방법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처세술'이라 하고, 군주의 경우에는 '제왕학'이라 한다. 노자의 주된 이야기는 처세술이다. 그리고 이는 제왕학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군주가 가진 국가 최고의 권력을 '주권', 혹은 군주권이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군주권이 분할되어 나간 것이 국가의 관청이나 기구가 된다. 관청과 관리는 군주권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반면 최고 권력으로서 군주권은 분할되지 않은 것, 가공되지 않는 것(樸, 통나무), 혼돈 상태의 것이다. 그것은 통나무처럼 원재료이다. 이 재료에서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구가 만들어진다. 모든 것을 만드는 원재료는 전혀 마름질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크게 마름질된 것은 쪼개지지 않은 것이다."(大制不割) 라고 했고 "통나무가 흩어져서 그릇이 된다."(樸散爲器) 라고 했다.

노자가 말하는 '抱一'이란 '하나로 껴안음'이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둘을 함축한다. 둘이기 때문에 하나로 껴안는 것이다. 둘은 A와 ~A처럼 모순 대립되는 두 측면이다. 따라서 노자는 A와 ~A의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한다. 반드시 둘 다를 보고,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로 껴안음'이다. 제왕학의 핵심이다.

노자는 숨겨 놓은 지혜를 화광동진(和光同塵), 습명(襲明). 현동(玄同) 사상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여성적인 것을 상징한다. 권력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수가 많다.

襲明, 玄同, 和光同塵은 선악이 입장이 아니다. 선악 (윤리 도덕)에 따르면, 버릴 사람, 구할 사람이 구분된다. 노자의 襲明 玄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하는 것이다. 나를 찬성

하든지, 반대하든지 다 내 백성이다. 반대자에게 현동할 수밖에 없다. 선악이라는 것은 수단적인 개념이지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술이다.

현덕(玄德)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속으로 고요하게 소리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자신의 능력을 어둠 속에 숨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작용해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 노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종하고 관리할 것을 주장한다. 도와 비슷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현상 뒤에 잠겨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현상을 조종 하는 것이 '어둡게 함' 玄의 사상이다.

최근 다시 노자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현실의 답답함을 노자의 지혜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함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노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道나 無爲自然 같은 본체 이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본체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노자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노자의 핵심 사상들을 정치이론과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 짧은 지식과 사유의 미흡함으로 많은 부족감을 느낀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전들의 비교를 통해 노자가 실제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사유가 필요한 것 같다.

참고 문헌

<원전>

노자 - 웹에서 얻은 것

<번역서>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1.
오강남, 『도덕경』, 「노자 원전 풀이」, (주)현암사, 1995.
김원중, 『노자』, 「버려서 얻고 비워서 채우다」, (주)글항아리, 2013.
이석명 옮김, 『노자 도덕경 하상공 장구』, 소명출판, 2005.

<저서>

홈스 웰치, 『老子와 道敎』, 서광사, 1988.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통나무, 1999.
안성재, 『노자의 재구성』,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2.
陳鼓應, 『老莊 新論』, 소나무, 1997.
신정근, 『동양 철학의 유혹』, ㈜ 이학사, 2002.
기세춘, 『동양 고전 산책1』, 바이북스, 2006.
기세춘, 『동양 고전 산책2』 , 바이북스, 2006.
앤거스 그레이임, 『도의 논쟁자들』, 새물결 출판사, 2001.
김경수, 『출토 문헌을 통해서 본 중국 고대 사상』, 심산출판사, 2008.
장승구 외 14인, 『동양 사상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2.
김원중 옮김, 『사기열전』, (주)믿음사, 2007.

<논문>

신귀화, 『노자의 수양론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17.
권오향, 『老子』와 『莊子』에서 '心' 비교, 성균관대, 2011.
채희재, 『노자의 수양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7.
김용섭, 『老子의 無爲政治 思想에 관한 硏究』, 대구한의대 문학석사학위 논문, 2013.
이상국, 『노자의 政治哲學 연구』, 강원대 문학석사학위논문, 2017.

Abstract

The Study on Laozi's Social and Political Ideas

Kang Dae Yong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Laozi, born in Chu,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hinese philosophers. His idea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onquest war that occurred in Chu and the surrounding states. The opposition to the "way of the closed fist" gained an increasing number of supporters, and this atmosphere was very influential on Laozi's ideas.
Laozi's basic thought can be summarized by Tao and Te. According to Laozi, this world is changing, and there is a necessary course to that change. This is called Tao, that is, way. In this regard, Tao refers to objective necessity and a natural trend. If something is objective,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erceiver. The phenomenal world contains a necessary trend that proceeds on its own. This is Tao. Tao is ability, power, and characteristic. When a man understands Tao, he has the ability of Tao.
Laozi saw the world in terms of Tao and phenomenon. This can be expressed as the opposition between namelessness and "namedness", or between having no desire and having desire. Tao corresponds to namelessness and having no desire. In the other world, Tao has neither name nor desire. However, the phenomenal world is the world of namedness and desires. This world is named and is the object of desire.
Tae – Namelessness – Nothing: Namelessness means having no name. Specifically, namelessness is the removal of a name. Here, names are a measure of defining phenomena and things. Since phenomenal things are definitively defined, they can be named. Tao is the opposite. Tao is undefined and is possibility and the power of change.
Laozi described Tao as the Valley Spirit, the mysterious female or the log timber. The mountain top shines above all things, but it cannot make living things grow. On the other hand, a valley is an inconspicuous, recessed place, but it is also the cradle of all living things. Both the Valley Spirit and the mysterious female are metaphors for a female reproductive organ. These expressions commonly convey that Tao has the power of producing everything in the world.
Timber from a log has not been processed. It is a raw material and has not been defined. Timber from a log is a metaphor for the original state of sovereignty. The undefined thing produces everything. It is similar to timber from a log that has not been processed.
Laozi inverted common concepts. He pushed his inversion of concepts to the limits. This practice led to the logic of "the coexistence of opposing parties." Everything in the world has both sides. Grasping opposing parties, that is, A and ~A is essential to living well.
Laozi described his ideal state as a small country with a small population. He argued that we can solve the problems of cultivation by returning to a small country with a small population.
The key concepts of Laozi's political theory are the log timber and the vessel. The log timber is a raw material. Furniture is made by processing its timber. Thi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s and products. Laozi explained the structure of a state by using this relationship. The raw material of a state is the power of a monarch or sovereignty. Administrative offices and officers are

described as vessels because they contain sovereignty. Thus, Laozi used the metaphors of the log timber and the vesse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state and sovereignty.
Laozi described the power of a state by using a spiritual vessel and a sharp tool. Why does he think that the state's power is spiritual and sharp? It is because a king becomes what he is when he owns sovereignty. The primary meaning of a sharp tool is the supreme power of the state (sovereignty and royal authority). Also, a sharp tool is the whole social system, including all the ruling systems, regulations, orders, punishments, and laws.
Laozi thought that the politics of Tao was "Doing nothing and doing for oneself", and he emphasized rule without rule. "Doing nothing and doing for oneself" is one of the key points of politics. This concep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obeying Tao, that is, the objective trend (nature, doing for oneself), while abandoning subjective desire and will.
"Log timber" is one of Laozi's key concepts. It has two meanings. First, timber symbolizes apeiron, the potentiality of change, freedom, and ability. This is a metaphor for the sovereignty of a king. The king distributes the sovereignty to organize offices and ranks. A state system is thus arranged. Second, the log timber connotes simplicity or a primitive nature, which is not defined.
When Laozi said politics makes people ignorant, he meant the ruling of people makes them ignorant. In other words, the state of having no desire and no knowledge is realized in people. This is happiness for common people.
Laozi put a special emphasis on the art of living. It is equivalent to the discipline of kingship. The thing that is called "the art of living" for common people is "the discipline of kingship" for a monarch. Laozi was very interested in the art of living, and his words concentrate on the discipline of kinship.
"Sovereignty" is the supreme power of a king. This is the ultimate driving force of organizing and managing a state. Government offices or institutions are made by distributing the king's sovereignty. Offices and officers receive parts of the sovereignty. On the other hand, sovereignty, that is, supreme authority, is the state of being undistributed and unprocessed (log timber) or the state of chaos. It is a raw material like log timber. Al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re made from this material. Such a raw material, of which everything will be made, has not been cut or processed yet. "The great tailor does not cut". "This block is cut into implements". The king's sovereignty is a material and thus, potentiality.
Laozi recommended that a king should practice "to embrace opponents into one." In the expression "bringing opposites into one," "one" implies two things. Since there are two different things, it is necessary to turn them into one. Laozi regarded the phenomenal world as changing. Accordingly, he warned against missing either A or ~A. It is necessary to see both of them and grasp totality. This is equivalent to embracing them as one. We can consider two expressions "embracing opponents as one" and "obtaining oneness." This is very important to a king and is the essence of the discipline of kingship.
The normal and the anomalous represent the differen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When an army is organized and ruled, that is, embraced, the right way should be applied. Rightness consists of immutable regulations, laws, etc. On the other hand, any attacks on enemies should be changeable. The anomalous refers to such an arbitrary change.
When Laozi mentioned "softening the glare and unifying with dust", "actualization of her luminosity", and "attaining oneness in the dark, he emphasized hidden wisdom. These expressions convey the necessity of refraining from and minimizing the use of power, symbolizing feminine characteristics. When kings exercised their power, the problems often became more serious instead of being resolved. "Softening the glare and unifying with dust" recommends hiding the glare of wisdom and becoming dust. Glaring is equivalent to distinguishing oneself from other things. If a man shows off his wisdom, he cannot easily use it. It is because everyone becomes cautious in the face of wisdom. "Actualization of her luminosity" is a bright wisdom that is hidden beneath cloth. "Softening the glare and unifying with dust", "Actualization of her luminosity", and "Attaining oneness in the dark" do not assume the

dichotomy of good and bad. If the moral (ethic) of good and bad is adopted, then people have to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 is to be saved and the other deserted. Laozi's concepts of "Softening the glare and unifying with dust", "Actualization of her luminosity", and "Attaining oneness in the dark" all aim to save everyone.